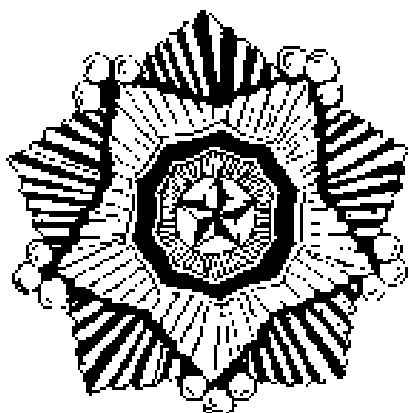


5

주체99(2010)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99(2010)년 제5호

(루계 제 751 호)

차 례

영원한 메아리	3
당과 인민	3
주체문학의 대강	4
초물모자이야기	4
우리의 멋이야	4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5
심장으로 부르신 혁명가요	5
무산지구 답사시초	6
무산지구전투승리기념탑	7
달리는 표현을 찾을수 없었다	8
고귀한 추억	9
우리 장기 제일일세	21
백두산정시초	22
수령형상창조에서 상대인물의 전형화와 세부형상	25
호박에 동침	28
주체철 신념의 강자들에게	28
래일을 싣고 흐르는 보통강	29

5 월의 보통강반을 거닐며.....	30
높은 령 저너머	31
우리 식의 제철제강법의 우월성	44
시인의 남다른 감각, 특색있는 형상적발견	45
김로인네 딸네 집 새집들이 가오.....	46
숨쉬는 산악	47
사진사는 멀어지고.....	49
책은 말없는 선생.....	49
행복의 무게	50
사과꽃 필적에는	51
병사들이 왔다.....	52
먹고 입고 쓰고 사는것	52
《박복》한 너인의 이야기	53
오, 금별메달	63
내 마음속의 언제.....	64
봄꽃핀 대안의 구내에서	76
잠 못드노라	77
유산	77
아들아 더 크게 불러라	78
대안땅의 전설	79
산진달래	79
무등산.....	80

영원한 메아리

김재원

문득 잠을 깬 첫새벽
조용히 귀기울이면
내 마음속 그리움의 하늘가 어디선가
들려오는듯 하다 새벽을 밝는 자욱소리
한평생 새벽길 헤쳐오신
아 어버이수령님의 거룩한 발자욱소리
그 소리에 울려오는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

그 자욱소리 노래에 실려
저 생각깊은 개신문에서 울려오는가
그 발자욱소리 만민의 인생사에 실려
주체사상탑 군상아래서
쿵쿵 메아리쳐오는가

인민을 하늘처럼 떠올리시고
민심을 천심으로 헤아려오신 우리 수령님
오늘도 그 걸음으로
장군님과 함께 즐거이 담소하시며
인민을 찾아 서둘러 새벽길 떠나시는듯

자욱자욱 그 자욱소리
마음의 창가에 울려울수록
가슴속엔 희망의 봄하늘 열리고
밝아오는 조국의 새벽은 기쁨에 파도쳐라
그 자욱소리 새날의 종소리인양
그 자욱소리 행복의 메아리인양

들려온다
군용외투자락 새벽바람에 날리며
전선길 밝으시던 엄엄한 자욱소리
동터오는 조국산천에 미소를 보내시며
공장길 농장길 이어가시던 사랑의 그 자욱소리

가사

손짓하며 의논도 하시고
미소하며 긍정도 하시고
온 나라 초소와 일터마다에 메아리치는
군대와 인민의 정신력에 감사도 보내시며
이 모든것 장군의 선군령도덕이라 만족해하시며
이 모든것 수령님덕분이라 더욱 존대하시고...

이렇게 함께 걸으셨더라 우리 장군님
새로 일떠선 발전소의 언제우에도
주체철 쇠물노을 피는 북방의 야금기지
변이 나고 또 변이 나는 해
인민의 리상이 실현되는 이 강토

꿈같이 솟아난 대동강기슭 청춘과원에
금파일렁이는 동해안 동봉벌에
CNC 공작기계앞에선 엄지손가락 들어
자력갱생이 제일이라 고무도 해주시며

오 함께 가시여라
우리 장군님 가고가시는 조국땅 모든 곳
세월을 이끌고가는 태양과 같이
천만군민을 품에 안으시고
우리 인민 환희 넘쳐 맞이할 2012년
강성대국 4월의 화창한 봄하늘아래로
함께 가시나니

그 자욱소리 이 새벽
당창건기념탑아래에서도 쿵쿵 울려오고
영생불멸의 혁명송가에 실려
천만군민의 가슴 흔들며
영원한 메아리로 울려가도다
자욱소리 거룩한 발자욱소리...

당과 인민

리명근

우리 당 력사의 역센 뿌리는
인민의 마음속에 굳게 내렸다
세기를 이어온 당과 인민은
떨어져 못사는 혼연일체다
아 당과 인민은 영원한 하나

우리 당 걸어온 천만리길에
인민은 언제나 함께 있었다
이끌며 따르는 일심동체로

고난도 시련도 헤쳐넘었다
아 당과 인민은 영원한 하나

우리 당 목표는 인민의 행복
인민의 표대는 우리 당 기발
세월의 끝까지 세상 끝까지
운명의 공동체 한모습이다
아 당과 인민은 영원한 하나

주체문학의 대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으로작 《주체문학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작품에서는 우리 시대 인간의 집단주의적생명관을 잘 보여주어야 한다.》

《문학에서는 우리 시대 인간들이 지니고있는 대중적영웅주의의 본질을 생동하고 깊이있게 밝혀내야 하며 우리 문학에 그려지는 영웅의 성격은 사람들모두가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하는 전형적인 환경속에서 형성되어야 한다 작품에서는 우리 시대 인간들의 대중적영웅주의가 집단주의적생명관에 기초하고 조직의 지도와 집단의 적극적인 협력에 의해서만 발휘될수 있다는 사상을 두드러지게 그려야 한다.》

초물모자이야기

고남철

어이 알았으랴
하얀 눈보라가 기세를 올리는 압록강기슭
우리 공장 찾아오신 아버지장군님
아이들 털신발 처녀들 장화랑 나란히 놓여있던
왕골로 만든 초물모자를 보시고 그리도 기뻐하실
줄이야

은실같은 실날에 금실같은 한뼘한뼘에 어린
우리의 사랑과 소원을 갈피갈피 헤아리시며
찬찬히 풀어보시던 정깊으신 손길로
그 초물모자를 들어 허물없이 써보시는
선군령장의 소탈하신 영상이여!

들판의 농장원들 즐겨쓰는 그 모자를 쓰시고
무지개 피우던 칠색송어떼를 보시던 때처럼
-인민들이 좋아하겠소!
아버지장군님 희열에 넘쳐하실 때
그 모자에서 오리오리 금빛이 빛발쳐나오고
공장안에 창밖에는 금시 무르녹는 따뜻한 빛과 열

그 영상을 우리려 환희에 젖던 우리의 눈길
찬눈에 얼고 젖은 그이의 야전솜옷자락 부여잡고
그때에야 차디찬 겨울을 느끼며
가슴치며 가슴을 치며 터뜨린 속삭임
-오늘이 여름날이었으면!

가사

참으로 여름날이었으면
그이 잠시라도 시원하게 땀이라도 들이시련만!
해빛가릴 한잎의 초물모자도 아니 쓰시고
풀잎에 불당길 폭열의 강행군길 걸으시던 장군님
오늘은 눈계절에 인민이 쓸 여름모자를 써보시누나

두둥실 넓은 채양아래 오곡을 가꾸는
농장벌너인들 밝은 얼굴 그려보시는가
한차지 주체철을 쏟아내고 구내길 걸어가는
강철사나이들의 푸근한 웃음소리를 들으시는가
인민의 작은 즐거움조차 큰 기쁨으로 안으시는
아버지장군님

인민을 위해 눈보라를 막아 봄을 부르시고
불별을 가려 시원한 그늘을 펼쳐주시는 그이 손길
원썬들의 불바람도 총탄까지도 다 막아주시는
아버지장군님의 하늘같은 사랑에 받들려
풀로 엮은 초물모자가 인민의 제일 좋은 모자로
빛을 뿌리여라

오늘이 봄날이었으면
오늘이 여름날이었으면
인민의 소원은 간절한 속망으로 남고...
아, 장군님의 인민사랑은 끝없이 깊어지고 뜨거
워지고!...

우리의 멋이야

류정실

우리의 위성이 우주를 날으고
우리 식 CNC 공장마다 우뢰치네
장군님 안겨주신 민족의 자부높이
최첨단을 돌파하는 이게 바로 멋이야
랄랄라 혁명하는 우리의 멋이야

선군의 천리마 폭풍쳐 내닫고
주체철 쇠물은 장쾌하게 쏟아지네
장군님 지펴주신 대고조불길속에

부강조국 펼쳐가는 이게 바로 멋이야
랄랄라 혁명하는 우리의 멋이야

승리의 불보라 하늘을 뒤덮고
인민의 리상은 이 땅우에 펼쳐지네
장군님 가리키신 광명한 그 미래를
오늘에로 앞당기는 이게 바로 멋이야
랄랄라 혁명하는 우리의 멋이야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쓰시었다.

《그 물동가에는 진달래가 많았습니다. 우리 대원들은 조국의 진달래를 보자 모두 환성을 질렀습니다.》

《그때 우리가 본 진달래는 단순한 자연의 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외적에게 강탈당한 조국의 한 부분, 하나의 살점과도 같은것이었습니다.》

《그날 유격대원들은 이 꽃을 그저 진달래라고 하지 않고 조국의 진달래라고 불렀습니다. 조국의 진달래, 이 말속에는 조국과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며 광복의 봄을 앞당기고 해방된 조국강산에 인민의 행복한 락원을 일떠세우려는 유격대원들의 열렬한 념원이 담겨져있었습니다.》

《무산지구전투는 보천보전투와 함께 우리가 국내에서 진행한 군사작전들가운데서 가장 규모가 크고 의의가 큰 전투였습니다.》

혁명설화

심장으로 부르신 혁명가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 시기 조국과 혁명,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안으시고 부르신 노래가 그 얼마인지 모른다.

그중에는 무산지구제로의 역사적인 조국진출의 나날 조국해방의 앞날을 확신하시며 부르신 노래도 있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이 갑무정비도로를 따라 위풍 당당히 행군할 때의 일이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행군하는 대원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 높았다. 그들은 역사적인 고난의 행군의 승리후 한시바삐 조국으로 진출하고 싶던 소원이 성취된것만 해도 가슴벅찬 일인데 적들이 개통식을 앞두고 말끔히 청소까지 해놓은 경비도로를 자기들이 먼저 통과하게 된다고 생각하니 통쾌한 감정을 금치 못하였다.

대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고 계시는 무비의 담력과 비상한 통찰력, 탁월한 군사적예지를 두고 이야기꽃을 피웠다.

그들의 이런 모습을 미덥게 바라보시며 행군하시는 백두의 녀장군 김정숙동지의 안광에는 기쁨의 미소가 함뿍 어려있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대원들에게 얼마나 통쾌한 행군인가고 하시면서 이제 이 사실이 알려지면 적들은 공포에 떨게 될것이지만 우리 인민들은 얼마나 기뻐하고 가슴후련해하겠는가고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참으로 사령관동지는 전설적영웅이시고 만고의 명장이시라고, 사령관동지께서 계시어 조국은 반드시 해방되고 이 땅에는 인민의 참다운 락원이 펼쳐지게 될것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었다.

김정숙동지의 말씀은 대원들의 전투적사기를 더한층 북돋아주았으며 그들로 하여금 조국해방의 앞날을 확신성있게 그려보게 하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흥분된 심정을 금치 못하는 대원들을 바라보시며 지금 우리가 걷고있는 이길이 조국으로 개선하는 길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은 비록 이 길을 척후를 세우고 가지만 이제 멀지 않아 사령관동지를 모시고 대오앞에 해방의 기발을 날리며 조국땅으로 개선하게 될 그날은 꼭 올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그러시고나서 조국땅 어느 길이든 노래를 부르며 마음껏 활보하게 될 그런 날은 반드시 올것이라고 다시금 힘주어 말씀하시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흥분된 심정을 목청껏 노래에 담고싶으시었다. 이것은 대원들의 한결같은 심정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적들이 각지에서 국경수비대 경찰대를 비롯하여 수많은 《토벌》무력을 끌어다가 대대적인 포위수색작전을 벌리고있는 조건에서 그렇게 할수는 없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노래를 부를수 없는것이 안타까우시었다. 그리하여 입속말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시었다. 그이께서 부르시는 노래소리는 울리지 않았지만 대원들의 심금을 끝없이 울려주었다.

김정숙동지께서 입속말로 부르신 노래,

그것은 백두산녀장군의 심장속에서 울린 노래였으며 혁명승리에 대한 락관으로 충만된 필승의 노래였다.

무산지구 답사시조

한원희

5 호물동 진달래

곱게도 피었구나
정겹게도 웃는구나
진달래 진달래
압록강가 5호물동 진달래

사령관동지 진두에 모시고
조국땅에 발자욱 옮겨짚은
투사들을 남먼저 반겨맞은 진달래
세월이 가도 변함없는 한모습

두팔 벌려 한가슴에 너를 안고
녀대원들 웃고울었지
두고온 고향땅 그리운 부모처자
그 마음 피고피여 기다린듯싶어
너를 붙들고 눈물 흘렸지

진달래 진달래
김정숙어머님 품에 안겨
너도 웃고울었지
빼앗긴 땅에 피고지는 서러움
눈물로 뜨거이 하소하였었지

그날의 피타는 너의 소원
이 땅에 아름답게 꽃피주신 수령님
먼 후날 감회깊이 추억하셨네
너를 두고 시라도 읊고싶다고

백두의 진달래
조국의 진달래
연분홍진달래
봄을 알리는 진달래
참으로 뜻깊은 꽃이라고

아, 세월이 가고 또 가도
압록강가 5호물동가를 못 떠나
그날처럼 연분홍 고운 한모습
여기 피고피여 반기네

수령님 조국진군 알린 진달래
영원한 승리의 봄을 알린 진달래
너야말로 시의 꽃!
노래 노래의 꽃이구나!

청봉의 푸른 밀림에

청봉의 푸른 밀림에
청봉의 푸른 구호나무들
나무도 살아있고
글도 살아있네

오랜 세월 눈비에 씻기지 않고
오늘도 생생히 빛나네
《조선민족의 자유와 독립, 해방을 위하여 끝
까지 싸우자!》
항일전에 부르는 그 글발들

숲속엔 숨엄한 정적이 깃들고
맑고도 청신한 숲향기는
투사들이 두고간 숨결인듯
한없는 고요를 안고 흐르건만

이 가슴에 세차게 울려오네
봄 봄의 봄우뢰처럼
항일대전승리 만세를 웨치는
아름드리구호나무들

예서 단 하루밤 묵고 갔어도
투사들은 천년만년 길이 빛날
영원한 맹세를 남겼구나
그 맹세 조국해방을 안아왔구나

아, 청봉의 푸른 밀림에
청봉의 푸른 구호나무들
나무도 청청 살아있고
글도 청청 살아있네!

삼지연

못가의 진달래도 물속에 웃네
이깔숲도 그림처럼 비껴있네
거울같이 맑고맑은 물

풍치수려한 삼지연

두손 모아 소중히 물을 떠올리며

내 못가를 떠나지 못하는네
꿈처럼 물속에 어려오네
빨찌산녀대원의 고운 얼굴

녀대원은 나를 불러 속삭이네
-삼지연이 참으로 절경이지요?
사령관동지를 모시고
우린 여기서 잠시 휴식했다오

나는 들었네 못 잇을 그 이야기
삼지연의 풍치가 너무나 수려하여
여기에서 살고싶다 하신
사령관동지의 그 말씀

일제를 치고 조국을 해방하면
여기에 인민의 휴양소를 짓자고
앞날의 삼지연을 안겨주시며
대원들과 약속하시던 그 음성

나는 눈시울 뜨거이 보았네
자꾸만 물위에 어려오는 빨찌산들
맑은 물 마음껏 떠마시고
군용물통에 가득가득 채워넣고
원췌 찾아 떠나는 이 나라 아들딸들

아, 그날 투사들의 가슴에 안겨
삼지연이 싸움터로 함께 갔네
빼앗겨서는 아니될 아니될
아름다운 조국강산이 함께 갔네

삼지연 삼지연
전설속의 선경과도 같이
혁명의 성지로 인민의 휴양지로
천하절승경개를 펼친 삼지연
거울같이 맑고맑은 물위에
오늘도 투사들의 모습이 어리어오네!

갑무경비도로를 행군하며

발걸음높이 더 높이
답사대원들이 행군해간다
그날의 항일빨찌산대오처럼
배낭지고 대렬짓고
갑무경비도로를 활개쳐간다

나도 답사대원의 한사람
투사들이 들었던 붉은기 높이 들고
투사들이 부르던 혁명가요를 부르며
투사들처럼 보무당당히 행군한다
투사들처럼 내 심장 높이 뻗다

옛날 악착한 왜놈들이
김일성장군 혁명군을 막아낸다고
밀림속 수백리 닦아놓은 경비도로다
아직은 개통하기 전이라고
살벌한 감시망을 퍼놓았던 대통로다

얼마나 대담무쌍했던가
얼마나 령활무쌍했던가
그 누구도 들어서지 못한다던 그 길로

대낮에 일행천리 굽이쳐간 항일대오

왜놈들은 알수 없었더라
김일성장군님의 신출귀몰지략을
제놈들이 망하는 길을
제손으로 닦아놓게 될줄을

아, 투사들이 들었던 붉은기 높이 들고
답사대원들은 보무당당히 굽이쳐간다
저 멀리 이갈숲을 가르며 뻗은 그 길
하늘과 잇닿은 그 길우에
백두령장이 이끄시는 대오가 보일듯
우리 심장 투사들의 심장처럼 뿔뿔다

우리 마음속으로 빨찌산에 입대한것이다!
우리모두 갑무경비도로에 들어서서
천출명장을 따라가는것이다!
일제침략자들의 망령이
오늘도 바다 건너 옛꿈을 꾸다
붉은기 더 높이 더 높이 들자!
발걸음 더 높이 더 높이 들자!

무산지구전투승리기념탑

백두의 푸른 하늘을 떠받들고
거연히도 높이높이 솟아있다
강도 일제를 섬멸하던 총
총대의 크나큰 기념비

낮이면 해빛이 내려와

너의 모습을 찬란히 빛내주고
밤이면 별빛이 내려와
너의 영원한 승리를 속삭인다
멸적의 기상을 떨치는 총대탑이여
무산지구전투승리기념탑이여

금시라도 터뜨릴것만 같구나
대홍단벌에 기여든 왜놈들을
무리로 쓸어놓히던 총성
금시라도 들려오는것만 같구나
놈들의 아우성소리 비명소리

아, 조국진군에 오르신
빨찌산 김대장의 분노를 터뜨린 총
하늘땅을 가르는 번개처럼 폭풍처럼
극악한 일제를 전몰케 한 총
캄캄한 이 나라 삼천리강토에
해방의 봄우뢰를 안아온 총

이 세상 기념탑은 많아도
너처럼 숭엄하고 존엄높고

령도자와 작가

너처럼 조국을 높이 떠받든
위대한 총대탑은 없다

지난날의 승리와 성공을 전하는
기념탑은 이 지구상에 많아도
너처럼 어제와 오늘
먼 앞날의 승리까지 어려있는
총대탑은 오로지 너 하나뿐

백두에서 시작된 총대의 위업
총대의 진리가 빛발치는 탑이어
선군의 내 나라에 네가 솟아
조국의 미래는 승리로 영원하리라
오, 무산지구전투승리기념탑이어!

달리는 표현을 찾을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혁명동지들과 인민들을 무한히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는 한번 믿음을 준 사람은 혁명동지로서 귀
중히 여기고 그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
펴줍니다.》

소설가 천세봉은 생전에 경애하는 장군님을 평
생의 은사라고 칭송하면서 끝없이 우러렸다. 혁
명문학건설의 첫 어귀에서 그는 씻을수 없는 과
오를 범하였다. 그의 장편소설 《안개흐르는 새
언덕》으로 하여 빛어진것이었다.

어느날 이 소설을 각색하여 만든 예술영화를
보아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원작에서의 그 결
합이 영화에도 그대로 체현되었다고 몹시 유감스
러워하시였다.

소설가는 눈앞이 캄캄하였다. 더구나 연출가로
부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천세봉동무가 어떻게
그런 작품을 썼을가고 가슴아파하시며 만수대언
덕을 넘어 시내를 한바퀴 돌아온 자동차를 다시
아무데고 좀더 몰라고 이르시고 줄곧 창밖을 지
켜보시며 말씀이 없으셨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그는 그만 아예 몸져눕고말았다. 이제 무슨 얼굴
로 다시 그이앞에 나서랴. 그는 병원으로 실려갔
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 장군님을 뜻밖에 뵈옵게
될줄이야.

몸이 좀 어떤가고 따듯이 물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왜 그렇게 수척해졌는가고, 몸에
우리가 가도록 고민을 해서는 안된다고 하시며
걱정어린 시선으로 그의 얼굴을 지켜보시였다.

그리고나시여 그이께서는 마음을 크게 가져야
한다고 내가 벌써 좀 만나려고 했는데 그동안 급
한 일때문에 짬을 못내고있다가 오늘 이렇게 만
나게 되었다고, 절대로 의기소침하거나 힘을 잃
어서는 안된다고, 앞으로 좋은 작품을 쓰면 되지
않는가고, 일은 이제부터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고 말씀하시였다.

일은 이제부터! 소설가는 눈물이 가득 고인 눈
을 들어 그이를 우러렸다. 엄벌을 내려도 씨원치
않을 자기를 오히려 고무해주시는 한없는 은정

그런데 얼마후 그는 연출가로부터 또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 매일이다싶
이 예술영화촬영소에 나오시여 예술영화 《안개흐
르는 새 언덕》을 어버이수령님의 교시에 근거하
여 개작하도록 지도하시였으며 제목을 《내가 찾
은 길》로 고쳐주시여 곧 상영하게 된다는것이였
다.

작품은 작가의 생명이고 자식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치욕의 오명을 들쓸번 한 그 작품을 고쳐
세상에 내세워주신분.

옛글에 목숨을 구해준이는 은인이라고 하였다.
작가의 생명도 살리고 작품도 구원해준 그이를
어떻게 불려야 하는가.

소설가 천세봉은 연출가에게 겨우 《그분은 내
평생의 은사이시오.》하고 말했을뿐이었다.



괴한 추억

김용한

1

하늘은 맑고 대지는 푸르렀다.
검은색 승용차는 포장도로로 나는듯이 질주하였다. 목적지는 력천목장 내인물분장이다.
수도교외에 자리잡은 그 분장에는 무려 만수천 마리의 돼지가 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지피신 사회주의대건설의 불길은 이곳에서도 타오르고있었다.
분장과 둔덕진 마을사이에 아름답리 버드나무들이 무성한 숲을 이루고 펼쳐졌는데 이처럼 풍치수려한 곳에 돼지분장이 있으리라고 누구도 상상 못할것이다.
태고의 정적이 깃든듯 한 숲속에 수정처럼 맑은 물이 해빛에 반짝이는 내인못이 있다. 그곳에 대대로 전해지는 전설이 있었다.
고속으로 회전하는 차바퀴는 마치 포장도로를 주름잡아나가는듯 하고 차체를 스치는 대기는 새된 소리를 내며 회오리쳐 사라진다.
채양넙은 초물모자를 쓴 수수한 차림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차창밖을 내다보고 계시었다.
승용차는 고속도로에서 빠져 좌측길로 들어섰다.
여러번 다니신 낯익은 길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수양버들숲속에 고요히 잠들어있는 내인못을 눈앞에 그려보시는듯 하였다.
그이께서는 전후부터 이곳 분장이 걸어온 수십년의 력사뿐만아니라 내인못의 전설도 상세히 알고계시었다.
먼 옛날에는 지금과 달리 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 맑은 개울을 사이에 두고 두 마을이 있었다한다.
이쪽 마을에는 힘이 장사인 석암이란 총각이 살고 저쪽 마을에는 용모가 천하절색인데다가 마음씨 또한 비단결같은 달미라는 처녀가 살고있어서 두 동네의 자랑이었다.
마을사람들은 그들의 사랑을 알게 되자 잔치를 크게 차려 짝을 무어주고 두 동네가 사돈간으로 더 화목하게 지냈다.

그런데 어느해부터 왕가물이 해마다 들어 개울바닥에 금이 가고 먹을 물조차 말라버리자 동네를 떠나는 집들이 하나둘 늘어났다.
갈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정상을 보다못해 석암과 달미는 의논끝에 아흔아홉자 우물을 파기로 결심하였다.
매일 석암이 우물속에 들어가 흙을 파 드레박에 담으면 그것을 달미는 밖에서 바줄로 끌어올리곤하였다.
흙더미는 날을 따라 점점 높아졌으나 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들부부는 불별에 입술이 타고 굶주림으로 맥은 진해만 갔다.
그러던 어느날 석암이 밖에 나와 털썩 주저앉으며 절망에 빠져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무리 파도 물이 있을것 같지 않구려-》
《마을사람들이 우리만 지켜보는데 중도에서 그만두다니요.》
안타까움에 젖은 달미의 모습을 보고 석암은 다시 우물속으로 들어갔다.
한자두자 우물바닥은 깊어졌으나 물이 나올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석암은 간신히 우로 다시 올라와 갈증에 말도 못하고 머리만 저었다.
눈물을 담고 서있던 달미가 치마허리를 동여맸다.
《좀 쉬세요-》
우물안으로 들어서는 달미의 치마자락을 석암이 잡았다.
《아니- 아니- 내가-》
며칠후 우물밖으로 겨우 나온 석암은 《물...》하고 외마디소리와 함께 쓰러지고말았다.
《제가 올 때까지 꼭 기다리세요!》
달미는 허둥지둥 집으로 달려가 쪽박을 들고 대문밖을 나섰다.
허나 돌조차 타는 이 왕가물에 물이 과연 어디있으랴!...
갑자기 승용차는 속도를 죽이며 경적을 몇번 울렸다.
력천목장으로 가는 갈림길복판에서 성이 난 황소 한마리가 들판이 떠나가게 영각을 터치며 길

바닥을 앞발로 파헤쳤다.

맞은편 들메나무아래에서 다른 놈이 마주 향해 뿔을 사납게 뿔치고 소리를 내질렀다.

무슨 사고가 날지 몰랐다.

승용차는 속도를 천천히 죽이었다. 운전사가 차를 멈추려고 하는 순간에 어디서 번개처럼 달려온 한 처녀가 황소앞을 막아섰다.

작업복에 반장화를 받쳐신은 날씬한 처녀는 당장 받아넘길듯 한 황소의 랑볼편을 다급히 쓰다듬으며 뭐라고 달래는듯 하였다. 뜻밖에 황소는 온순해졌다.

처녀는 길가의 황철나무에 황소의 고삐를 바투 매고나서야 승용차쪽에 죄스러운 시선을 보내는 것이었다.

승용차는 다시 달렸다. 네모진 돌들을 촘촘히 박아간 포석도로가 차밀으로 빠져달아났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갈림길에서 지나친 처녀의 모색이 어쩐지 낮아어보이었다.

성이 오른 황소앞으로 뛰어든 처녀의 행동은 필요한 순간엔 생명도 서슴없이 내릴수 있는 결단의 발현이었다. 처녀의 그 결단과 용모도 어딘가 내인물분장장 김영덕과 비슷해보였다.

그 처녀가 분장장의 딸처럼 여겨졌다. 내인 못가에서 김영덕이 못에 깃든 전설이야기를 할적에 나무밑에서 제비꽃을 꺾으며 놀던 그의 딸 정심이 나이가 여덟살이었으니 이젠 아까 본 처녀만큼 자랐을것이다.

그이께서는 우람진 체격에 침착하면서도 가끔 성급한 성미가 나타나는 김영덕의 모습이 금시 보이는듯 하면서 가슴에 찌릿한 아픔을 느끼시었다.

시창밖을 내다보시는 그의 시선은 마치 천년을 더듬는듯 하셨다.

일제의 학정밑에서 지지리 가난하게 살아온 우리 인민들에게 흰쌀밥에 고기국을 먹게 하는것이 그의 더없는 소원이시었다.

하기에 그이께서는 전세계가 조선의 운명을 두고 우려한 미제와의 전쟁, 그 포화속에서도 우량 종돼지들을 다른 나라들에서 들여오게 하였고 한편 전국에 국영목장들을 건설할데 대한 내각결정을 발표하도록 하시었다. 전후에 축산을 발전시키기 위한 내각결정을 또다시 채택하게 하시었다.

전쟁의 포성이 멎은 다음해 4월 15일에도 바로 이 길을 지나 신설된 력천목장으로 나가시었다.

목장건물의 터전을 잡아주시고 규모도 정해주시신 그이께서는 축산에서 선차적으로 해결할 과업을 가르쳐주시었다.

《재래종돼지는 우리 조상들이 메돼지를 길들여 키운것입니다. 장구한 기간에 재래종돼지가 아무런 개량도 없이 그대로 내려온것은 집단사육을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집에서 가축으로만 키운데 적지 않은 원인이 있습니다.

해방전에는 왜놈들이 양축장 같은것을 고작 몇 곳에 만들어놓고 오히려 농촌소들을 대량적으로 략탈해갔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고기를 한번 먹어보자면 하늘의 별따기만큼이나 힘이 들었습니다.

지배인동무, 여기 모인 사람들속에 돼지분장이냐 작업반에서 온 동무가 없습니까?》

불편에 파편자리가 움푹 패인 지배인이 모인 군중들을 둘러보다가 손짓으로 한 청년을 나오라고 하였다.

그 청년은 기골이 장대한데다가 거뭇한 얼굴에 두툼한 입술이 윤향했다. 바로 그가 내인물분장장 김영덕이었다.

《분장장이라?... 나이는?... 어느 학교를 나왔소?》

분장실태까지 일일이 료해하신 그이께서는 허리에 한손을 올리시고 그를 대견스레 보시었다.

《종구만! 무엇보다 분장장이 젊어서 좋아! 그 래 분장장동무- 지금 있는 재래종돼지를 가지고 인민들이 고기를 먹게 할 자신이 있소?》

그이께서 사랑을 담으신 눈길로 대답을 기다리시면서 자애에 넘치는 미소를 지으었다.

사람들을 대하시거나 담화를 하실적마다 늘 자애에 넘치는 그 미소는 오직 우리 수령님께서만 지으시는 태양의 미소였다.

그이의 인자하고 소탈하신 인정에 끌려 김영덕은 어려움도 잊고 제 심정을 솔직히 말씀올렸다.

《자신이 없습니다. 지금 있는 돼지를 수만마리 키운다 해도 고기는 얼마 안되니 수입 대 지출에서 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이께서 탓하시는 기색은 전혀 없이 고무하듯 미소를 보내시며 뒤말을 재촉하시었다.

온 나라의 정사를 보시느라 그처럼 다망하신 그이앞에서 너무 외람된것 같아 주저하던 영덕은 다시 입을 열었다.

《제 능력에 부친 직무에 배치된것 같고... 또 분장을 추켜세울 방도도 없고 해서 분장을 인계하고 전 다른데 아니면 대학에 갈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당위원장님을 만나려 구 내려왔습니다.》

《도망치려 했다가?...》

수령님께서서는 호탕하게 웃으시다가 그한테 나직이 물으셨다.

《잘 믿어지지 않는데?》

《정말입니다. 그렇지만 수령님!

지금이라도 분장을 추켜세울 방도만 있다면 전 있는 힘껏 하겠습니다.》

그이께서는 영덕의 잔등을 다정하게 두드리주

시였다.

《농업간부학교출신이 그래야지! 동무가 솔직한 것이 참 마음이 드오.》

정을 담아 말씀하신 그이께서 시선을 일군들에게 보내시였다.

《이 분장장동무의 심정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오? 그것은 우리가 축산기지를 확장 또는 신설하고있으나 고기를 직접 생산하게 될 사람들은 아직 신심을 가지고있지 못한것입니다.》

언제나 하나에서 전반을 헤아려보시고 앞길을 제시하시는 수령님이시였다.

《여기처럼 축산기지를 꾸리는것은 고기생산에서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럼 무엇이 중요하냐?

이 분장장동무가 한 말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래종돼지를 가지고서는 우리 인민들에게 고기를 넉넉하게 먹 일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나라의 우량종을 가져다 키워도 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먹이요구가 높은데다가 우리 나라 풍토에 적응되지 않아 쉽게 병에 걸립니다. 우리는 재래종처럼 먹이요구가 낮고 병에 견딜성이 강하면서 외국의 우량종처럼 빨리 자라는 조선식 새종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김영덕은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들으며 속으로 탄성을 올렸다.

그렇다! 내인물분장에서든 우량종돼지만 생기면 분장원들의 기세가 달라질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 모든것을 예견하시고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의 불길속에서도 다른 곳에서 들어온 우량종들을 국영5호농장에서 키워보도록 하였다고 말씀하셨다.

김영덕은 신심이 생기고 온몸에 힘이 뻗었다.

《수령님! 우리가 5호농장에 가서 우량종을 달라고 하면 그 동무들이 주겠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야 동무들의 수완에 달린거지-》

《전 어떻게 해서든지 가져오겠습니다.》

영덕의 두툼한 입술은 결심으로 굳게 다물렸고 부리부리한 두눈은 의지로 빛났다.

그를 보시는 수령님께서 미소를 지으시였다.

《분장장동무 결심대로 하오. 동무네가 제일 좋은 우량종을 만들어내면 그 종의 이름을 내가 지어주겠소.》

믿음과 기대가 담긴 그 말씀에 기쁨과 결심이 함께 어울리던 김영덕의 얼굴에서 갑자기 조금해지는 기색이 나타났다.

그이께서 부드럽게 물으셨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있소?》

《당장... 이제-》 그는 흥분이 앞서 제대로 대답도 드리지 못하였다.

《당장 분장에 가서 저- 5호농장으로 떠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두손을 마주잡고 주무르며 뒤말을 이었다.

《수령님의 가르치심이 이제 곧 온 나라에 퍼지면 각지 목장들에서 제마곰 5호농장으로 갈텐데 우리 목장에는 <털터리>목란차 한대밖에 없습시다.

그래 남들보다 빨리 떠나야겠기에 그렇니다.》

그의 대답에 수령님께서 다시 입가에 가벼운 미소를 지으시였다.

《분장장, 먼길을 가려면 신들메부터 단단히 조이라는 말을 알고있겠지-》

내 그곳에 전화를 해주겠소. 동무네 뭇을 남겨두라고 말이요. 이젠 마음이 놓이오?》

《고맙습니다, 수령님!-》

김영덕은 인사말보다 먼저 굵적 허리부터 굽혔다.

2

추억은 어느덧 가슴아픈 소식을 받으시던 그때로 이어졌다.

...점심식사를 하신 후 정원의 시험포전으로 나오신 수령님께서서는 밭머리에서 길다란 호미자루를 잡으신채 새로운 먹이작물들을 바라보며 서계시였다.

금시 김을 맨 검붉은 이랑들우에서 푸르싱싱한 잎사귀들이 기분 좋게 흐느적거렸다.

먹이작물은 새로 시험하고있는것이였다.

축산은 종축과 먹이, 사양관리체계여하에 따라 그 성과가 좌우된다고 할수 있다. 우량종이 확보된다 하여도 먹이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불임땅면적이 제한된 우리 나라 조건에서는 낱알이 아니라 풀과 고기를 바꿔야 한다.

그이께서는 새 먹이작물을 먼저 한 단위를 선정하여 재배하게 하고 그 경험을 여러 목장들에 도입한 결과까지 보고나서 실리에 맞으면 전국적으로 심게 할 구상이시였다.

이 사업에서 새 먹이작물을 먼저 심을 목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였다. 첫 현지시험에서 얼마나 책임성있게 재배하는가에 따라 수확고가 확정되고 다른데서도 그것을 따라배워 작물을 재배할 수 있었다.

바람이 불어왔다.

크지 않은 먹이작물포전과 잇닿아있는 각종 포전들에서 작물들이 각이한 잎사귀들을 흔들거렸다.

포전가를 따라 김일 제1부수상이 다가왔으나 그이께서는 여전히 먹이작물을 보고계시였다.

김일은 수령님의 사색을 깨뜨릴가봐 저어하며 새로운 남새포전곁에 조용히 서있었다.

《김일동무요? 왜 서만 있소?》

수령님께서서는 먹이작물에서 시선을 떼지 않으신채 물으셨다. 그제서야 김일은 그이의 곁으로 다가왔다.

평시에도 과묵한 김일의 기색이 어딘가 더 무거워보였다.

《수령님께서 사색하고계시는데 지장이 될것 같아서 ...》

수령님께서 김일쪽으로 돌아서시였다.

《고기생산의 전방문제를 놓고 좀 생각하고있소.》

잠시후 그이께서는 수삼나무밑에 놓인 야외락의 의자에 김일과 마주앉으시였다.

수삼나무잎들이 야외락에 엇비듬히 그늘을 던지였다.

《어제 도착한 미국 상원의원이 잠간만이라도 수령님께서 접견해주실것을 재삼 청원해왔습시다.》

수령님께서 의자등받이에 기대시였다.

《정 소원이라면 만나줍시다.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소?》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삼나무가지들이 가볍게 흔들리였다.

수령님께서 발음이 좀 굳은 김일의 말을 심중히 듣고계시였다.

보고의 기본내용은 각곳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새 우량종돼지의 연구정형이였다.

목장들마다 제나름 제 식대로 연구하며 실패도 적지 않았지만 총적으로 보면 전망이 내다보인다고 할수 있었다.

인민을 위한 새 종축력사의 시작이 결코 순탄할수 없었다.

생물학분야에서 새종을 얻는것이 어린 사업인데다가 우리 인민들의 생활향상을 눈에 든 가치처럼 여기는 원수놈들의 암해책동도 나타났다.

그이께서는 참기 어려운 아픔이 어리신 시선을 멀리로 보내셨다.

이른새벽 길바닥에서 깨여진 단지조각을 주어진채 속상해서 울고있던 젊은 녀인의 모습이 떠오르셨다.

승용차를 세우고 사연을 물으니 그 녀인은 시험용업지돼지가 새끼를 스물네마리나 낳아 집집마다 다니며 얻은 염소젖으로 키우는데 이날은 그만 단지를 땔구어 췌다는것이다.

이른새벽 현지지도의 길을 가시던 그이께서는 승용차를 돌려 젖소분장에 보내시고 녀인과 함께 길가에 남으시였다.

녀인은 내인물분장장의 안해이며 기술부원인 지순이였다.

자연히 화제는 종축문제로 넘어갔다.

《영덕분장장의 연구사업은 잘되어가고있소?》

《뜻대로 되지 않아 집에도 들어오지 않으니 이젠 철없는 오누이가 <올아버진 돼지박에 몰라>하고 말한답니다. 잘 도와야 할 저마저 오늘은 이런 일까지 저질렀으니... 정말 참!》

녀인은 안타까운듯 뒤말을 잇지 못했다.

《공든 탑이 무너지겠나. 이제 성공의 날이 꼭 올거요!》

《고맙습니다.》

녀인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다.

얼마후 도착한 승용차에서 우유통이 나타나자 그것을 안고 기쁨의 눈물에 젖어있던 지순의 얼굴이 금시 다시 나타나는듯 하시였다.

그런 지순이가 반동놈의 손에 증상을 입다니? ...

《그래도 분장장은 피로움을 누르고 오직 연구사업에 일심정력을 다한다고 합니다.》

김일은 그이를 위안하려는 심정에서 이렇게 덧붙여 말씀드렸다.

《알겠소! 그 사람의 심장속에서 무엇이 끓고있는지-》중도에서 말씀을 끊으신 그이께서 잠시후 조용히 한마디 하셨다.

《태일 오후에 내인물분장으로 갑시다.》

다음날 수령님께서 내인물분장에서 김영덕을 만나시였다.

정원에서 친히 가꾸시던 먹이작물들은 이미 분장에 와있었다.

그동안 김영덕은 30대후반의 릉름한 축산일군으로 성장하였다.

돼지우리들을 바라보시며 그이께서는 영덕에게 분장의 사업방향을 친절히 가르쳐주셨다.

새 먹이작물을 시험할 포전까지 정해주신 후 내인못가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맑은 물이 가득찬 못의 주변에 수양버들아지들이 실실이 늘어졌고 그 사이로 멀리에 하얀 내인고고개가 바라보였다.

그이께서 못가의 긴의자에 앉으셨다.

영덕의 딸 정심은 저런 오동나무밑에서 쪼그리고 앉아 제비꽃을 꺾으며 놀고있었다.

바로 이날 어버이수령님께서 영덕을 위안하시느라고 내인못의 전설까지 들어주시였다.

김영덕은 한갓 분장장이 지나지 않는 자기를 생각하여 그처럼 귀중한 시간을 바치시는 그 뜨거운 인정에 속으로 눈물을 삼켜가며 전설이야기를 계속하였다.

《몇년째 련이어 드는 왕가물에 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석암을 위해 날이 바뀌는줄 모르며 헤매던 달미는 기진맥진하여 잠간 쉬다가 그만 깜박 잠들었는데 난데없이 달려오는 말발굽소리에 소스라쳐 깨여났답니다. ...》

둘러보니 맑은 보이지 않고 발치에 말발굽자리가 움푹 패워있는데 그안에 맑은 물이 찰랑찰랑고여있었다.

달미는 너무 기뻐 쪽박에 그 물을 퍼가지고 달렸다. 목이 타는것도 참으며 일판에 당도한 그는

남편이 보이지 않자 우물속까지 들여다보았다. 우물귀틀에 아흔여덟번째의 바줄매듭만이 걸쳐 있을뿐이었다.

석암은 갈증을 이기지 못해 우물을 한자 마저 못 파고 떠나간 것이었다.

눈물을 머금고 사방을 살피던 달미는 길이 우물구불 뻗어올라간 산을 향해 치달아오르기 시작했다.

멀리에 석암의 모습이 보였다.

《여보- 어디 가요?》

달미의 목소리가 산울림이 되어 애처롭게 울렸으나 오직 물생각뿐인 석암은 계속 오르기만 하였다.

남편을 따르려고 달미가 고개중턱에 다달으면 석암은 마루에 올라서고 안해가 마루에 가까스로 오르면 남편은 산아래굽이를 돌아가고있었다.

《여보- 가지 마세요!》

더 따를 맥이 진해 쓰러진 달미는 쪽박을 안은 채 기여가다가 석암을 바라보며 마지막기력을 다해 노래를 불렀다.

가지 마소 가지 마소
이웃들과 화목하게
동네방네 꽃이 되게
천년만년 살자 하던
다진 멍세 어이하오
님이 가면 이웃 어이 되고
님이 가면 이 몸 어찌 사오

님을 돌려세우려고 애달게 노래를 불려도 석암의 모습은 끝내 산굽이에서 사라지고말았다.

달미는 쪽박을 안은채 한치두치 기여가며 노래를 불렀다.

남편이 마을사람들과 자기를 버리고 끝내 떠나갔음을 깨닫자 숨이 진 달미의 손에서 쪽박이 떨어지며 물이 쏟아졌다. 그 순간 갑자기 번개가 치고 우뢰가 울었다. 달미가 동네사람들을 위해 그토록 소원한 물이 채 파지 못한 우물에서 터져 올라 호수를 이루었다.

《...그후부터 다시 행복하게 살게 된 마을사람들은 달미를 잊지 못해 그 못을 너인이라는 뜻에서 내인못이라고 불렀고 저 고개도 내인고개라고 하였답니다. 이 고장을 내인마을이라고 한것도 그 전설에서 유래된것이라고 합니다.

수령님! 이 고장 전설은 어찌 보면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김영덕의 말에 수령님께서서는 잔잔한 호수에 시선을 던지신채 혼자말씀처럼 뇌이셨다.

《얼마나 아름다운 달미의 마음이 깃들어있소. 동네사람들을 위해 꽃같은 청춘을 바친 달미의 노래에는 우리 조상들의 순결한 마음이 비껴있

소.》

잠시 동안을 두시던 그이께서 다시 말씀을 이으셨다.

《지금도 사람들을 위해 어려운 일을 하려면 무엇보다 꺾이지 않는 의지와 깨끗한 양심을 지켜야 하오.

내가 새로운 작물을 여기로 보낸것은 영덕동무가 이 분장을 우리 축산업에서 하나의 본보기단위로 만들수 있다고 믿고있기때문이요.》

《수령님!-》

김영덕은 크나큰 믿음에 목이 팍 잡겨 말이 잘되지 않았다.

《전... 머슴군의 자식입니다. ... 우리 인민을 잘살게 하려고 고심하시는...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숨지는 순간까지 ... 모든것을 다하겠습니다.》

전에없이 말을 더듬는 김영덕의 얼굴은 눈물에 젖어있었다.

갑자기 수양버들숲에 휘늘어졌던 아지들이 마치 푸른 비단폭처럼 날리고 내인못기슭에서 부딪친 물결이 수천의 비말이 되어 걱정을 터치는것 같았다.

그의 투박한 두손을 팍 잡으시는 수령님의 옷자락도 세차게 날렸다.

《진정하오, 영덕동무-》

수령님의 음성은 갈리시였다.

《팔애를 데려오우.》

그이께서는 어린것을 안으시고 사랑스레 머리를 쓰다듬어주시다가 말씀을 하시였다.

《영덕동무가 지금 마음이 아플테지. 우리 손잡고 오늘의 시련과 난관을 뚫고나가 이 어린것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안겨줍시다.》

3

그날부터 내인물분장은 날마다 몰라보게 변모되어갔다.

통나무나 판자로 되었던 채래식우리대신 계열식야외사들이 기와지붕을 건듯 쳐들고 층층이 늘어섰고 그 량편으로 새끼낳이사가 가로 자리잡았다. 그곳에서 동일한 사양조건에서도 증체률이 15프로 더 높은 일대잡종과 원종의 새끼들을 받아내었다. 종전에 퇴비로만 쓰던 배설물이 메탄가스생산탱크를 거쳐 관수로로 따라 전야의 필지들로 흘러갔다

저장탱크에서 나온 메탄가스는 화물자동차와 트랙터의 연료대용으로 쓰고 축사우리의 화염소독을 하였으며 식당의 부엌에서도 사용하였다.

그런데 김영덕은 종고착에서 거둬 해를 넘기게 되었다. 그는 수의축산대학에서 초청 해온 교수일행과 함께 연구사업에 심혈을 다 바쳤다. 한편 새 먹이작물을 정성껏 가꾸며 재배경험도 쌓고

맛을 알려고 찬을 만들어 먹어보기까지 하였다.

새 먹이작물을 축산중국산하 여러 목장들에서도 재배하였다.

수령님께서는 그 기간 나라의 전반사업을 보시면서도 여러차례 나오시여 분장사업을 지도해주시었다.

몹시 추운 어느날 새벽에 전화로 분장장을 찾으시여 먹이작물이 지난밤에 얼어죽지 않았는가 알아보기까지 하였다.

하루는 수령님께서 갑자기 시험포전으로 나오시었다. 수행일꾼들도 매년부터 전국에서 재배할 새 먹이작물의 포전면적을 논의하다가 갑자기 휴회하고 내인물분장에 나가보자고 하신 내막을 알지 못했다.

길길이 자란 먹이작물이 눈뿌리 아득히 검푸르게 펼쳐져있었다. 두손을 허리에 올리신 그이께서 발가녁에 서계시었다.

채양이 넓은 모자는 그이의 얼굴에 그늘을 지우고 옅은 옷자락은 바람결에 가볍게 날리었다.

주위에 작업복차림새인 김영덕과 농업상을 비롯한 해당 부문의 일꾼들이 있었다.

《그동안 우리 영덕동무가 수고했구만.》

호방하게 하시는 그이의 말씀을 농업상이 받았다.

《이 동무는 그저 분장일밖에 모릅니다. 영덕동무는 군대에 입대하는 아들도 분장마당에서 떠나보냈다고 합니다.》

《지금 전원에서 근무하는 정만이가 입대하던날 말이지-》 그이께서 생각에 잠기신 표정으로 말씀을 이으셨다.

《나도 그날에 있던 일을 좀 들은 소리가 있소. 사람도 참...》

수령님께서 다시 포전으로 시선을 보내시었다.

따뜻한 햇빛아래서 자양분을 한껏 빨아들인 먹이작물들이 끝간데없이 펼쳐졌는데 바람결을 따라 굽니는 물결처럼 이랑을 지으며 멀어져갔다.

들크무레한 향기가 풍기는 포전에서 종다리들이 날아오르며 아름다운 목소리로 지중거렸다.

《올해에 30정보나 심었다지?》

《예-》

《포전마다 다 이렇게 잘되었소?》

《예 모두 이 정도는 되었습니다.》

《정보당 몇톤이나 낱것 같소?》

《작년보다 잘되었는데 두번째그루부터는 수확량이 감소되기때문에 100톤가량 예견합니다.》

《왜 두번째그루부터 작물작황이 떨어지오?》

수령님의 물음속에 잠시 침묵을 지키던 영덕은 낮은 음성으로 설명을 드리었다.

먹이작물은 농작물과 달리 청초로 수확하기때문에 첫그루처럼 잘 자라면 현재의 3~4배 정도는 벨수 있었다. 그러나 첫 수확후부터 뿌리가

썩는 현상이 점점 심해져서 목적인 수확량을 얻을수 없었다. 후에 알게 되었지만 성충피해에 그 원인이 있었다.

《그렇단 말이지-》그이께서 잠시 생각에 잠기시자 곁에서 손에 수첩을 들고있던 농업상이 말씀올렸다.

《제가 중국에서 다른 목장 시험자료를 보았는데 수확고가 여기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뿌리썩는 현상은 이 분장의 지대적특성에 기인되지 않는가하는 생각입니다.》

《수확고는 그렇다치고 먹이작물을 돼지들이 잘 먹소?》

영덕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을 인차 올리지 못하였다.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니 또 마음을 쓰실것 같고 그렇다고 수령님앞에서 사실아닌 대답을 올릴수도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고기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바치신 로고를 생각하면 얼굴을 들수 없었다.

그이께서 영덕의 모습을 지켜보시다가 다정히 타이르셨다.

《영덕동무- 나는 무엇보다 진실을 알고싶소. 어서 사실대로 말하오.》

김영덕은 머리를 쳐들었다. 동그스름한 얼굴에서 검은 눈동자가 피로움에 젖어 있었다.

《저... 가공에서 부족점이 있는지 잘 먹지 않습니다.》

《잘 안 먹는다?》수령님께서 그의 대답을 반문하시며 몇걸음 옮기시다가 먹이작물의 잎사귀를 하나 뜯어드시었다.

《한가지 남새를 가지고도 어떻게 가공하는가에 따라 그 맛이 달라지는것처럼 먹이작물의 가공에 따라 가축의 입맛도 달라지는 법이요.》

그이의 손에서 둥글넓적한 푸른 잎사귀가 흔들릴 때마다 숨털이 덮인 희숙한 뒤면이 나타나곤 했다.

《수령님!》김영덕은 두손을 모아쥐고 조용히 말씀드렸다. 《강냉이단백질포자를 깨뜨린 가루를 주원료로 하는 음식이 즉석국수입니다. 그 즉석국수는 맛도 좋고 질깁니다. 그래 저희들은 지금처럼 청초로 먹이지 않고 포자를 썬 가루를 먹일 방법을 연구하는중입니다.》

천천히 거니시며 그의 말을 주의깊게 들으시던 수령님께서 고개를 가볍게 끄덕이시었다.

《나도 고대아메리카 인디안들이 석회석가마에 강냉이를 삶아먹었다는 소리를 들었소. 그러면 단백질포자가 깨여지는데 음식이 부근부근하고 인차 굳어지지 않는다고 하오.》

뜻밖에 포전에서 하시는 인디안들의 이야기를 일꾼들은 심중하게 들었다.

그들앞에 멈춰서신 수령님께서는 그냥 먹이작물 잎사귀를 들고계셨다.

《여하튼 이 먹이작물이 다른것들보다 단백함량이 높은것만큼 여러 목장시험포전들도 다시 료해해보고 여기처럼 뿌리썩는 현상이 있다면 시급히 대책을 취해야 하겠습니까.》

수첨에다 급히 적던 농업상이 머리를 들었다.

《수령님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이께서는 일군들을 향해 좀 석신했던 음성으로 명백히 말씀하시였다.

《내 생각엔 농업성에서 제기한대로 이 작물을 전국에 심기는 아직 이른것 같습니다.》

내인물분장을 거점으로 각지에서 더 시험하되 두가지 문제 즉 먹이작물의 뿌리썩음현상과 먹이작물을 가장 효과적으로 먹일수 있는 방법까지 해결한 다음에 이 작물의 전국적인 경지면적을 확정합시다.》

얼마 지나서 일군들은 모두 행길로 나가고 김영덕만 수령님곁에 남았다.

수령님께서 영덕이와 함께 포전길을 따라 천천히 걸으시였다.

랑쪽 먹이작물포전에서 풀메뚜기들이 튕겨올랐다.

싱그럽고 들큰한 먹이작물냄새가 대기에 가득 차있는듯 하였다.

김영덕은 지금 자기가 수령님의 믿으심에 보답 못한 자책에서 벗어날수 없었다.

《수령님! 제가 배은망덕한 놈입니다.》

영덕의 격한 목소리에 그이께서 오른손을 가로저으셨다.

《나를 기쁘게 하겠다고 성과를 과장하는 일군을 난 제일 경계하오! 일군은 어떤 경우나 솔직해야하오. 그래야 믿음이 커지는 법이요.》

그런데 하나 물을게 있소.》하고 영덕에게 시선을 보내시였다.

《아들이 군대나가면서 어머니를 잘 보살펴주지 않으면 제대되어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했다는게 사실이요?》

《예... 정만이 그녀석이 그렇게...》

김영덕은 어색해하며 뒤말을 끝였다.

《그뎐 안사람이 사실 동자질하기도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나 큰 병원에서 다시 수술을 받은 후부터 완전히 나았습니다.》

《이젠 지순동무가 완쾌되었단 말이지.-》

그이께서는 즐거운 기분으로 혼자말씀처럼 하시였다.

《지순이가 그렇게 돼야지! - 아들한테 그 소식을 알려주었소?》

김영덕은 인차 대답을 드리지 못하였다.

《저는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정심이가 제 오빠한테 편지를 하였을겁니다.》

수령님께서 그의 대답에서 영덕의 심중을 느끼시였다. 몇걸음 거니시다가 한마디 하셨다.

《영덕동문 오직 분장생각밖에 없는 사람이구만.》

수령님의 말씀에 김영덕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제 심정을 솔직히 터놓았다.

《우리 분장은 다른 일터와 달리 생명체를 다룹니다. 사양공처녀의 마음이 판곳에 팔려있으면 틀림없이 새끼돼지가 죽습니다. 저야 분장장이 아닙니까.》

수령님께서서는 묵묵히 걸음만 옮기셨다.

지금껏 지내보면 영덕은 제 가정에 관심을 못 돌려도 로동자들에게는 인정이 많은 사람이었다.

바로 그런 인간이기때문에 인민생활을 높이는 사업에 자신의 육체와 정신을 깡그리 바쳐왔으며 제 살붙이들도 돌보지 못한것이였다.

애국도 애민도 구체적인 감정, 뜨거운 인정이 없는 사람한테 있을수 없는것이다.

《알만 하오.》 그이께서는 이윽해서 화제를 돌리셨다.

《전국에다 먹이작물을 도입할 때가 반드시 올게요. 여기서도 품평회에 우량종돼지들을 출품했겠지?》

《예- 보내긴 했는데 어떻게 평가되겠는지...》

김영덕은 뒤말을 끌며 다시 눈길을 떨구었다.

그이께서 그 모습에 빙그레 웃음을 지으셨다.

걱정스러워하는 영덕의 심정이 리해되셨던것이였다.

지금 평양에서는 새종품평회를 하고있었다. 오늘이 품평회 마지막날이여서 김일 제 1 부수상을 내보냈다.

《품평회에서 결과가 나오면 제일 훌륭한 품종으로 분장을 꼭 채워야겠는데 이 지대 물원천으로 얼마나 자래울수 있을것 같소?》

미리 계산해두고있든듯 김영덕은 인차 대답을 렸다.

《만 8 천마리입니다.》

《만 8 천마리라...》 그이께서 되뇌이시자 김영덕은 분장의 앞날을 두고 생각에 잠겼다.

분장의 사양관리체계가 그전에 비해 훨씬 발전했다. 돼지마리수가 증가하는데 따라 끝없이 늘어날 야외사들과 알곡먹이창고들, 돼지물을 끓여 나르는 로동자들의 모습이 보이는듯 하였다.

《지금 분장인원으로 그 많은 돼지를 관리할수 있겠소?》

김영덕은 고개를 숙인채 침묵을 끝였다.

《저는 그 문제를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윽고 말머리를 뻗 그는 자기의 심정을 솔직하게 터놓았다.

지금보다 돼지마리수가 10 여배로 늘어나면 그에 따라 먹이와 운반물동이 부족 많아질것이였다.

거기에 맞는 사양관리체계가 나와야 했다.

《전 채래식사양관리체계를 채 벗지 못한 지금 방법을 애초에 머리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그러나 묘안이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김영덕이 이마살을 찌프르는데 김일 제 1 부수상의 목소리가 울렸다.

《수령님-》

김일의 얼굴에 전에 없던 희색이 넘쳐있었다.

그는 품평회장에서 곧바로 오는 길이었다.

수령님께서는 웃음으로 그를 맞이하셨다.

《김일동무도 조금해하는 때가 있구만! 우리가 인차 들어가겠는데 예까지 나오다니.-》

김일은 말씀을 올리기 앞서 서류수첩에서 여러장의 사진부터 꺼냈다.

《수령님,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는 두손으로 사진을 받쳐 수령님께 드리고 나서 기다리다가 영덕에게 얼핏 눈길을 돌렸다

《수령님- 무슨 일에서나 두번째 서라면 싫다할 내인물분장장이 오늘은 죽지부러진 독수리상 같습니다.》

김영덕이 고개를 더 숙이자 수령님께서 호탕하게 그의 말을 받으시었다.

《나래가 꺾인 독수리야 그것으로 끝장이지만 영덕분장장은 창공을 보면 다시 솟구칠거요. 그렇지, 분장장?》

수령님께서 하시는 고무의 말씀에 김영덕은 얼굴을 들었다.

《수령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이께서는 믿음에 찬 표정으로 영덕을 정답게 보시다가 화제를 돌리셨다.

《우선 품평회에 출품된 새종들을 찍은 이 사진부터 봅시다.》

그제서야 김영덕은 김일 제 1 부수상이 여기까지 급히 나온 까닭을 알게 되었다.

김영덕은 가슴이 후두두 뛰었다.

포전길에 서신채 사진들을 친히 드시고 한장한장 여겨보시는 그이의 주위에서 무성한 먹이작물들이 설레이고 푸른 하늘에서 흰구름이 격량을 일으키듯 밀려갔다.

그 광경은 마치 인민을 위해 자신의 탄생일도 지어 어떤 날은 점심조차 잊으시고 심혈을 기울이시는가 하면 품평회의 결과를 바람부는 포전길에서 친히 보아주시는 그이의 거룩한 모습에 격동된 감격을 대자연이 터치는듯 하였다.

《이젠 우리에게도 이런 훌륭한 우량종들이 있다 말이지-》

《어떻게 마련된 오늘입니까?》

김일도 감회깊은 추억에 잠기며 말을 이었다.

《세계 <최강> 을 자랑하는 미제와 싸우는 가련한 전쟁속에서도 수령님께서 다른 나라 우량종돼지들을 들여오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참- 그때 전선현원이 얼마나 어려웠던지 지금

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래, 매우 힘겨운 싸움이었소. 결국 오늘은 우리가 이런 기쁨도 맛보는게 아니요!》

그이께서는 사진들을 다시 보시다가 세번째 사진을 맨우에 놓으시었다.

그 사진에 다리통이 굵고 허리가 늘씬해보이는 몸체에다 눈갈이 흰털이 윤기도는 돼지가 찍혀있었다.

《갈비뼈가 한대 더 있다는 <괴현종> 을 비롯해 다 특성이 있지만 이놈이 다리통도 굵고 제일 들직해보이는데 왜 종명이 없소?》

《품평회에서 그 품종에 특등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인물분장장이 종명을 달지 않고 출품한 그 까닭을 알수 없습니다.》

김일의 말에 김영덕은 수령님께서 들고계시는 사진을 슬그머니 건너다보았다.

사진에 있는 돼지는 틀림없이 분장에서 채래종에 대백종을 섞붙임하여 새 품종으로 고착시킨 것이었다. 그러나 수령님께서 그토록 높이 평가하시는 그 품종이 자기네것이라고 선뜻 믿어지지 않았다.

김영덕이 종잡을수 없는 심정에 빠져있는데 김일 제 1 부수상의 웅글진 음성이 다시 들렸다.

《저도 여기까지 오면서 생각해보았는데 그 종에 어울리는 이름이 종시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 종은 우리 나라 우량종들중에서 대표적인 종인것만큼 수령님께서 명명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영덕을 보시는 그이의 만면에 태양같은 미소가 어려있었다.

《그전에 이 분장장과 한 약속이 있었소. 이 종의 이름을 <평양종> 이라고 합시다. 어떻소?》

우선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종을 내놓은 분장장의 마음에 들어야지-》

그이께서는 품종에 평양이란 이름을 달아주시고도 뭔가 더 높은 종명을 붙이고싶은 심정이시였다.

들바람에 그슬려 거뒀한 김영덕의 얼굴에서 최상의 영광과 감격 그리고 더없는 고마움이 뒤엉킨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수령님- 오늘의 뜻깊은 경사는 다 수령님께서 이끌어주셨기때문입니다!》

손등으로 흘러내리는 눈물을 씻으며 영덕은 목메어 부르짖었다.

《이 기쁜 날에 영웅이 우나?-》

수령님께서 사랑스레 그의 어깨를 두드려주셨다.

그러신 후 김일에게 사진들을 돌려주며 물으셨다.

《그래 농업열성자대회 준비는 어떻게 돼가고있소?》

《수령님께서 이미 가르쳐주신대로 하고있습니다

다.》

《이번 대회가 농업발전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계기로 되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그이께서는 사색에 잠기신 눈길을 하늘가 멀리로 보내시었다.

《우리 인민들이 흰쌀밥에 고기국을 먹는 날을 하루라도 앞당기는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수령님-》

김일의 음성은 진중하게 울렸다.

《저희들은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소.

이 사진을 저기 있는 일군들에게 가져다 어서 보이시오.》

수령님께서 영덕의 팔을 끼시고 다시 걸음을 옮기시었다.

《참으로 어려운 시련을 넘으면서 동문 우리 인민을 위해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더 높이 올라야 해-》

김영덕은 눈물범벅이 된 얼굴을 훑치고 정신을 가다듬었다.

수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시 들려왔다.

《일군은 우선 앞날을 멀리 내다보아야 하고 대답해야 하오. 새것을 창조하자면 심장이 커야 해!》

그 말씀에서 힘과 용기를 얻은 김영덕은 지금껏 망설이거만 하던 분장의 대책안을 수령님께 말씀드렸다.

《사양관리에서 일감을 줄이려면 우선 먹이를 필요영양가가 다 포함된 배합먹이로 전환해야 한다 봅니다. 그리고 사료의 운반부터 배설물처리까지 기계화하고 몇개 사동에서 비육돼지들을 다 키우게 해야 현재 분장부지에서 지금 인원으로 만 8천마리를 사양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우리 분장이 그렇게 되자면 다시한번 혁명화각을 해야 합니다.》

흥분한 그는 두손을 주물렀다.

그 모양을 지켜보시던 수령님께서 빙그레 미소를 지으셨다. 력천목장에서 처음 만나시었을적에도 영덕은 바로 지금처럼 행동했던것이다.

《동무의 구상에 찬성하오. 우리가 <평양종>

같은 우량종을 만든 투쟁이 축산에서 첫 혁명이라고 한다면 사양관리에서의 현대화- 이것이 두번째 혁명이라고 할수 있소.》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수령님-》

영덕의 힘찬 대답이 마치 지심을 흔들기나 한 것처럼 전야의 포전들에서 새무리가 일시에 날아올랐다.

《깡-》 하는 소리와 함께 동건 내인고개뒤에서 솟구쳐오르던 신행비행기가 벌써 서쪽으로 사라졌다.

푸른 하늘에 흰구름따 같은것이 길게 걸려있었

다.

4

승용차의 고르로운 동음속에서 추억은 계속 이어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 이후 그를 만난것은 김영덕이 분장 기술자들과 로동자들의 지혜까지 합쳐 작성한 현대화설계도면을 보여주시던 날이었다.

그해부터 영덕은 몸이 나기 시작하였다.

우람한 체격에 두툼한 입술, 검은 눈썹밑의 열정넘치는 눈빛은 그전보다 세련되고 원숙해져 더 믿음직하게 보였다. 그의 언행에서 간혹 나타나던 성급한 성미도 가뭇없이 사라지고 어떤 환경에서도 침착하고 여유작작하였다. 변하지 않았다면 진실하고 직심한 성격이었다. 그것이 김영덕이라는 인간의 면모라고도 할수 있었다.

그이께서는 현대화설계에 도움을 주시려고 축산업이 발전된 유럽의 일부 나라들에 나가는 대표단성원속에 그를 망라시켜주시며 장차 축산업분야의 유능한 일군이 될수 있다고 여기시었다.

유럽에 갔던 대표단이 돌아온 후 설계안이 두차례에 걸쳐 수정보충되고 완성되자 내인물분장의 현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중간사업보고를 받으실적마다 수령님께서는 《평양종》을 만들어낼 때처럼 사양관리에서도 일대 혁명을 일으킨 영덕의 두 어깨를 힘껏 잡아줄수 있으리라고 믿으시었다. 그러나...

지금도 그를 추억하면 너무도 가슴아프시었다.

《평양종》을 내놓은 그는 사양관리체계를 혁신하는 사업에서도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일하였다.

보고에 의하면 그는 여직껏 볼수 없었던 분장현대화를 오직 분장자체의 힘으로 해냈다고 한다.

그 나날 현장에서 일하다가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으나 의식을 회복한 그는 자신이 불치의 병에 걸렸다는것을 알고 그날로 즉시 병원을 뛰쳐나와 현대화가 완성되는 날까지 작업을 지휘했다.

불사신처럼 자신을 깡그리 바친 그에게 로력영웅칭호가 수여되었다.

수령님께서는 영웅칭호를 주시고도 뭔가 더우고싶으셨다.

어느덧 시창밖으로 둔덕우의 빨간 기와집들이 지나가고 앞에서 내인물분장으로 들어가는 갈림길이 각일각 가까와왔다.

갈림길로 들어선 승용차는 활짝 열어제낀 현창철문을 향해 미끄러지듯 나가다가 청신한 자귀나무 밑에서 멎었다. 뒤따르던 수행성원들의 승용차

들도 편이어 들어섰다.

승용차에서 내리시는 위대한 수령님께 목장지 배인이 정중히 인사를 드리였다.

뒤집을 지신 그이께서 아담한 분장 사무실과 사적비쪽의 누운 향나무며 마당가 화단에 무너지도록 우거진 빨간 장미ning굴을 둘러보시였다.

《분장일군들은 어디 갔소?》

《비육사앞에서 대기하고있습니다.》

바람에 그이의 초물모자채양이 가볍게 흔들렸다.

《영덕분장장의 딸 정심이가 지금 어디에 있소?》

아까 갈림길에서 지나친 처녀가 생각나시었던 것이다.

《분장에서 농산기사로 사업하고있습니다. 얼마 전에 포전에다 사람을 띄웠습니다. 그리구...》 하고 이마 벗어진 지배인은 두손을 마주잡으며 동을 달았다.

《정만이는 지금 축산연구소에 있습니다. 올초에 연구사업때문에 분장에 내려왔다가 아버지를 도와 사양관리체계를 현대화하는 사업이 끝나는 날까지 일하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아버지를 도왔단 말이지-》 혼자말 씩처럼 뇌이시는 그이의 시선에 추연한 빛이 비껴있었다.

《정심인 어쩡소?》

《농산기사로 정심이가 사업하기 시작한 후부터 발일이 더잘 되어가고있습니다. 올해 먹이작물은 레년에 없던 풍작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야지-》

여전히 그이께서는 혼자말 씩처럼 하셨다.

멀리 지나간 나날들을 추억할수록 감회가 깊으시였다.

우량종을 얻기 위한 투쟁에서 어머니가 불행을 겪었으며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고 자란 오누이였다.

정만이는 군복을 입고 집을 떠나면서까지 아버지 가슴에 얼마나 모진 말을 남겼는가!

철없던 그들이 오늘은 아버지의 뒤를 당당히 잇고있는것이다.

《그럼 현장을 한번 봅시다.》

수령님께서서는 무려 만 8 천여마리의 돼지들이 자라고있는 현장철문안으로 들어서시였다.

지대인이 이젠 버릇이 되어 가끔 벗어진 머리로 올라가는 손을 멈추며 안내해드리였다.

콩크리트담장을 따라 소소리 높이 자란 백양나무들이 마치 환희에 차 설레이는듯 하였다. 새들이 잎새들속에서 자리를 분주히 옮기며 귀따갑게 우짚었다.

그이께서 가시는 포장길에 무성한 백양나무아지들사이로 해빛이 쏟아지여 아롱다롱 금빛문양

을 새긴 아름다운 주단을 퍼놓은듯 하였다.

일직선으로 층을 이룬 야외사들과 얼마간 떨어져 길게 앉은 세채의 사동이 있었다.

노란색철관문을 열어제낀 사동앞에서 세사람이 대기하고있었다.

그들의 인사를 받으신 수령님께서서는 문가에 서있는 청년앞에서 멈춰서시였다.

후리후리한 키꼴에 두툼한 입술, 술많은 검은 눈섭에 이르기까지 젊은 시절 김영덕의 용모를 빼문것처럼 신통하였다.

《동무가 정만이지?》

《옛, 그렇습니다.》

차렷자세를 취하며 힘차게 대답올리는 정만은 아직 군대의 체취가 그대로 몸에 배여있었다.

《그동안 수고했어!》 그이께서는 사랑스러운 손길로 정만의 어깨를 두드려주었다.

《같이 들어가보자구. 아버지를 도와 이 비육사를 완공했다면서?》

《예- 이것은 아버지가 품에 늘 간수하고있던것입니다.》 정만이가 두손으로 받쳐든 하늘색천우에 백설처럼 하얀 마스크가 놓여있었다. 사동안에 돼지들이 많아 불쾌한 냄새가 났던것이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 여기로 오시면 꼭 드리라고 저에게 간곡히 당부하셨습니다.》

컴직한 마스크를 드시고 한동안 묵묵히 서계시는 그이의 모습에 모든 시선들이 멎어있었다.

수령님께서서는 흰마스크를 보시자 김영덕과 함께 사업하신 지난날들이 다시 떠오르였다.

그 추억은 축산업의 새 력사이기도 하였다. 그 력사를 창조하는 투쟁에 자기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깡그리 바친 영덕을 우리 당과 조국은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다.

문득 그이께서 물으시였다.

《비육사 사양공들은 이런걸 착용하고 일하오?》 그 물으심에 정만은 대답을 드리지 못하고 눈길을 내리깔았다.

《고답소.》 그이께서는 정만이가 드린것을 안주머니에 간수하신 후 비육사로 들어가시였다.

농업상을 비롯한 수행성원들이 뒤따랐다.

사동은 중심에다 일정한 공간을 두고 량편에 벽을 막았다. 그중 오른편 출입문으로 들어가신 그이께서 벽가의 한길 남짓한 단우에 올라서시였다.

쇠살창우리들이 복도 량편으로 아득히 뻗어있었다. 우리마다 불깃한 배를 드러내고 누워자는 흰돼지들이 한벌 덮여있었다.

《보기가 괜찮구만!》

그이께서 만족하신 표정으로 말씀하셨다.

《한 천마리쯤 되는것 같군!》

정만은 그 말쑤에 저도 모르게 놀란 눈길로 지배인을 쳐다보았다. 지배인 역시 놀라운 표정으로

로 눈을 껌벅거렸다. 건물의 량쪽에 꼭 천마리씩 갈라 넣었던것이다.

웅- 웅-

전동기의 동음과 함께 우리앞의 구유에서 돌아가는 라선형식콘베아를 따라 누런 배합먹이가 흘러들어왔다. 그러자 돼지들이 잠에서 깨어나 살창팜으로 대가리를 내밀고 걸탐스럽게 배합먹이를 먹기 시작하였다. 그 모양을 처녀사양공이 중간통로로 다니면서 살피고있었다.

정만이가 수령님께 비육사의 생산설비들과 사양관리체계를 설명해드리었다.

3개 동으로 된 비육사는 모든 작업공정이 기계화가 되어있었다. 지어 배설물도 우리 바닥 살창 밑으로 떨어져 물에 일정하게 잠기면 배수로문을 열어 뽑게 되어 있었다.

비육사는 야외사에서 30 키로가량 자란 돼지들을 받아 100 키로까지 키우게 되어있었다.

《축산이 발전된 나라들에 비해 증체기일이 우리는 아직 한달이상 더 걸립니다. 먹이의 질에 원인이 있는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배합먹이를 먹고있는 돼지들을 보시며 정만의 설명을 들으시던 그이께서 말씀하시였다.

《물론 먹이의 질도 더 높여야지. 그러나 증체률을 결정적으로 높이려면 3 원교잡을 도입해야 돼.》

그 가르치심에 정만의 머리속에서 번개처럼 스치는것이 있었다.

3 원교잡이란 1 대잡종의 암놈에다 그 암지들과 또 다른 숫놈사이에서 낳은 새끼돼지를 의미한다. 1 대잡종이 동일한 사양조건에서 증체률이 15 프로 높은데 3 원교잡하면 그보다 더 높아진다는 말씀이 아닌가!

《어버이수령님!》 정만의 음성은 흥분으로 떨리었다.

《그러면 증체률이 더 높아지겠습니다.》

그이께서는 배불리 먼저 먹고난 돼지들이 자동 마개가 달린 수도가 하나 있는 살창쪽으로 어기적거리며 가는 모양을 보고계셨다.

먼저 간 돼지는 주둥이로 마개를 올리밀며 흘러나오는 물을 먹었다. 뒤따라온 놈들은 앞놈이 물을 다 먹고 나설 때까지 기다리다가 제 차례가 오면 역시 주둥이로 마개를 올리밀었다.

《증체를 말인가?》 그이께서는 돼지들이 물먹는 모양에서 시선을 떼지 않으신채 말씀을 이으셨다.

《1 대잡종보다 또 15 프로 높아지지. 역시 같은 사양조건에서 말이요!》

정만은 그 말씀에 온몸이 굳어져버렸다.

너무도 놀라운 수자였다.

3 원교잡을 하면 분장의 돼지를 만마리로 쳐도 지금보다 천오백마리를 공짜로 얻게 되는것이 아

닌가!

흥분한 나머지 그는 두손을 마주 주물렀다.

《수령님, 이 분장을 3 원교잡체계로 고치겠습니까.》

수령님께서 그를 보시며 빙그레 웃으시였다.

정만은 흥분하면 두손을 마주 주무르곤 하던 아버지의 버릇까지 신통히 닮은것이였다.

《빨리 할수록 좋아. 그런데...》 그이께서는 수도결에 차례를 기다려 줄지어서있는 돼지들을 가리키시였다.

《흔한 물이야 왜 돼지들이 마음대로 먹게 하지 못했소?》

그 말씀을 받고서야 정만은 물먹는 돼지들을 여겨보았다. 그는 얼굴을 붉히며 대답을 올렸다.

《수도를 더 늘이겠습니다.》

《축사안의 공기가 탁한데 배풍기를 뒤쪽에 더 설치했으면 좋겠소.》

분조장까지 합해 여덟명이라지? 여덟명인 분조가 힘들게 일하지 않으면서 돼지를 무려 6천마리나 자래운다니 괜찮아! 동무들의 소감은 어떻소?》

수령님께서 주위를 둘러보시며 수행성원들의 의견을 물으셨다.

《마치 고기바다를 보는 기분입니다.》

《그것도 처녀사양공 한명이 말아보는 고기바다를 말합니다.》

《수령님.》 수첩에 계산을 해보던 농업상이 고개를 들었다.

《말그대로 이것은 우리 축산부문에서 일어난 하나의 혁명이라고 당당히 말할수 있습니다.》

《농축산을 다 책임진 상도 그렇게 생각되단 말이지.》

그이께서 대단히 만족하신 기색으로 사동밖에 나서시였다.

담장가의 백양나무들에서 여전히 새들은 우짖고 포장길우에서 금빛문양들은 얼른거렸다.

그이께서 즐거우신 기분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였다.

미풍에 윤기가 도는 수없는 백양나무의 푸른 잎사귀들이 간들거렸다.

《내 보기엔 농업상이 지금 전국적으로 여기와 같은 현대화된 돼지공장을 얼마나 지으면 되겠는가를 계산하고있는것 같은데 그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소.》

그이께서 하시는 말씀에 모두가 정숙해서 수령님을 우러러보았다.

우리 나라 축산에서 《평양종》과 같은 우량종을 확보하였고 사양관리체계에서 현대화된 본보기단위까지 마련되었는데 수령님께서 또 무엇을 마음쓰고계시는지 알수 없었던것이다.

《물론 이제는 축산토대가 확고히 마련되었다고

할수도 있소. 지금 세계적으로 축산이 발전되었다는 나라에서도 돼지증체 한기로에 강냉이 세키로로 보고있소. 부침땅면적이 많지 못한 우리 나라 조건에서 그들처럼 할수 없소.

그래서 우리 당은 오래전에 풀과 고기를 바꾸자는 구호를 들었던거요.》

벌써 현장출입문밖에 있는 분장 사무실이 내다보였다.

《그것은 수백만마리의 먹이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문제요. 그 문제도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풀 때만이 우리는 인민들에게 고기를 넉넉히 먹게 할수 있소!》

그 가르치심에 정만의 낫색이 긴장해졌다. 그는 일행을 따라걸으며 무엇인가 골똘히 생각하는 듯싶었다.

수령님을 모신 일행이 마당가의 자귀나무결으로 나서는데 분장으로 들어오는 길로 반장화들신은 처녀가 종주먹을 쥐고 달려왔다.

수령님께서 그 처녀를 지켜보시었다. 갈림길에서 성난 황소를 막아나서던 처녀였다.

결에서 지배인이 말씀드리었다.

《저 처녀가 영덕분장장의 딸 김정심입니다.》
《정심이란 말이지-》

오래전에 내인못가에서 제비꽃을 줬 어린 정심을 안아주시던 때가 어제런듯 하시었다.

어엿한 농산기사가 되어 인사를 드리는 정심을 보시는 그이의 시선에 깊은 감회가 비껴있었다.

《다 차랴구나!》실직한 정심의 어깨를 쓰다듬어 주시는 그 손길에는 그의 부모들이 다 주지 못한 육친의 사랑이 어려있었다.

《허- 이제 한번 안아보려 해도 무거워서 안되겠구나!》

웃으시던 그이께서 정만이를 돌아보시었다.

《참, 정만이는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만은 선뜻 대답을 드리지 못했다. 어려서는 《울 아버지는 돼지밖에 모른다.》 고 한 그였고 인민군대에 나갈 때도 아버지의 가슴에 아픈 못을 박은 자기가 아닌가!

《저- 군대에 나갈 때까지 그야말로 전 철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저나 정심이도 아버지의 아들 딸인것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순간 그이께서는 눈앞에 잊지 못할 영덕분장장의 모습이 다시 떠오르시었다.

《물론 그래야지.》 하고 말씀하신 그이께서는 정만이 오누이를 량옆에 끼안으시고 다시 걸음을 옮기시었다.

《그래 정만이는 뭘 연구하냐?》

그이께서 말머리를 돌리셨다.

정만은 자신을 가다듬으며 갈린 음성으로 대답을 올렸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우리 축산업을 발전시켜 어버이수령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려면 결정적으로 알곡먹이를 줄일수 있는 대용먹이를 연구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습니다.》

정만의 말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걱정을 금할수 없으셨다.

돌이켜보면 창광원, 빙상관, 산원 등 자신께서 생각하고계시는것이면 언제나 훌륭하게 실현시켜 보여드린것이 김정일장군이였다.

그랬는데 축산에서 걸리는 알곡먹이문제를 해결할 방도까지 벌써 제시한것이였다.

《연구목표는 어떻게 세웠느냐?》

정만은 차렷자세로 군대에서 보고하듯이 대답을 올렸다.

《수령님! 첨가제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버거나 강냉이오소리, 고구마넝쿨따위의 섬유질을 분해시키면 짐승들이 흡수할수 있는 조단백질로 전환됩니다. 목표를 세운 첨가제만 완성하면 증체 한기로당 강냉이 세키로가 아니라 한키로로 될수 있습니다.》

그이께서 정만의 말을 들으시고 천천히 두세걸음 거니셨다.

《대단히 중요한 연구야! 그런데 그 연구를 어디서 한다?》

그 물으심에 긴장해진 정심의 눈길이 오빠의 얼굴에 가 박히었다.

《수령님, 저보고 여기서 자꾸 분장장사업을 하라고 하는걸 반대했습니다.》 정만은 좀자르며 말을 잇다가 얼굴을 번쩍 쳐들었다.

《제가 밥잠을 못 자는 한이 있더라도 분장사업도 하고 연구사업도 해야겠다는 결심을 오늘 하였습니다.》

정심의 긴장했던 눈에는 뜻밖인 오빠의 대답에 기쁨과 함께 한가닥의 의혹이 비쳤다.

《여직껏 반대하다가 왜 오늘에야 그렇게 달라졌나?》

정심이 오빠에게 묻고싶은 말을 수령님께서 물어봐주시었다.

《비육사에서 나오시며 수령님께서 먹이문제를 두고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달리했습니다. 제가 아버지처럼 분장사업을 보면서 연구도 완성한다면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 더 큰 기쁨을 드릴수 있다고 생각했기때문이였습니다.》

《오빠!...》

정심은 오빠의 손을 부여잡고 콩당콩당 뛰었다.

그의 얼굴에 활짝 피어난 함박꽃같은 웃음이 주위를 아름답게 만드는데 하였다.

남매를 보시는 그이께서도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셨다.

그들을 랑옆에 세우신 그이께서는 수양버들이 휘늘어진 내인못을 이윽도록 바라보시었다.

《난 지금도 너희 아버지가 살아있는것만 같다. 아버지는 나를 받들어 충실하게 일해온 성실한 일꾼이었다. 너희들도 김정일장군을 받들어 축산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 아버지처럼 온넛을 바쳐야한다.》

《수령님-》 오누이중에서 정만이가 먼저 대답을 렸다.

《장군님의 뜻대로 반드시 하겠습니다.》

정심의 가뭇한 얼굴에도 굳은 결심이 어려있었다.

《수령님, 저희들을 믿어주시시오.》

《그래》 그이께서 남매의 어깨를 다정히 잡으시었다.

《아무렴, 영웅의 아들딸이 그래야지!》

수령님께서는 그들 남매가 김영덕분장장처럼 축산분야의 기둥이 될 래일을 그려보시었다.

그것은 김정일장군에 의해 자신의 소원대로 흰 쌀밥에 고기국을 먹으며 인민들이 행복을 누리는 더없이 즐거운 풍경이었다.

천년을 더듬는듯 하시는 그이의 시선은 내인못에 가 멎어있었다.

《내인못전설에는 달미를 사랑하는 우리 조상들의 마음이 깃들어있지- 그 마음이 대를 이어 전해지는것처럼...》 잠시 동안을 두시던 수령님께서는 혼자말씀처럼 조용히 뇌이시었다.

《오늘도 인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친 사람은 우리 당의 추억속에 영원히 살아 있게 된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이께서는 조국과 인민을 가사

위해 생명을 바친 무수한 혁명가들과 애국자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더듬어보시었다. 그들중 한사람이 김영덕분장장이었다.

그이의 곁에 정만이와 정심이 서있었다.

그들을 아버지의 대를 잇게 해주신 수령님께서는 영덕분장장에게 영웅칭호를 주시고도 뭔가 부족해하시던 그 심정이 안정되는듯 하시었다.

아름답게 추억되는 사람은 아름다운 인간이다.

고귀한 추억은 인민의 수령만이 지닐수 있으며 그 추억은 영원한것이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남매를 데리시고 수행원들을 향해 걸어가시었다.

《부관동무, 우리가 래일부터 야금기지들을 돌아보게 되어있지?》

《그렇습니다.》

《어서 갑시다.》

그이의 집무실에는 보시고 비준하셔야 할 문건들이 집무탁우에 수북이 쌓여있었다.

어느덧 해는 저물고 붉은 노을이 서천하늘에서 아름답게 불타고있었다. 노을속으로 멀어지는 승용차를 지켜보며 정만이네 오누이와 지배인 그리고 분장사람들이 감격에 젖어 서있었다.

지난날 머슴군의 아들이였던 김영덕과 같은 사람들을 하나하나 이끌어 나라의 기둥으로 내세워 주셨으며 또 그들을 영생의 언덕에 세워주신 수령님이시었다. 하지만 그들의 위훈을 모두 합친다한들 그이께서 조국과 인민을 위해 쌓으신 불멸의 업적과 공적에는 비하지 못할것이었다.

하기에 수천년력사에서 조선민족이 처음으로 맞이한 김일성동지를 영원한 수령으로 자애로운 어버이로 우리 인민은 심장을 다 바쳐 모시는것이다.

벌써 자들이 사라진 포장도로는 노을속에 잠겨 있었으나 사람들은 돌아설념을 잊은듯 그냥 서있었다

우리 장기 제일일세

김봉운

쉬는 날 명절날 어깨성 쌓고 앉아
민속오락 우리 장기 승벽내기 신나네
장훈이야 명훈이야 종횡무진 묘한 수
배심있게 겨루는 우리 장기 제일일세

지혜를 보낼수록 흥이 나는 우리 장기
늙은이도 젊은이도 누구나 사랑하네

장훈이야 명훈이야 무궁무진 묘한 수
번개같은 공방전 우리 장기 제일일세

민족의 슬기 넘친 보람찬 우리 생활
로동당 세월속에 아름답게 꽃피네
장훈이야 명훈이야 민족향기 넘치는
세상에 다시 없을 우리 장기 제일일세

백두산정시조

리연희

백두 - 향도역

(백두산 삭도역에서)

이 땅의 수천리
하많은 역과 역들을 지나
그리며 달리여온 마음과 마음들
숭엄히 들어서는
백두역

단 한구간

거리는 짧아도
우리 수령님의 뜻
세상끝이라도 받들어올리실 우리 장군님
그이, 그이의 위대한 녀의 절정인가
내 한생토록 올라도 다 못 오를
성스런 저 하늘가로 안아올리는
아 백두-향도역

성산

오를수록 울울창창
천고의 밀림도 끝나버리고
이제는 드문드문 세월의 증전자런듯
폭풍속에 휘여지고 꺾일지언정
년륜을 감으며 오르던 이깔들도
그만 진대로 이끼속에 묻히어버렸는데

정녕 세월마저 지쳐버렸는가
태고의 그 옛날
화산에 타다남은 탄화목만이
유적으로 서있는 이 기슭

여기에 솟았구나
수수만년전
지심깊이 간직했던 지층속에
태동하는 용암을 터치여올려
저 하늘가에 아득히
층층 년륜으로 쌓아새기여안은 백두산

허나 그 언제부터였더냐
기나긴 조선의 밤을 깨우며

항일의 총성 너의 절벽을 흔들어 울리던것은
동에 번쩍 서에 번쩍
너의 봉이마다 해방의 화불을 밝혀
비로소 이 나라의 서광을 펼친 그날은

여기선 한줌 가벼운 부석에도
수천년전 용암의 솟구침인듯
백두의 김대장을 우리러 터치던 환호
민족의 고고성으로 우뚝쳐오고
어-내 웨치며 불러보는 걱정에도
력사의 대답소리
진정 내 조국 새 력사의 메아리로 되새겨 울려
주나니

아 내 눈길 들어 바라보는 저 산정에
오늘은 우리의 김정일장군
반만년 민족의 그 력사우에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력사를 들어
천만년 녹지 않을 백두의 흰눈인듯
화강석 흰바위로 새기셨구나
성산과 더불어 영원히 빛날 글밭을!

매

한그루 나무도
뿌리를 내리지 못한 여기
모진 세월의 풍화에
한덩이 부석조차 모래로 부서지고
금시 새겨지던 발자욱마저
순간의 폭풍에 흩날려버리는 이 산정

허나
어디선가 퍼덕임소리
생명의 날음소리

푸르른 창공
저 하늘가에 나래를 치며
힘차게 오르는 매!

그 어떤
삶도 인적도 허용치 않는것인가
검은 날개런듯
저 하늘은 구름그림자를 펼쳐
산정을 휩쓸며 폭풍을 불러오는데

이때라
저 천지아래 검푸른 절벽사이사이로
타래치는 룡무리런듯
솟구쳐오르는 떼구름
휘몰아치는 폭풍을 맞받아
세차게 나래를 치며 헤가르며
도도히 떠있는 매여

장하다
드디어 흩어져버리는 구름
허장성세의 그 조각조각을 털고 차며
더 높이 솟구쳐 감돌아 멀리 날아예며
천지호반을 향해 힘껏 내려쫓히다가도
다시금 날아날아 령마루로 솟구쳐오르는
환희의 감격이여

나는 안다
너는 저 밀림의 바다
오늘도 백절불굴의 투사들의 숨결 살아숨쉬는
저 설레임속에

백두산!
이 산정에 서니 보여오누나
안도, 마안산, 로야령...
저 이국의 광야
피어린 눈보라만리
우리 수령님 헤쳐오신 자욱자욱...

그날엔 없었구나
삼천리 빼앗긴 땅위에
백두여 너는 있었어도
흩어져 쫓겨가는 인민을 붙잡고 울어줄 조
국은 없었구나
제 나라 제 땅이라 그리워 찾아와도
기다려 부동켜 맞아줄 조국은 없었구나

나라가 없는 이 땅
우리 수령님
너를 찾으시려
조국을 찾으시려
안도의 저 수림속에서
혁명의 총대를 높이 추켜드시지 않았던가

말하라
그날에 이끌고 떠나신 대오
저 로야령을 넘어 북만으로 남만으로

첫 깃을 가다듬지 않았더나
설한풍 눈보라광야우에 붉은 나래인양
힘차게 나뭇기는 붉은기의 기상
너의 나래로 안고 오르지 않았더나

열번 다시
백번 다시 너는 솟구쳐올랐구나
그 어떤 못새들 오르지 못한 이 산상에
몰아쳐올 비바람도 두려움없이
지동치는 눈보라속에 동요도 없이
폭풍속에 꺾이지 않을 자기의 나래를 굳이 믿으며
보다 억세어질 삶을 부르는 백두의 매

더 힘차게 오르라
한껏 가슴헤쳐 바라보는 이 마음에
퍼덕이며 깃을 쳐오르는 나의 녀이여
투쟁은 간고해도 승리는 벽찬것이니
이 세상 가장 용감한 삶을 위해
함께 날으자
아 백두의 매 나의 매여

조국

고난의 행군을 이어 헤쳐오신 길은 몇천리
조국땅 보천보로 무산지구로 이어오신 그 길
은 몇만리

혈전의 눈보라 저 광야에
묘비도 없이
전우들을 묻고오신 우리 수령님
못잊을 그 녀원들
목매여 부르시던 그 이름들 다 모아
조국의 이름으로 안아주신 이 산정

다시는 그 누구도 너의 존엄
감히 밟아버릴수도 지워버릴수도 없이
너는 엄숙히 서있구나
우리 수령님
너의 흰눈우에 찍으신 혈전의 그 자욱
내 나라의 인장처럼 새겨안은 백두

너는 서있구나
위대한 수령님의
항일전의 피어린 력사의 기념비로
영원히 솟아 빛나리라
아 백두산
내 조국이여

천지의 고요

우우 몰아치는 폭풍
폭풍속에 부석을 휘날려 골과 골을 메워버리고
번개를 휘여잡아 장검인양 번뜩이며
우뢰를 치며 구름을 맞받아나아가는 장수마냥

산상은 메아리쳐 울부짖는데

천지는 고요하구나
잔잔한 물결

파아란 호심
신비로워라 거울같은 수면우엔
청석봉, 제비봉, 백운봉...
백두산악이 조용히 비끼어 어렸네

정녕 하늘우에 호수여서
구름속의 봉우리도 다 담았느냐
한여름 한철에도
사계절 꽃송이를 피워안은 산자락
무지개빛을 품며 호반우에 곱게도 어리였네
그윽한 그 향기마저 흘러흐를듯

천지여 네가 안아올리었느냐
저 하늘이 드리워내리었느냐
소리도 없이 비껴솟은 칠색무지개
그 다리를 타고내리었는가
이 기슭의 사람들
누구나 백두의 선남선녀들인듯

아침이면 떠오르는 해빛을 반겨
은빛으로 설레이며 빛을 뿌리고

가까이
가장 가까이
내 태양을 보고싶어
오른 산마루

푸른듯 검은듯
보라빛으로 물드는 저기런가
이 땅 이 하늘을 쭉 가르며
한줄기 금빛띠를 펼쳐올리더니
소리도 없이
하늘을 들며 떠오르는 태양

아 그이이시다
오늘도 이 땅을 안으시고
온몸 온 마음을 열정으로 불태우시는
김정일동지!
그 품인듯 저 붉은 광휘속에
웅건한 자태를 드러내는 메부리
나도 이 산정우에
거인마냥 태양을 우러러 선 아침

그 어디더나
비바람 눈바람을 헤치며
손에 손을 잡고 어깨와 어깨를 곁고
이 세상 최절정인듯
내 오르고오르던 한줄기 그 길은

빛발은 펼쳐여주누나
천갈래 만갈래

저녁이면 지는 해가 아쉬워 붉게 타는 물결이어
밤이면 보석같은 별들이 내려앉는 은하의 세계여

수수천년전
뢰성을 치며 불을 뿜으며
산상을 안아올리던 열정의 분화구
오늘은 그 가슴에 맑은 물을 담아
항일의 렬사들 안아올린 숭고한 사랑
사무치게 그려안던 그윽한 꿈
고요히 비껴안은 백두의 정화여

장엄함과 웅장함
세상을 진감하는 기상으로만
백두여 네가 솟았더니
천지의 이 고요만으로도 아름다운 백두

내 너를 불러 노래하고저
이 마음에 삼가 붓을 드니
애국으로 끓는 가슴에
열정의 분화구를 터쳐주는
아 천지의 고요...

백두의 아침

이 땅의 모든 길과 길
오직 나의 발앞에
나를 위해 펼쳐여주는 이 산정

온몸 온 마음에 용솟는 힘이여 열정이여
내 한걸음에 천리를 주름잡아
내 하루를 백날 천날로 살아
이 땅에 천년만년 살고싶은 나의 생
여기서 다시 시작되는듯

가리라
최전연 저 병사들과 함께
나의 노래 천만자루의 총검으로 비껴안고
애국의 녂기발처럼 추켜들고
강성대국으로 비약하는 조국의 방방곡곡으로
나의 땀을 뿌리며 나의 지혜를 바치며

밟고선 하나의 조약돌조차
금빛으로 다시 빛을 뿌리는 여기
돌꽃 구름국화 애기금매화
이름없는 꽃송이도
노을빛을 머금으며 새로 피어나는 아침

내 환희의 격정
태양을 우러러 터쳐부르는 소리
이 딸의 고고성인듯
기쁘게도 받아외워주며
어머니 백두는 붉게도 이 몸을 감싸안는다

수령형상창조에서 상대인물의 전형화와 세부형상

-단편소설 《봄향기》를 읽고-

김순림

《나는 백두산위인들이 키워주신 우리 조선여성들에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사랑의 세계를 그리고싶었습니다. 내가 체험한 장군님의 사랑의 세계를 말입니다. 그것을 그리는데는 너성작가로서 나의 량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편소설 《봄향기》를 쓴 작가의 말이다.

단편소설 《봄향기》(박혜란 작, 《조선문학》 잡지 주체98(2009)년 12호)는 《인삼크림》이라는 종자를 쥐고 봄은 푸른 하늘밑에서만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그윽한 향기를 풍긴다는 사상을 진술한 예술적화폭을 통하여 펼쳐보여주고있다.

단편소설은 의의있는 문제를 제기하고 이채로운 형상수법과 진실한 예술적해명으로 하여 수령형상창조에서 새로운 혁신적면모를 보여준 작품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을 형상하는 문학에서는 수령이 지닌 인간적품모의 위대성을 깊이있게 형상하여야 한다.》

소설은 무엇보다도 우리 혁명투쟁력사, 조국건설력사에서 결코 무시할수 없는 조선여성들의 역할, 그 공적을 언제나 잊지 않으시고 3.8절에 가장 값높은 표창을 안겨주시기 위하여 마음쓰시며 우리 녀성들에게 《봄향기》화장품을 선물하실것을 결심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인간적품모의 위대성을 보여주고있다. 단편소설은 제기한 문제를 형상적으로 해명하기 위하여 수령형상소설의 특징에 맞게 상대인물들의 형상을 전형화하여 보여주었으며 《인삼크림》이라는 세부를 백두산3대장군의 인간적품모의 위대성을 부각하는데로 집중시켜 형상함으로써 수령형상소설의 생리를 옹계 살려나갔다.

여기에서 김웅범의 형상은 매우 의의있으면서도 수령의 위대성형상에 유기적으로 맞물려져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이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안겨오도록 하는데 힘있게 이바지하고있다.

이 단편소설이 특색있는것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니신 인간적품모의 위대성을 돋구어주기 위하여 상대인물들과의 관계를 깊이있게 맺어주고 여기에서 흘러나오는 생활을 타당성있게 그려주고있는것이다.

인민군군부대의 어느 한 녀성중대를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녀병사들에게 공급되는

크림의 질을 보아주시다가 화장품공장에서 쓰고 있는 샘플량에 대하여 친히 알아보시였다.

도당책임일군으로부터 샘플의 시간당 흐름량이 종전보다 조금 줄어들었다는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김웅범부부장을 찾으시여 현지에 나가 원인을 알아볼데 대한 과업을 주신다.

집무실에서 한밤을 새우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김웅범을 만나시고 백두산샘물은 고급화장품생산에 절실히 필요한 진귀한 샘플이라고, 그 물을 다른데 쓰게 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말씀하신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순결하고 강의한 우리 녀성들을 만날 때처럼 그들에게 안겨줄 가장 값높은 표창은 무엇일가고 생각하곤 했다고, 저 하늘의 별들이 우리 녀성들을 아름답게 가꾸주는 진주보석이라면 모조리 따다가 그들의 가슴에 듬뿍 안겨주고싶다고, 이 세상에 복을 안아오는 금방석이 있다면 온 세상을 뒤져서라도 꼭 찾아내어 시련을 헤쳐오느라고 고생을 많이 해온 우리 녀성들을 그 금방석우에 앉혀주고 싶다고 뜨겁게 말씀하신다.

《수령님의 품에 안긴 그날부터 그들은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힘있게 떠밀어왔으며 우리 조국을 사회주의강국으로 일떠세우는데서 자기 몫을 훌륭히 수행했습니다. 우리 수령님께서 그처럼 아끼시고 보살펴주시던 이런 녀성들을 어떻게 하나 아름답게 가꾸어주고싶은것이 오래전부터 품어온 나의 소원이였습니다. 나는 3.8절을 맞으며 그들에게 《봄향기》를 선물하려고 합니다. 신의주화장품공장에서 나오는 최고급화장품을 말입니다.》

그제야 김웅범은 석하천제방둑우에서 야전복차림을 기폭처럼 날리시던 그이께서 어찌하여 그걸음으로 화장품공장을 찾아주셨는지 그리고 첫화장품에 《봄향기》라는 이름을 달아주셨는지 비로소 알게 되었다. 이러한 생활을 깊이있게 짚아줌으로써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녀성들에게 베풀어주시는 사랑의 밑바탕에 흐르고있는 숭고한 세계를 뜨겁게 감수하게 하고있다. 소설은 처음으로 수령의 인간적품모의 위대성을 부각함에 있어서 리정임의 형상에 특별한 관심을 돌리였다.

리정임은 어버이수령님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 그리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녀성들에 대한 사랑의 세계를 보여주는데 효과적으로 이바

지하고있다.

해방된 이듬해 김정숙어머님의 생신날 아버지 수령님께서서는 자그마한 크림팩 한개를 내놓으시며 이것밖에 주지 못한다고 절절하게 말씀하신다. 어머님께서서는 그 크림팩을 작은 거울앞에 정히 놓아두시고 한번도 손을 대지 않으시었다. 정임동무가 산에서 입은 동상때문에 얼굴색이 좋지 못하는데 이걸 바르면 얼굴이 한결 환해보일거라고 하시며 그 뜻깊은 크림팩을 리정임에게 주시었다.

사회주의기초건설이 한창이던 어느해 여름날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너투사들을 몸가까이 부르시고 산에서 싸울 때 동무들이 령하 40도를 오르내리는 추위와 강설속에서 빨래를 하고 마른 풀뿌리를 케느라 손을 열구던 일, 살을 에이는 만주바람에 꽃같은 얼굴이 터갈라지던 일이 속에서 내려가지 않는다고 다정하게 말씀하신다. 그러시면서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너성의 몸으로 제 얼굴의 아름다움을 가꾸기에 앞서 빼앗긴 조국을 되찾기 위하여 온갖 고생도 달게 여기며 싸워온 리정임을 비롯한 조선의 훌륭한 딸들에게 《인삼크림》을 주신다. 리정임은 인삼크림단지를 몸에 꼭 끼안고 항일의 녀장군을 목매여 부른다. 너무도 사연깊은 인삼크림이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서는 신사동목재소 로동자의 집에 들리시였을 때 처녀애의 거북등마냥 터갈라진 손을 보시고는 배낭속에 깊이 넣으셨던 크림팩을 꺼내며 쥐여주시었다. 눈물이 강가랑 맺혀 만류하는 정임에게 나라를 찾으려면 이런 크림을 팡팡 만들어내게 될거라고 말씀하신 어머니님.

소설은 리정임을 경애하는 장군님의 상대인물로, 당중앙위원회 부부장 김웅범을 장군님과 리정임의 관계를 이어주는 매개인물로 설정하고 잘 결합시켜나갔다.

소설에서 리정임의 형상은 나이 90이 될 때까지 위대한 장군님의 의도를 제때에 받들지 못하여 안타까와하는 충실한 인간으로 전형화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과 리정임의 관계는 사랑과 보답의 관계로 이루어진다.

등장인물의 형상을 잘 살려 이야기를 감명깊게 끌고나가는데 작가의 재능이 있고 작품을 성공으로 이끄는 비결이 있다. 소설은 형상수단과 수법을 여러모로 리용하여 형상의 진실성과 생동성을 충분히 보장하였다. 7년전 리정임이 김웅범에게 사업을 인계하면서 우리 여성들에게 제일 좋은 화장품을 안겨주시려는 우리 장군님의 의도를 관철하지 못한 자책감으로 모대기는 모습은 매우 감동적이다.

고령의 너투사는 오래동안 함께 일해온 김웅범에게 신의주에 자리잡은 경공업공장들을 찾았을

때에는 백두산장군들의 발자취가 어려있는 공장들을 새 세기의 맛이 나게 더 잘 꾸려줄것을 부탁하며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받던 때의 사연을 들려준다. 그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정제한 물로 화장품을 생산하도록 한 리정임의 말을 들으시고 화장품생산에서는 자연수를 쓰는것이 원칙이라고, 조업식을 미루더라도 물문제부터 해결하자고 하시였다고 하면서 장군님의 의도를 잘 받들지못한 자기 잘못이 더 크다고, 부부장동무가 꼭 수행해주길 바란다고 하였다. 이러한 형상은 우리 여성들에게 돌려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이 얼마나 웅심깊고 뜨거운가를 보여주는 데 매우 효과적으로 이바지하였다.

소설은 또한 리정임과의 인간관계를 통하여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로서의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깊이있게 보여주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전선시찰의 길에서 아흔번째로 맞이하는 그의 생일을 축하하시여 친히 생일상을 보내주신다. 그리고 리정임을 보고싶으셨고 그의 목소리를 듣고싶으시여 전화를 하신다.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김정일입니다.》라고 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육친적인 사랑, 앞으로 자식들과 손자손녀들의 축복을 받으며 오래오래 앉아계시라고, 사관장을 하는 아들내외가 올라왔겠는가고 다심하게 물으시는 어버이장군님, 한생을 혁명에 헌신해온 너투사가 고령의 나이에도 자식들에게 한가정의 일보다 나라일을 먼저 생각하도록 떠밀어주는 그 마음이 눈물겹게 안겨왔고 사단장이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에게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것 같아 못내 서운해하시며 심중에 고이는 생각을 이어나가시는 장군님이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3.8국제부녀절에 여성들에게 휴식도 시키고 푸짐한 점심상도 차려주자는 김웅범의 의견을 들으시고 천천히 집무실을 거닐기 시작하시였다. 한자국 또 한자국...

사색속에 걸음을 옮기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말씀하신다.

《그들에게 명절휴식을 준다고 해도 남편과 자식들이 직장과 학교로 가고나면 집이 비어있겠는데 그들이 빈집에서 휴식할 맛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휴식을 하라고 해도 밀린 가정일을 하느라 편히 쉬지도 못할거요.》라고 하시며 3.8국제부녀절을 맞는 여성들을 더 기쁘게 해줄 좋은 안이 또 없겠는가고 다심하게 물으신다.

이 세상의 가장 좋은것을 고르고 골라 봄을 맞는 여성들에게 안겨주고 싶어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한량없는 사랑의 세계는 자애로운 인민의 어버이로서의 형상을 돋구어주는 감동깊은 화폭이다.

또한 소설은 작품의 형상을 돋구는 너기자를

정임의 손녀로 설정해놓고 《고난의 행군》을 이겨내고 강성대국건설에 몸바치고있는 오늘 우리 시대 녀성들의 투쟁과 그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품고계시는 우리 장군님의 사랑의 세계를 이채롭게 형상하고있다.

너지자는 어버이수령님의 품속에서 복을 누려온 우리 녀성들이 오늘 선군시대의 당당한 창조자가 되어 인생을 보람있게 가꾸어가는 감동적인 내용의 텔레비전편집물을 만들어 위대한 장군님께 올리었다. 텔레비전편집물에서 제일 인상에 남는 장면은 온 나라가 어려움을 겪던 시기에 가정과 나라앞에 놓인 무거운 짐을 그 작은 어깨위에 스스로 걸머지고 무릉도원을 일떠세운 자강도 녀인들의 투쟁모습이었다. 이른새벽 진거름을 실은 밭구를 끌고 눈덮인 농장포전으로 나가던 가두의 녀맹원들 그리고 불리한 산골기후조건에서도 기어이 세벌농사를 성공하는 녀성관리위원장...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잊지 못해하시는 자강도의 녀성들이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오늘 우리 녀성들은 아무 곳에 세워놓아도 남자들 못지않게 자기의 몫을 해나가고있다고 하시면서 우리선군시대에는 바로 이런 녀성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투쟁으로 힘차게 전진해가고있다고 하시였다. 이러한 녀성들에게 제일 좋은 화장품을 선물하시려는것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의도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김웅범부부장으로부터 세계의 여러 나라들에서 비싼 값으로 화장품을 전부 사들이겠다는 보고를 들으시고 심중에 물어두었던 사연을 이야기하신다.

언젠가 우리 수령님께서 개성인삼에 대해 말씀하시였는데 개성인삼이야말로 조선사람의 체질에 꼭 맞는 약초라고 하시면서 개성에서 재배하는 인삼을 화장품생산에 돌리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우리 수령님은 바로 이런분이시라고 하시며 그 누가 우리에게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봄향기》는 조선의 녀성들을 위하여 풍기게 하여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신다. 그러시고는 신의주화장품공장에서 만든 《봄향기》화장품을 우리 녀성들에게 안겨주라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깊은 뜻을 새겨안은 신의주화장품공장에서는 단 며칠동안에 제일 좋은 인삼크림을 비롯한 《봄향기》화장품을 최상의 주준에서 생산하여 올린다. 그리하여 리정임과 그의 손녀들을 비롯한 우리 녀성들은 백두산3대장군의 뜻이 어린 《봄향기》화장품을 받아안게 되는것이다.

리정임은 손녀와 똑같은 선물을 받아안고 백두산위인들의 품에 안겨 보내온 한생을 돌이켜보며 편지를 올린다. 소설은 단편이라는 짧은 형식에 백두산위인들의 크림에 대한 여러가지 세부를 보여주면서 그것이 어떻게 인삼크림으로, 《봄향기》

화장품으로 될수 있었는가 하는것을 비교적 무리가 없이 보여주고있다. 여기에 바로 이 작품의 형상적특색이 있다.

단편이라는 작은 그릇에 리정임의 크림과 관련한 거의 일생을 담으면서도 감동적인 형상을 이룩할수 있는 비결이 어데 있겠는가. 이에 대하여 여러가지로 말할수 있으나 독특한 형상수법을 쓰고있는데 많이 기인한다고 본다.

이 작품은 세부들이 겹놓인 수법을 쓰고있다. 리정임의 손녀가 등장하고 리정임의 성격은 손녀의 이야기를 통하여 투영된다. 그러므로 리정임의 형상은 손녀를 통하여 더 부각된다고 볼수 있다. 이것은 독특한 형상수법이다.

진실하고 의의있는 문제를 잡았을 때에는 그것을 어떤 형상수법으로 풀어나가겠는가 하는것이 중요하다. 소설에서 리정임의 형상은 구색에 맞으며 그 겹놓인 수법을 쓴것은 매우 특색있는것으로써 내용에 맞는 옳은 처방이다.

우선 이 작품에는 크림으로부터 인삼크림으로, 《봄향기》화장품으로 전환이 일어나는 생활이 취급되고있다. 내용의 함축과 비약, 하나의 초점에서의 집중 등 생활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면서도 감동성을 구현할수 있는 리정임과 같은 인물을 설정하지 않고서는 단편이라는 그릇속에 그것을 다 담을수 없었을것이다. 그래서 아마도 겹놓인 수법을 보여주었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총적으로 이 작품의 내용과 형식이 잘 어울린다.

리정임, 손녀의 형상은 이야기를 오늘의 생활로 밀착시켜 보여주는데서 의의가 있다.

왜냐하면 위대한 장군님의 우리 녀성들에 대한 사랑의 세계를 느끼게 하려면 뜨겁게 체험할수 있는 계기와 생활을 주고 그것을 전반형상과 조화롭게 통일시켜나가야 할것이다. 손녀는 이 문제를 안고 자연스럽게 형상생리에 맞물려져 련결시켜주고있다.

작품은 또한 제기한 기본문제와 생활을 유기적으로 통일시켜나가고있다. 이 작품은 생활세부들을 적절히 형상고리들에 맞물려 그리고있다.

소설은 내용에 적중하게 작품의 정서적감흥을 자아낼수 있도록 신축성있고 담담한 필치로 화폭을 펼쳐가고있다.

작가는 생활에 대한 충분한 연구, 해박한 지식과 더불어 비상히 높은 심장의 충격으로 하여 정서와 열정의 물기오른 붓대로 작품을 그려나갔다. 이것이 또한 형상을 감동적으로 보여줄수 있게 한 하나의 요인으로 되는것이라고 생각한다.

단편소설 《봄향기》는 우리 녀성들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의 세계를 특색있는 인간관계와 의의있는 생활세부로 잘 보여준 작품으로서 수령형상단편소설창작에서 새로운 긍정적시사를 주고있다고 본다.

호박에 동침

오필천

술술 스르륵
경쾌하게 발과구멍을 뚫어가는
착정기의 작업모습 보시며
장군님은 뜨겁게 말씀하셨네

대단하다고
이제는 마음이 놓인다고
저런것을 보고
호박에 동침이라고 한다고

한해전에 오시여
생산설비를 알아보시고
만능착정기를 보내주시고
새해도 광산을 찾아주시어
그 작업모습을 보아주신 장군님

기쁘시여
쇠돌생산계획도 물어보시고
자신이 있는가고
만약 계획을 못하면
착정기를 도로 가져가겠다고

만족의 미소속에 하신 장군님의 말씀
아 호박에 동침

우리 가슴속엔 울려왔네
어제날 발과구멍 뚫느라
착암기를 들이대고
돌가루 들쓰던
그날과 영원한 결별을 선언하는 말씀

울려오네 우리 가슴속에
스위치만 누르면
저절로 발과구멍이 뚫리고
정대까지도 저절로 교체되는
최첨단기계의 꽃방석에 앉아
로동의 보람을 터치는 환희의 목소리로

아 호박에 동침!
새길수록 내 가슴속엔
이 뜻깊은 말씀이
광부들의 어렵고 힘든 일이
영영 없어졌다는 선언으로 들려왔네

주체철 신념의 강자들에게

정동찬

그대들에게는
온넛의 덩어리이며
온생의 고뇌와 사랑
애국의 결정체인 주체철
그 한덩이를 부여안고
철의 신념이란 어떤것인지
내 그대들 대신해 이 노래 부르노라

죽으나사나
주체철을 해야 한다고
우리 식 쇠물의 우물 미리 파놓아야
먼 후날의 세대들
철의 갈증을 모르고 살수 있다 하신
어버이수령님

수령님의 단호한 그날의 그 선언
체철구내 무쇠가슴을 흔들어준
그때는 조국해방의 기쁨에 설레던 그 여름
그대들 나이는 애젊은 시절

그 나이로부터
빈 종이장우에 점을 찍고 선을 그으며
머리 한번 기웃거림도 없이

시험로와 함께 살아온 그대들
백발이 성성한 나이에 이르러
주체철의 생일날 보게 되었으니
끝내는 출신구에서 끌어낸 쇠물줄기의
그 터프림앞에서
그대들도 사나이의 물을 터뜨리였더라

한생 쇠불이를 만지며 곱마든 손가락짚에
때로는 안해가 끼워준 숟가락 무릎에 떨구었지
결에서 떠주는 밥술을 애들처럼 받다가도
평긋거리는 새 착상에 무릎을 치며
기쁨의 눈물로 불을 태웠던
그대들 아니였던가

우리 수령님 생전의 뜻이였고
우리 장군님의 의지인 주체철
그대들의 한생으로 얻어진 이 창조물로
조국은 강성대국이라는 큰집
문패를 부어 달아주려니
오 조국이 사랑하는 김철과 성강의 그대들
주체철 신념의 강자들에게
이 노래를 바치노라!

래일을 신고 흐르는 보통강

박경철

비, 비...

밤새 억수로 쏟아지는 무더기비에 불어올라 사납게 범람하는 보통강, 팔동교마저 검붉은 흙탕물에 잠겨버렸다.

(아이쿠, 오늘 아침엔 영낙없이 대학에 늦었구나.)

화닥닥 깨어나니 꿈이었다.

그래도 혹시... 하고 허여스름하게 밝아온 창밖을 내다 보았다. 비는 여전히 짹짹 퍼붓고있었으나 보통강은 조용히 흘러가고있었다.

그러고보니 꿈은 실생활과 반대라지만 현실과는 너무도 엄청난 차이가 있는 어망쳐망한 꿈이었다.

억년 드눌지 않을 바위를 다듬어 쌓은것처럼 든든한 강둑, 그우에 펼쳐진 정갈한 유보도, 비바람에도 즐겁게 흐느적이는 버드나무가지들... 보통강은 어제 저녁과 변함없는 모습으로 나를 반겨주고있었다.

오히려 밤새 내린 비에 더 화려했고 깨끗해진 자태를 한껏 자랑하는듯싶었다.

우산과 비옷을 쓴채 출근길에 오른 사람들의 여유작작한 모습도 보여왔다. 그리고 멀지 않은 언덕에 솟아있는 보통강개수공사기념탑도 손에 잡힐듯 바라다보인다. 나는 안정된 마음으로 대학을 향해 떠났다...

이것은 내가 수도에서 대학공부를 하던 어느 월요일 아침에 있었던 일이다.

나는 보통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싶어 과거에 있었던 일을 떠올렸다.

재학기간 나는 일요일이나 명절날이면 이따금 보통강기슭 건국동에 있는 처남네 집에 가서 보내곤 했다. 그런 날이면 의례히 아름다운 보통강기슭에 나와 사색도 하고 공부도 하곤 했는데 정말 기분도 상쾌하고 년대가 삭갈려 도무지 기억되지 않던 문학사공부도 쑥쑥 머리에 잘 들어갔다.

그래서인지 나는 보통강에 깊은 애정을 갖고있다.

어찌 나뿐이라 갖가지 향기론 꽃들이 만발한 유보도를 거닐며 사랑을 속삭이는 청춘남녀들, 환성을 지르며 연방 고기를 낚아내는 낚시꾼들, 서늘한 버드나무그늘아래서 장기를 두는 로인들, 노대를 휘저으며 뽀트놀이에 정신 팔린 아이들... 강기슭에 꾸려진 현대적인 편의봉사시설들인 창

광원과 청류관은 또 얼마나 운치있는 자태를 뽐내고있었던가.

정말 사시절 인민의 기쁨이 꽃피나던 락원의 강, 보통강의 그 풍경이 오늘도 한쪽의 명화마냥 눈앞에 선히 떠오르곤 한다.

더불어 보통강과 래일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다.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토성랑이라 불리우던 어제날의 보통강은 한숨과 피눈물의 강이었다.

비가 조금만 내려도 물이 넘어나 계딱지같은 집들을 휩쓸어갔고 수많은 생명들을 앗아가곤 하였다. 해마다 많은 피해를 입곤 하여 왜정시기 일제놈들도 개수공사라는것을 벌여놓았으나 10년이 걸려서도 해내지 못하였다.

하지만 해방후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서는 주체 35(1946)년 5월 몸소 보통강개수공사를 발기하시고 공사착공식장에 나가시여 력사적인 첫삽을 뜨시였다.

사실 이것은 당시 나라의 형편을 놓고 볼때 생각조차 할수없는 일이었다.

기술, 자재, 식량 등 모든것이 부족한 조건에서 이런 대공사를 벌린다는것은 아무나 쉽게 내릴수 있는 용단이 아니였다.

오직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시고 오늘보다 먼저 래일의 행복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생각하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만이 발기하시고 진두에서 이끄실수 있는 해방된 조선에서의 건국사업이었다.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의 높으신 뜻을 맨 앞장에서 받들어가시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도 매일 이 공사장에 나가시여 땀흘려 삽질도 하시고 질통도 지시며 건설자들을 새 조국 건설에 힘있게 불려일으키시였다. 어리신 장군님께서도 건설자들과 섞여 어른들의 일손을 도우시였다.

어리신 장군님께서 어머님과 함께 보통강개수공사장에서 보내신 나날은 인민의 지도자의 고귀한 풍모를 보여주신 실로 뜻깊은 나날이었으며 오늘은 비록 고생을 하더라도 조국의 래일을 먼저 생각하시는 숭고한 미래관을 키워오신 의의깊은 나날이기도 하였다.

정녕 지난 세기 40년대에 있는 보통강개수공사,

이것은 오늘이 아니라 래일에 사는 숭고한 후대관, 미래관을 안고 사시는 백두산3대장군의 사회주의조선의 래일에 대한 사랑이 력력히 숨배여있는 우리 조국의 력사의 한갈피였다.

그 갈피의 한 자락으로 보통강은 그날부터 래일, 래일을 싣고 유유히 흐르는셈이다.

정녕 후대들에게 갖가지 덕을 주고 행복을 주는 강, 오늘보다 더 아름다운 래일로 흘러가는 보통강은 오늘을 위한 오늘을 위해서가 아니라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며 혁명의 년대기들을 자랑찬 승리와 위훈으로 수놓아온 내 조국의 축소관이 아니겠는가.

지나온 세기에 우리 인민은 오직 부강한 래일

을 위해,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해 헤아릴수 없는 모진 시련과 난관을 이겨내며 피와 땀,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 투쟁하였다.

이 추동력은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라》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인생관에 그 바탕을 두고있거니.

이 인생관이 바로 오늘날 아버지수령님의 념원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리상이 꽃피어나는 사랑하는 내 조국땅에 투쟁과 창조의 열매로 주렁지고 있다.

그렇다. 나는 래일을 싣고 흘러온 보통강을 통해 오늘의 우리 조국을 본다.

래일의 사회주의강성대국을 본다.

5월의 보통강반을 거닐며

송정우

여기가 그 옛날 한줄기 비에도
흙물이 범람하던 보통강기슭
원한에 울던 토성랑이 맞더니
몰라보게 전변된 락원의 강
행복의 기슭을 가슴에 안아보며
나는 지금 5월의 보통강반을 거닌다

어드메냐 예순네해전 그날
수도건설의 웅대한 구상 안으신 수령님
인민들의 한숨과 피눈물이 서린
재난과 불행을 영영 가셔주시려
보통강개수공사의 첫삽을 뜨신 곳이

그날이 있어 만년홍수에도 끄떡없는
보통강의 새 력사가 열린것 아니더냐
수도 평양을 아름답게 펼쳐가실
그날의 수령님의 높이신 뜻으로
락원의 대도시가 일떠선것 아니더냐

여길 보면 청류관과 빙상관 평양체육관...
저길 보면 신서다리 류경호텔 지하철도역...
밝게 웃는 인민의 모습인양
웅장화려한 건축물들이
보통강아 너의 기슭에 산악처럼 솟았구나

유보도의 무리등기둥을 어루쓸며
실실이 드리운 버들잎에도 추억을 실으며
나는 지금 화강석관간앞에 이른다

그러면 출렁이는 보통강의 물결과 같이
이 가슴도 기쁨의 물결로 설레나니

고개 들면 한눈에 다 바라보이는듯
개건된 평양대극장 옥류관 새로 선 만수대거리
살림집들...
또 한창 솟아나는 10만세대살림집...
갈수록 번영하는 수도의 방방곡곡을
여기서 내 지금 다 안아보는듯

수령님품에서 꽃피난 우리 평양
장군님 손길아래 더더욱 번영할
래일의 우리 평양 축복하는가
두둥실 쪽배놀이에 신이 난 사람들
보통강에 활짝 핀 꽃송이들갈구나

정녕 5월의 뜻깊은 그날 있어
세상이 자랑높은 우리 평양 있거니
지나온 건설의 력사를 새겨보며
추억의 강반을 걷고 또 걷는 눈앞에
우렛이 보이누나 보통강개수공사기념탑이

아, 오늘의 전변을 온 세상에 전하는 탑이어
너를 어이 그날의 기념탑으로만 보랴
태양의 빛발아래 평양번영기의 력사가 어려있는
수도건설의 빛나는 승리의 탑으로
내 마음속에 뜨거이 새겨지누나!



김홍익

동무. 그러니까 해빛덕너머로 간다는 말이겠소? 거기 탐사대소속 소형발전소 기사로 배치받아 간다?!

그런즉 면바로 내 차를 만났구만 이 차가 거길 지나가겠으니 말ियो. 여차하면 잠깐 들렀다 갈 수도 있소. 아니아니, 그렇다구 고맙다는 인사는 마오. 실은 나한테 처남되는 량반이 임자가 배치되어가는 그 탐사대에서 대장을 하고있거든. 게다가 한창텐 나도 거기서 운전사를 했으니 아주 남의 일이라 할순 없지 않겠소.

그런데... 왜 내려왔는가? 허, 이 친구 차를 태워줬더니 시작부터 딱한델 찌르누만, 허허. 그건 그렇고...

동무. 해빛덕이라는델 한번 가봤소? 처음이다? 음-

뭐, 이름이 따뜻하게 들린다?!! 그럴수 있지. 이름만 듣고보면 그렇게 생각되지만 실은 그 반대요.

왜 해빛덕이라 부르는고 하니... 그 령밑에 아직 새벽어둠이 짙어있을 때 덕우엔 벌써 아침 해빛의 첫 가닥이 와닿는다고 해서 불은 이름이요. 한마디로 높은 덕이란 소리지. 령이 얼마나 높은지 령아래기슭보다 보름은 먼저 서리가 내리고 밑에서 마가울비가 주룩주룩 내릴 때 령우에선 눈이 펄펄 내리는 곳이요. 게다가 첫눈이 내린 뒤로 이듬해 봄까지 눈이 녹아보지 못하는데 쌓인우에 덧쌓이고 또 덧쌓인 눈이 퐁퐁 얼어붙어 한겨울엔 짐승들도 발붙이기 힘들어하는데니 실은 해빛덕이라기보다는 얼음덕이라 해야 십상인데... 허허허...

말하다말고 왜 웃는가? 미안하게 됐소. 몇해전 늦겨울에 그 해빛덕을 넘어가던 생각이 나서 그러오. 가만있자, 여기서 해빛덕까지 백리남짓하니 거기로 처음가는 동무한테 그곳에 대한 《예비지식》도 줄겸 내 그 얘기나 할가...

1

강성대국건설의 돌파구를 열자고 온 나라가 떨쳐나섰던 그해 3월초였소.

헌데 참, 이상하거든. 어떤 때엔 그것이 아득하게 먼 일처럼 생각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때엔 어제밤에 겪은 일처럼 가깝게 생각되기도 하니 말이요.

그날...

우리 차가 해빛덕중턱에서 벗어선것은 깊은 밤 아니, 새벽녘에 가까운 때였소.

어떻게 하나 그날 밤으로 령을 넘어가려고 응을 써보았으나 (사실 그 의지는 조향륜을 잡은 나의것이 아니었소. 큼직한 배낭을 안고 보조운전사좌석에 앉은 우리 처남의 의지였소.) 얼음이 짙은 령길의 한 중간에서 지쳐내리다가 천길 벼랑아래로 떨어질뻔 하고는 오르기를 단념하고 말았소. 그냥 오르자거니, 못 오른다거니 한참 말씨름을 하던중 다시한번 해보자고, 못살게 구는 그가 성가스러워 나는 운전칸에 들어와 문을 쾅 닫아버리고말았소.

그래도 그는 단념하지 않고 보조운전사좌석밑에있는 공구함에서 자그마한 손도끼를 찾아들더니 고개길에 얼어붙은 얼음을 깨내는게 아니겠소.

오르면서 이십리, 내리면서 시오리가 넘는 령길의 얼음을 무슨 수로 흔자 다 깨낸단 말이요.

《괜히 손이나 얼구지 말고 그만두라구.》

나는 보다못해 소리쳤소.

했으나 그는 막무가내였소. 더 커지는 도끼질 소리로 반박하는것 같았소.

저렇게 정 미끄러운델 몇군데 까놓고 또 올리밀자고 성화를 먹일가봐 덜컥 겁이 나더군. 그가 우기면 처음엔 뻔대다가도 나중엔 어찌지 못하고 그가 하자는대로 따라서군 하는 나였으니까. 항상 그랬소.

6년 1남의 남자 귀한 집 말사위로 들어온 그날부터 난 저 처남의 요구를 거절해본적이 거의나 없었소. 신혼살림때에는 처가 고우면 처가집을타리말뚝까지 고와보인다는 속담대로 안해 고운덕에 어린 처남의 자질구레한 청을 거절하지 못했고(내가 장가들 때 처남은 열두살철부지였는데 어떤뻔 나무꼭대기의 까치둥지를 털어달라는 때까지도 들어주어야 했소.) 처남이 크면서부터는

남자 귀한 집의 같은 사나이라는 공통점에서 그리고 처남이 군사복무를 마치고 온 다음에는 그의 존재가 조카벌에 가까운 처남이라는 종래의 관념을 넘어 어떤지 엄하게 생각되어 그의 요구에 무조건 응하게 되는 것이었소.

그날도 사실 내가 집에서 떠나오지 않으면 않는거였소. 그런데 처남의 요구속에 내놓고 거절할수없는 그 어떤 절대적인것이 있어 바로 그 힘이 슬그머니 나의 행동거지를 좌우지하였소.

(젠장 모르겠다 그러다 말겠지.)하는 생각으로 나는 운전칸에서 내려와 길옆에 불을 피우기 시작했소. 자동차고 몸이고 땀땀 얼었던거요.

응?! 무얼 싣고 어디로 가는 길이었는가? 아차, 내가 얘기순서를 그만 틀리게 잡았군. 얘길 중간에서부터 문득 시작했으니... 어찌했소. 난 숨쉴수 있는 이야기군이 못되오. 운전사로서는 숨쉴수 있다고 손으로 빼기지만 말이요.

그럼 우리가 왜 깊은 밤중에 얼음이 짝 얼어붙은 령길에 와 《싸움》을 하게 되었는가 그것부터 얘기하기요.

처남이 온통 얼음투성이가 되어가지고 우리 집에 뛰어들것은 밤 늦어서였소.

《아니?! 이 사람 창수(처남의 이름이었소.), 자네 도병원에 입원했다더니 어떻게 된 일인가?》

금방 잠들가말가 할 때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면서 개가 짖길래 선잠을 깨고 뒤미처 안해뒤에 묻어들어온 그를 보고 깜짝 놀란 내 입에서 불쑥 튀어나간 말이었소. 그럴만도 한것이 제대후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도담사관리국에 배치받은 처남이 해빛덕너머 탐사대에 내려와 살다싶이 하면서 자체발전소 물길굴공사를 하다가 떨어져 내리는 돌에 허리를 크게 상한것이 근간에 다시 도쳐 도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것이 달포전의 일이었소. 그래 한번 찾아가본다 하면서도 미처 시간을 내지 못해 속으로 불안하했는데 처남이 이렇게 아닌밤중에 홍두깨비처럼 불쑥 찾아온것이요.

《어떻게 되긴? 퇴원했대요.》

갑옷같이 되어버린 동생의 숨웃을 벗겨들며 안해가 받는 토라진 대답이었소. 안해는 내가 그한테로 면회를 가지 않은 이유를 잘 알고있었던거요. 그건 차차 말하기루 하고... 안해의 온몸지 않은 대답을 듣는 순간 나는 아차! 하고 속으로 이마를 쳤소.

장인도 없는 집안의 말사위라는게 하나밖에 없는 처남의 병이 더해져서 달포가 넘도록 병원생활을 하는데도 한번 찾아가보지 않았으니 본인은 둘째치고 장모한테 그리고 안해한테 만회할수 없는 죄를 졌구나 하는 죄책감때문이었소.

《좀더 입원해있을줄 알았는데...》하는 당췌는 변명이 금시 튀어나가려는것을 가까스로 삼켜버

리고 나는 물었소.

《그래 병은 다 나았나?》

《다 나았게 퇴원했지요.》

퍼렇게 얼어든 얼굴에 애써 웃음을 그리며 하는 처남의 대답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안해가 매몰차게 쏘아붙였소.

《다 낫긴 뭘 다 나아? 얼굴이 백지장갈애가지구.》

그러는지 누이를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니 빨리 밥을 지어달라며 부엌으로 쫓아내다싶이 한 처남이 나한테 차는 살았느가, 지금 어디다 세웠느가 하고 은근히 묻더니 하는 말인즉 지금 당장 화물역에 좀 가자는데 아니겠소.

《거긴 왜?》

너무도 뜻밖의 요구인지라 나는 뒤로 뉘름 물러앉으며 되물었소.

뜨끈뜨끈한 온돌방에 붙이고앉은 내 엉치밑에 얼음덩어리를 쑥 들이밀었다 해도 그보다는 덴겁하지 않았을거요. 그러는 나를 어딘가 다그어대는듯 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그가 하는 대답이 탐사대로 급히 실어가야 할 배전설비와 시추용배관이 화물역에 와서 이를째 묵고있다는 것이었소.

《배전설비라니? 그럼?》

나는 화물역에 가자고 했을 때보다 두굽 아니 세굽은 더 놀라 눈이 댕그래졌소.

그럴밖에... 아까도 말했지만 한창때 거기서 운전사로 일한적이 있는 나였거던. 그러다 거길 뺐는데 그 발전소로 말할것 같으면 내가 거기 있을 때부터 벌써 계획되어있을거였소. 전망도도 크게 그려 내걸고 공사를 시작해놓고는 어찌어찌하여 끝내 매듭을 짓지 못한채 중도반단된 것이었소. 해빛덕밑에 거대한 유색금속광물자원이 묻혀있었던 관측탐사설이 부정되네 그 원인이 있다고들 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부족되는 설비, 자체보장과 같은 어려운 조건때문이라고들 했소.

내가 그곳을 떠나 읍지구로, 솔직히 말하면 보다 안정되고 수입도 괜찮은 자그마한 운수사업소 운전사로 자리를 옮겨 앉은것이 바로 그무렵이었소. 별로 마음상 가책도 없이 말이요. 나말고도 떠나오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던거요.

그후 몇년동안은 탐사대고 발전소건설이고 잠잠해있었고 나역시 마음상 별로 후회된다거나 가책되는것이 없이 지냈소. 했는데 몇해전부터 해빛덕너머 그 높은 땅이 다시 움췌움췌 끓기 시작했소. 나는 그것을 막내처남을 통하여 알았소. 처남은 말이 관리국 부원이지 내내 해빛덕너머 그 탐사대에 내려가 살다싶이 했던거요.

제 자랑할줄 모르는데다 그곳이 어려운 때가 떠나온 땅이라는것을 고려하여서인지 처남은 그저 《시작되었다》는 정도로 말했지만 가고오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해빛덕너머가 날을 따라

몰라보게 변모되어 가고있는것이 틀림 없었소.

멈춰서있던 시추설비들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고 낮에 밤을 이어 새집들을 일떠세우는 톱질소리, 망치질소리가 그칠줄 모르며 덕우의 넓은 초원엔 염소떼, 양떼들이 구름처럼 늘어나고... 날을 따라 거세여지는 덕너머의 힘찬 격류속에 처남까지 뛰어들어 드달려다니기 시작하자 내 가슴속엔 괜히 떠나오지 않았나 하는 후회감비슷도 하고 정말 그렇게 잘사는 땅으로 전변되면 장차 그 땅을 다시 밟을 체면이 서지 않겠구나 하는 감정이 소리없이 밀려들기 시작했소.

바로 그 감정이 발전소물길굴공사를 지휘하다가 몸을 상하고 도병원에 입원해있는 처남한테도 선뜻 찾아가보지 못한 중요한 원인이었소.

그 땅을 위하여 한몸을 서슴없이 내댄 처남의 영웅적행동 그자체가 그 땅을 쉬이 떠나온 나에 대한 소리없는 비판이나 준엄한 질책처럼 아프게 생각되어서 말이요.

하여 남들은 환희로 부풀어오르는 가슴에 두손을 얹고 지켜보는 령너머 그 땅의 변혁을 불안하게 바라보며 날마다 몸이 수척해지는 처남을 될수록이면 피하고 나날이 희한한 소식이 보충되어 들려오는 그 땅의 모습을 외면하려고 몸을 도사리는 판국에 밤깊어 찾아온 처남이 바로 그곳으로 배전설비를 싣고가자니... 놀랄수밖에!

《그러니까 발전소를 다 세웠단 말인가?》

나는 무엇에 한방망이 맞은 사람처럼 풀기없는 어조로 물었소.

《예, 배전설비만 들여왔으면 전기가 짹짹 나올 겁니다. 게다가 시추배관까지 해결되었으니 이제 땅속 그 어디든 우리의 기계, 우리의 전기루 뚜룩뚜룩 할판입니다.》

제자랑할줄 모르는 그답지 않게 신이 나서 설명하는 처남의 대답을 듣고 앉아있자니 등골에서 서늘한 땀이 나는것 같았소.

(그런즉 아득한 《전망도속의 그림》으로만 생각했던 그 리상향이 현실로 펼쳐진단 말인가!)

그 순간 심장을 두드리는 내 마음의 목소리었소. 나는 어찌지 못하고 처남을 따라섰소. 모르겠소. 나를 일어서게 한 그 힘이 무엇이였는지... 어려운 때 버리고 온 땅에 처남의 부탁대로 그 집이나마 실어다짐으로써 그 땅에 진 마음의 빛을 던져보자는 《속죄의 감정》이 아니였을가? 아니, 그것은 그렇듯 수수한 《속죄의 감정》이 아니었소. 그속에는 정말 그렇게 되었을가 하는 의문과제 눈으로 한번 가보고싶은 야릇한 호기심같은것이 뒤섞인... 모순된 감정이었소.

바로 그래서 그 사나운 겨울밤에 해빛덕밀에와 처남과 싱갱이질을 하게 되었던거요.

2

아까 어디서 애길 뒤로 거슬렀던가? 오. 우등불...

우등불을 피워놓고 처남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으나 얼음 까는 소리는 점점 더 령 옷쪽으로 멀어져갔소. 저 우직스런 사람이 정말 혼자서 이 령길의 얼음을 다 까낼셈인가하는 생각이 들었소. 하지만 그건 어림없는 일이었소.

까다가 까다가 지쳐서 내려오겠지, 그러니 여기서 날밤을 때까지 우등불이나 피우고 앉아있을 수밖에...

운전칸 내 좌석밀에 감자 몇알 넣어둔 생각이 났소. 저 사람이 저녁밥도 굶었을텐데... (제 누이가 챙겨들여온 식사를 끝내 안하고 일어섰으니 까. 뭐, 누이가 이밤에 령을 넘는다는 소리를 들으면 야단을 하겠기에 그를 일켜세우느라고 배고픈 시늉을 했다나.) 말이 그렇지, 저녁밥을 못먹었거나 설쳤을게 뻔했소. 이제 그가 지쳐서 내려오면 군감자로 요기나 하고... 그러느라면 날이 밝을게고 날이 밝으면 무슨 수가 나질게 아니겠소. 뭐, 오늘날 날이요? 래일도 있고 모래도 있고 소털같이 많고많은 세월에...

차있는데로 가 얼음같이 찬 문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을 열어제끼던 나는 그만 깜짝 놀랐소. 저 쪽보조운전사좌석에 우두커니 앉아있는 검은빛의 커다란 물체가 눈에 안겨온때문이었소.

(?!)

첫순간 동작이 굳어졌던 나는 조심히 손을 내밀어 그것을 만져보았소. 무슨 마른 풀잎같은것이 손끝에 닿으며 버석버석하는 소리가 났소.

(으-웅?!)

그제야 나는 그것이 여기로 오는동안 처남이 그 무슨 보물단지처럼 내내 무릎우에 안고오던 배낭임을 알아보았소. 설비들을 다 실은 다음 차에 오를 때 처남이 안고오른 배낭이었소. 차를 타고오는 동안 소중히 안고오길래 뭐가고 물었더니 별게 아니라며 대답을 피하길래 더 물어보지 않았는데... 무슨 초약같았소.

(그러니 저 사람 병치료가 장기전으로 넘어갔구나.)

다 나왔다고 제 누이앞에서 큰소리치던 모습이 배낭을 무릎우에 소중히 껴안고 오던 모습과 엇갈려 떠오르면서 불쑥 예이는듯 가슴이 아파났소. 사람이 일도 일이지만 무엇보다 제 몸을 돌볼 생각부터 해야게 아니겠소. 성한 사람도 아닌데... 힘든 일에 마구 몸을 혹사하면서야 아무리 명약인들 무슨 효험이 있겠소.

나는 감자알들을 가져다 벌써 무드기 쌓이기 시작한 알밭밀에 묻어놓고 처남을 데려올 생각으

로 천천히 령을 오르기 시작했소.

뒤꿈이 돌아가니 처남이 내가 다가서는것도 못 느낀채 구뿔거리며 돌같이 팡팡 얼어붙은 얼음우에 도끼질을 해대고있었소.

나는 처남이 머리위로 높이 쳐든 도끼를 툭 잡았소.

처남이 돌아보더군. 놀라와 하는 눈치가 아니었소. 그러고보면 내가 올라오기를 기다리지 않았을가 하는 생각이 들었소.

《저 술한 얼음을 혼자서 다 까내겠다는건가?》

나는 그를 내려다보며 소리쳤소.

《까서 올라갈수 있다면 까야지요.》

처남이 도끼를 획 잡아채며 받는 말이었소.

아까 내가 뒤걸음쳐내려간데 대한 불만이 그 말속에 비껴있었소.

《굴째 까고 오르든 그냥 오르든 날이 밝은 다음에 보세.》

이번엔 도끼자루를 아예 뺏아쥐며 내가 말했소.

《날이 밝은 다음에?》 하고 나를 돌아보던 처남이 설레설레 도리머리를 젖는것이었소.

《날이 밝는다구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하늘에서 툭 떨어지는거야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래두 제힘으루 넘어야 할데... 우린 하루가 급합니다.》

《젠장, 소털같이 많고많은 세월에 하루를 잃으면 어떻게 얻으면 또 어떻다는건가?》

내 입에서 불쑥 튀어나간 소리었소.

순간 나를 쳐다보는 처남의 눈속에서 불꽃같은 것이 번쩍하더군.

《그렇게 생각하니까 지금껏 그렇게 앉아몽개고 있지요.》

내 손에서 도끼자루를 뺏으며 던지는 처남의 말이 비수처럼 내 감정을 찔렀소.

《뭘, 뭐라구?》

한밤중에 자기를 도와주려 잠자리를 털고 일어나 예까지 따라나선 나이많은 사람한테 하는 말치고는 너무나 혹독한것이었소. 그래 한마디 하려고했으나 어찌선지 합당한 말이 떠오르지 않았소. 억이 막혀 씹씹거리는 나를 바라보던 처남이 《내말이 지나쳤다면 용서하십시오.》 하고는 천천히 령길로 올라가기 시작했소.

《어델 가나?》

《답사대에 넘어가 사람들을 데리고 올테니 때부 내려가 차를 지키시우.》

젠장! 나는 손을 뻗 내젓고는 돌아서서 내려오고말았소. 하늘소발통같은 고집에 진저리를 치면서 말이요.

그새 꺼져앉은 불을 다시 쌓아올리고 그앞에 쭈그리고 앉았소.

우-우-

짜라락-

세찬 바람결에 날려 온 얼음조각같은 눈덩이들이 차의 앞시창을 때리는 소리가 아즈럽게 귀전을 울렸소.

나는 저도 모르게 자라목이 되어 불앞으로 바투 다가앉았소.

딱!

짜자작-

골짜기 아래쪽에서 언나무아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려왔소.

어제 아침나절동안 물기를 잔뜩 머금은 진눈가비가 내린 뒤에 씻은듯 하늘이 개이면서 한여름날처럼 돌방으로 쏟아져내리는 뜨거운 태양별에 겨우내껏 녹지 않은채로 쌓였던 묵은 눈과 진눈가비가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바람에 대지가 땀이라도 철철 흘러듯 온통 번들번들 젖길래 이렇게 겨울이 문득 끝나고 봄이 오는가부다 했었소. 한데 웬걸, 밤이 들자 영영 물러가버린줄 알았던 겨울장군이 얼른 되돌아와선 낮동안 봄아씨가 더운 입김으로 휘글글히 적서놓은 모든것을 되얼려버렸소.

갑작스레 닥쳐온 봄의 첫 입김에 온 겨울동안 도사렸던 몸을 풀어놓고 한껏 기지개를 켜보려했던 산천이며 날고 기는 갖가지 짐승들이며가 이크! 하고 다시 움츠러들었던 말이요.

물러가면서 마지막독을 쓰는 늦겨울추위요. 점점 더 기승을 부리는 새벽바람질이었소.

나는 새벽이 가까와오면서 더 혹독하게 엄습해오는 추위를 잔등에 진채 불앞에 바투 다가앉아 잠을 청하려 했소. 그런데 《지금껏 그렇게 앉아몽개고 있지요.》 하던 처남의 말이 귀전에 뱅뱅돌면서 갑자기 속이 울컥해났소. 그 말인즉 오늘의 일만을 녀두에 두고 하는 소리만이 아니었소. 내가 중도에 해빛덕을 내려온것에 대한 비난도 깔려있는듯 했소.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오랜...

하염없이 타오르는 우등불을 그리안기라도 할듯이 바투 마주한채 두무릎을 곤두세우고 그우에다 두팔을 파리처럼 깎지끼여 었은 다음 머리를 틀어박고 곰곰히 생각을 더듬는 나의 귀전에 《때부! 때부!》 하고 찾는 처남의 목소리가 멀게 들려왔소.

그 소리는 령을 넘어 가버린 지금의 처남목소리가 아니었소.

그것은 내가 장가를 든 그해 늦여름, 열두살에난 어린 처남의 겹에 질린 목소리었소.

그때 난 스물여덟에 난 새서방이었소.

한결 투명해진 대기로 하여 더없이 신선하고 상쾌한 느낌을 자아내는 가을해빛이 몇가닥 겨우 비쳐내리는 깊은 숲속의 어둑시근한 다래덩굴밑에 난 누워있었소.

20년전의 바로 그 숲이었소.

《매부! 매부!》

처남의 목소리가 금시 울음에 먹히듯 점점 애처롭게 들려오다가 한동안 잠잠하더니 《매부, 어디 갔나요?》하는 원망에 찬 부르짖음소리와 함께 울음으로 변해버렸소.

지난봄 해빛덕너머 탐사대마을로 이사해간 우리집으로 따라가겠다고 자꾸 조르는 바람에 데리고나선 처남이었소. 령을 오르다말고 잠시 숨을 돌리는 사이에 다람쥐니 청서니 어지니... 난생 처음보는 산짐승들에 끌려 무서운줄도 모르고 뛰여다니는 녀석을 끌려주느라고 숨은것인데 장난이 너무 지나친것 같았소. 충충 두터운 그물을 짜며 높이 들리운 숲사이로 쪼각쪼각 올라다보이는 연두빛의 가을하늘을 쳐다보며 빙긋이 웃던 나는 벌떡 일어났소. 다래덩굴너머에서 겁이 질린 눈으로 어둑침침한 숲속을 두릿두릿 살피던 처남이 입귀를 실룩거리며 돌아서더니 산을 내리기 시작했소. 어디론가 숨어버린 이 매부를 찾을 생각을 단념한것같았소.

《창수야!》

나는 벌써 저만치 내려간 그를 소리쳐부르며 황급히 덩굴밑을 빠져나왔소. 경황없이 산을 내리던 처남이 우뚝 멈춰서더니 후후 느껴울던 울음을 툇 그치고 뺨 돌아서는게 아니겠소. 눈물범벅이 되어버린 얼굴에 잔뜩 실렸던 공포의 빛이 일순간 사라지고 밝은 웃음같은것이 확 피었다가... 서서히 꺼지더니 뺨 하고 돌아섰소. 뺨글거리며 따라오는 이 매부란 작자의 얼굴에서 저를 끌려주느라고 《숨박꼭질》을 했다는것을 다 읽은 모양이었소.

《창수!》

나는 능글맞은 웃음을 거두고 재차 소리쳐부르며 따라갔소.

처남은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산을 내리는것이였소. 단단히 골난 모양이었소. 나는 달리다싶이 하여 그를 따라앞섰소. 앞을 막아선 내 얼굴을 원망에 찬 눈으로 힐끗 쏘아보던 처남이 그 무슨 바위나 나무등걸을 에돌듯이 내옆을 지나가려는것이였소.

순간 그의 팔을 덥석 잡았소.

《놓으라요, 씨.》

힘껏 잡아채는, 새다리같이 연약한 그의 팔에서 강한 적의같은것이 선명하게 느껴졌소.

《너 왜 그러니?》

《씨, 사람을 끌리면서... 난 집에 돌아가겠어요.》

《아니다, 난 너를 끌려준게 아니였다. 난... 저 다래덩굴밑에 들어가 누웠다가 그만 깜박 잠들었다. 정말이다.》

나는 황황히 변명했소.

《그러지 말고 어서 가자. 저 령만 넘어가면 된

다. 이젠 다 왔다.》

《안갈래요. 싫어요.》

처남은 땅을 딛고선 발끝에 힘을 주며 고집을 부렸소.

《가자니까. 가면 맛있는거 많다. 돌배두 있구...》

《쳇 거짓말, 돌배나무랑 봄에 요만한거 심었다구 하구선.》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처남이 잔뜩 의문실린 눈으로 쳐다보며 반박하는 말이였소. 순간 나는 좀 당황했소. 그의 반박이 사실이었던거요. 우리 집 과일나무란 지난봄에 이사해간 다음 앞뜰과 뒤울안에 대여섯그루 떠다심은 어린것들로서 그것들이 자라서 열매를 맺자면 몇년은 잘 걸려야 했던거요. 한것을 녀석의 마음을 돌려세우고 입에 오르내대로 한마디 했는데 처남이 야박스레 절고든것이였소.

《우리 집 돌배나무들은 아직 어리지만 마을뒤 산에는 큰 돌배나무들이 많단다. 그걸 따다주겠다는 소린데 넌 괜히 까박을 붙이는구나.》

《그래요?!》

하며 나를 쳐다보는 처남의 눈에서 반짝 하고 밝은 빛이 뿜어져나왔소. 무엇인가 끌린다는 소리였소. 나는 그의 마음을 더욱 세게 꿰구질하기 시작했소.

《가자 가면 맛있는것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우리 집앞에서 조금 나가면 까마득하게 높은 다리가 있는데 그저 다리가 아니라 발전소 언제우로 건너가는 다리란다. 얼마나 높은지 그우에 올라서서 언제아래를 내려다보면 비행기를 탄것처럼 물놀이하는 아이들이 개미만큼 작게 보인다.》

《정말이냐요?!》

처남의 눈에 이번에는 반신반의의 빛이 실렸소.

《정말 아니면.》

나는 자신있게 대답했소. 그래야 동요하는 그의 마음을 령너머로 이끌어갈수 있었기때문이었소.

《나두 가면 수영할수 있냐요?》

호기심이 바짝 동한 처남이 따지는 투로 묻는 말이였소.

《있지 않구, 헌데 너 헤엄칠줄 아니?》

《잘 몰라요.》

《그래 그럼 못하겠구나. 물이 꽤 깊단다.》

나는 다행으로 생각하며 대답했소. 사실 내자신이 처남한테 굉장한 거짓말을 하고있었던거요.

물론 우리 집에서 조금 나가면 다리가 있었소. 헌데 우리 집앞으로 흐르는 퍼그나 넓은 강우를 건너지른 그 다리는 내가 말한것처럼 멋있는 발전소언제다리가 아니라 보잘것 없는 나무다리였

소. 물론 발전소도 아직은 없었소. 그 모든것은 해빛덕너머에 전망이 매우 큰 유색금속광맥이 묻혀있다는 관측탐사결과를 확정하기 위하여 시추탐사를 기본으로 하는 규모가 꽤 큰 탐사대가 들어앉으면서 새로 일떠선 탐사대마을입구에다 큼직하게 세운 대형전망도에 그려진, 이를테면 그림속의 발전소언제 다리였던거요. 탐사가 끝나고 탐사대가 옮겨간 다음에는 보다 더 큰 광산거리가 들어앉을것으로 구상하고 설계한 발전소였고 아직 본격적인 건설에 들어가지는 못했었소.

《그러니까 저건...》하고 처남이 우리의 머리우, 높은 산너머로 아득하게 흘러간 고압송전선을 손으로 가리켜보이며 진지한 표정을 짓고 묻는것이었소.

《매부네 그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를 실어나르는 전기줄이나요?》

나는 너무나도 뜻밖의 질문에 그만 당황했소. 하지만 일단 내친 거짓말인지라 말끝을 얼버무리며 그렇다고 대답하는수밖에 없었소.

《가면... 발전소에서 전기가 나오는것을 볼수있나요?》

아마 전기라는 물건도 파자나 빵처럼 제품이 되어 쏟아져나오는 모양을 볼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소.

《그래그래, 볼수 있구말구...》

나는 속으로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거렸소. 그럴수록 처남은 더욱 진지한 태도를 지었고 그에 재미를 느낀 나는 련속 없는 자랑을 만들어 섭겼소. 탐사대마을 뒤편에는 무연한 풀밭이 끝간데 없이 펼쳐져있는데 거기에는 염소, 양, 젓소떼들이 구름처럼 무리지어 흐르며 2층짜리 학교앞 넓은 공원에는 크고작은 새둥지를 나무마다 만들어 놓아

갖가지 아름다운 새들이 날아들고 발전소저수지에는 물고기떼가 유유히 헤엄쳐다니고... 나는 눈앞에 그려지는대로 신이 나서 자랑했소. 아니, 그 모든것이 허황한것은 아니었소. 전망도속에 다 그려져있는것이었소.

그러므로 비록 지금은 거짓말로 되겠지만 언젠가는 현실로 꽃피날것이었소. 나는 그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소.

《매부 빨리 가자요, 빨리요.》

어린 처남은 오히려 나를 재촉하는것이었소.

사람이란 이런거요. 그가 어른이든 어린애이든 넘기 힘든 령이나 헤치기 어려운 시련같은것을 앞에 두었을 때 그너머에서 자기를 기다리고있을 휘황하고 달콤한 그 무엇을 상상하게 되면 그것을 넘어가는 걸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법이란 말이요. 나 역시 마을입구에 높이 세운 그 전망도 앞을 지나갈 때면 그림으로만 존재하고있는 그 희한한 전망이 현실로 펼쳐진 《래일》의 한복판

에 선듯 마음이 흥그려워지고 걸음이 빨라지곤 했던거요.

지루하지 않다면 하던 얘기를 계속하지.

3

전망도속의 그림자랑에 속아 달싹달싹 앞서 걷는 어린 처남의 뒤를 따라 걸으면서 난 이제 령을 넘어간 다음 처남한테서 당하게 될 《공격》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하지 않았소. 앵돌아진 그의 마음을 돌려세워가지고 령을 넘어가기만 하면 그 만이라고 생각했던거요. 거기 가면 그 애를 끔찍이 귀애하는 누이가 있고 누이를 만나면 내 거짓말자랑같은것은 말끔히 잊혀질것이기때문이었소.

하지만 누이를 만난 기쁨속에서도 처남은 그것을 잊지 않았소. 내가 자랑한 그것들이 어데 있는가고 들이대는것이었소.

나는 말없이 그를 데리고 마을앞 전당도 있는 데로 갔소.

《자 이것이 우리 탐사대지구의 래일이다. 이제 탐사대가 탐사를 마치고 새로운 광맥을 찾으러 떠나간 다음에 이곳에 들어앉게 될 새 광산지구의 먼 래일이기도 하지.》

그제서야 속히운것을 알아차린 처남은 그 자그마한 주먹으로 나의 배허벅을 마구 때렸소.

《그러니까 나한테 거짓말을 했군요》

《왜 거짓말이겠니? 이제 두구봐라 이것들이 다 현실로 되어 네 눈앞에 펼쳐지는걸.》

신심있게 장담하는 내 말에 처남의 눈속에 어렸던 실망의 빛이 씻은듯 사라졌소.

《그럼... 이걸 다 매부랑 건설하나요?!》

처남이 회한해하는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며 물었소.

《아무럼!》

나는 힘들지 않게 대답했소.

그러자 처남은 제법 심중한 얼굴로 그림속의 먼먼 래일의 광산지구를 한참동안 들여다보는 것이었소. 아마 그림속의 《래일》을 현실의것으로 상상해보는것 같았소. 아니, 지금 생각해보면 어린 처남의 그 심중한 눈빛의 의미가 결코 그것만 이 아니었소...

탕, 탕, 탕, 툅, 툅, 툅...

누군가 발을 터는 소리에 나는 눈을 떴소. 꿈처럼 눈앞을 흘러가던 옛 추억은 사라지고 하얀 빛이 눈을 찔렀소. 어제밤 끝내 넘지 못한채 주저앉은 령너머에서 흘러오는 새날의 찬란한 아침 빛이었소. 아직 먼지 한점 떠오르지 않은 길은 숲머리우로 비쳐오는 맑고 깨끗한 새벽빛이 대지를 짙은 흰 눈이불에 부딪쳐 그렇듯 눈이 부신것이었던거요.

《말 좀 물읍시다, 아바이.》

뒤쪽에서 들려오는 누군가의 목소리에 나는 그냥 앉은채로 상반신을 돌렸소. 성애가 하얗게 불리어 흡사 흰곰을 연상시키는 두사람이 차결에 서있는것이였소.

《동무넌 무슨 사람들이요?》

하늘에서 똑 떨어진것처럼 불쑥 나타난 그 두 사람에게서 눈길을 떼지 않은채 나는 물었소.

《차에 실은것이 혹시 우리 탐사대 설비들이 아닌가 해서...》

스물두셋 나보이는 뒤의 젊은 사람이 적재함을 돌아보며 자신없이 하는 말이었소.

(우리 탐사대?!)

나는 그들이 차에 실은 설비와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소. 하지만 긍정도 부정도하지 않고 먼길을 걸어온듯 턱밑까지 바투 올리쳐온 두툼한 솜옷의 목깃털오리며 털모자의 가장자리, 지어는 눈섭에까지 하얗게 성애가 불린 그들의 모습을 훑어보기만 했소.

《뭐가 타는군요.》 나이많은 사람이 스적스적 다가오며 하는 말이었소. 정말 고소한 냄새가 풍겨왔소. 아차! 그제서야 불밑에다 감자 몇알을 파 묻은채 졸음을 청하던 생각이 든 나는 나무꼬챙이로 재무지로 변해버린 불터를 찌르기 시작했소. 새까맣게 탄 감자알들이 데굴데굴 굴러나왔소.

《불을 좀 쪼두 될가요?》

나이많은 사람이 곁에 다가서며 량해를 구했소.

나는 자리를 조금 물러앉은것으로 그 말에 응해주었소. 그러자 나이많은 사람은 내옆에 앉고 젊은 사람은 앉으려다 말고 길옆에 내려서더니 마른나무가지들을 주어모으기 시작하는것이였소.

《그러니까 지금 령을 넘어오는 길이요?》

령 웃쪽을 바라보며 묻는 나의 물음에 그는 도리머리를 저었소.

《아닙니다.》 하고 그는 차를 바라보며 말했소.

《저 설비들이 화물역에 도착했다는 통지를 받고 령을 넘어온것은 그제 아침이였습니다. 그런데 설비를 실어다주게 된 관리국차가 눈에 길이 막혀 넘어오지 못하는 바람에 가까운데서 차를 구하느라 여기저기 뛰어다니다가 어제밤 깊어서야 한대구했지요. 그래 끌고갔더니 새 대장동무가 몇시간전에 와서 싣고갔다질 않겠습니까.》

《새 대장이라니?!》

《신창수 관리국 부원동지 말입니다.》

《그가 대장이 됐소?》

《예.》

《음-》

《병원에서 그 소식을 듣고 대장동문 퇴원해나 오자마자 곧장 화물역부터 들린 모양입니다. 원래 그런 성미니깐요. 어쨌든 새 대장동무한테 머리큰것이 먼목이 없게 되었습니다.》

(대장이 되었다?! 처남이...)

머리속에 풍선처럼 둥둥 떠도는 생각이었소.

나이 서른이 넘도록 처녀 볼 생각도 잊고서 일만 일이라고 뛰어다니더니 총각의 몸으로 중한 일을 맡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소.

《그런데 아바인 어떻게 되어 우리 설비들을 싣고 옵니까?》

삭정이를 한아름 안고온 젊은 사람이 불무지우에 그것들을 던져넣으며 묻는것이였소.

《모르겠소. 나도 무슨 도깨비한테 홀리웠는지 임자네 새 탐사대장인가 하는 량반의 성화에 못이겨 끌려나와 밤새껏 이 고생 아니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 대장동문 어데 갔습니까?》

《길이 미끄러워 못 가겠다니까 임자네 탐사대 사람들을 데려오겠다면서 령을 넘어갔네. 무슨 사람이 그렇게 고집불통인지... 원.》

왜 그렇게 통명스러운 대답이 불쑥 튀어나갔는지 나로서도 알수 없었소. 모름지기 처남이 어제 밤 늦어 집에 찾아왔을 때 자기가 탐사대대장이 되었다는 말을 왜 진작 해주지 않았을가 하는 섭섭한 생각때문인것 같았소. 아니면 관리국 부원의 직분을 가지고도 저몸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모르고 뛰어다니던 사람이 그처럼 무거운 책임을 도맡아 걸머지고 몸이 꽤 견뎌낼가 하는 걱정때문인지도 몰랐소.

《그런데 동무네 새 대장이라는 사람이 일을 제대로 해내겠소?》

처남의 건강치 못한 몸상태가 걱정스러워 한마디 한다는 노릇이 왕청같은 질문으로 되었소.

순간 두사람의 눈길이 동시에 나를 쳐다보는데 옆에 앉은 나이많은 사람의 어딘가 순박해보이는 눈과 마주앉은 젊은이의 매우 영특해보이는 눈에서는 똑같은 빛이, 이를테면 《우리 대장동무 어떻게 보구 하는 소리요?!》 하는 힐책의 빛이 뜨겁게 뿜겨져나오는것이였소.

《서른이 넘도록 장가도 들지 못한 사람이 돼서 하는 소리요.》

나는 그들의 눈빛을 후덥게 느끼며 변명했소. 그러자 그들의 눈에 어렸던 힐난하는듯 한 빛이 어이없어하는듯 한 빛으로 변하는것이였소.

《총각이 어째서요?!》

젊은 사람이 반발하듯 말꼬리를 붙잡더니 나이 많은 사람을 건너다보며 말을 이었소.

《그 총각부원한테 떡돌같은 아들이 셋이나 되는 이 직맹부위원장동지도 껌짝을 못하는데두요.》

《내가 껌짝 못하긴 뭘...》

뜻밖에 옆구리를 찔리운 직맹부위원장이 얼굴이 벌개지며 그를 흘려보는것이였소.

《전망도때문에 당한 〈봉변〉은 뭘 껌짝한겁니

까?)

젊은 사람이 더욱 바투 밀고 들어갔소.

《전망도때문에》라는 말마디가 별스레 나의 고막을 때렸소. 이자 금방 꿈속에서처럼 떠올랐던 오래전의 《전망도사건》때문인지 하여튼 왜선지속이 뜨끔해나는것이였소. 그래 젊은이에게 껌질을 벗겨든 군감자를 권하며 그 이야기를 자상히 하도록 유도했소. 한데 이야기는 그런 소린 왜 꺼내느냐고 젊은이에게 눈총을 쏘던 나이많은 직맹부위원장이 하는것이였소. 그가 해준 이야기는 이러했소.

4

탐사관리국 부원으로 배치받아온 처남이 다시 일떠서기 시작한 해빛덕탐사대에 발을 들여놓자 처음으로 발기한것이 뭐였는가 하면 전망도를 크게 그려 붙이는 사업이였다오.

그래 원래부터 그림그리는 솜씨가 있어서 직관 사업을 도맡아하는 직맹부위원장이 회관홀에 펼쳐놓고 며칠째 째깍이 그렸다는만. 그런데 회관이 학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다보니 학교로 오가던 조무래기들의 성화가 이만저만 아니었다는 거요. 하루수업을 끝내고 집으로 가는 길에 홀이 째 메도록 모여들어가지고는 저마끔 쫓고 까불고 했다는거요. 직맹부위원장이 그림그리는 솜씨를 보는 재미보다는 자기네 탐사대마을에 미구하여 일떠서게 될 희한한 새 풍경들을 보는 것에 취해서들 말이오.

한데 이젠 그저 저들끼리 쫓고 까부는것으로 그치는것이 아니라 와보는 녀석마다 《이건 뭐냐요?》, 《저건 뭐냐요?》하고 마구 퍼부어대는 질문소나기에 일일이 대답할래기 입이 아플 지경이였다누만.

《일국이 아버지, 저 새마을은 언제 건설되냐요?》

《모르겠나.》

《공원은요?》

《모르겠나니까.》

《경기장은요?》

《이녀석들 모르겠는데 왜 자꾸 시끄럽게 구는거냐?》 《빨리 뿔이랑 차면서 놀구싶어서 그래요.》

《녀석들, 공부할 생각들은 앓구 그저 놀 생각들뿐이로구나.》

《저 발전소가 건설되면 정전이 안되냐요?》

《그럼 전길 쓰고도 남게 되지.》

《그래요?! 아! 언제 다 건설되냐요?》

《한 5년 아니, 6~7년만 기다려라.》

《저거... 그렇게 오래요?!》

《그럼 우리가 군대나갈 때까지두 안되겠구나.》

풍선처럼 잔뜩 떠올랐던 아이들의 목소리가 일시에 김빠진 소리처럼 푹 가라앉아버렸소.

일은 이때 일어났소.

《아니다.》

등뒤에서 울리는 뜻밖의 목소리에 뻔당게 질문 소나기를 퍼붓던 끝에 아주 실망해버린 조무래기들도, 시답잖게 대답하며 그림을 그리던 직맹부위원장도 얼결에 뒤돌아보았소.

젊은 관리국 부원이 서있었소.

《너희들 지금 몇학년이냐?》

애들에게 그가 물었소.

《소학교 3학년입니다.》

《그럼 너희들이 중학생이 될 때 발전소도 돌아가게 된다.》

《그래요?》

《경기장이랑 공원이랑도 그때쯤이면 다 건설된다.》

《아저씨, 정말이냐요?!》

《정말이다. 그리니 너희들 공불 잘해야 한다. 여기서 아저씨가 그림 그리는데 자꾸 방해하지 말구.》

와- 하고 아이들이 흩어져간 다음 젊은 관리국 부원은 직맹부위원장의 손에서 붓을 빼앗았소.

《부위원장동문 이 그림을 왜 그리는겁니까?》

의아하여 쳐다보는 부위원장에게 처남이 묻는 말이었소.

《왜 그리다니?! 사람들에게 래일에 대한 희망과 신심을 안겨주기 위해서지요. 말그대로 전망도가 아니요.》

《아닙니다.》

처남이 잘라말했소.

《전망도는 단순히 사람들에게 그 어떤 희망과 신심을 주기 위한 선전물이 아니라 몇년안으로 우리가 기어이 가닿아야 할 목표이구 과제이며 미래와 하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매일 매 시각이 앞에서 자신을 다잡고 자기의 마음을 채찍질하며 모두가 그 약속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 이것을 그려 내다세우는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부원동문 이자 애들한테 말한것처럼 모든것이 몇년어간에 현실로 될수 있다고 믿는다는거요?》

부위원장이 정색하여 물었소.

《믿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젠 꼭 현실로 될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현실로 만들어야 합니다.》

《무슨 힘으로?!》

《우리 힘이지요. 나와 부위원장동무 그리구 이해빛덕 전체 사람들 모두의 힘으로 말입니다.》

젊은 부원은 신심에 넘쳐 말했지만 부위원장은 그것을 믿지 못했소. 해빛덕사람들 힘만으로는 너무도 엄청난 래일의 전망이었던거요.

하지만 온 탐사대가 마을 한복판에 그것을 내

다세운 다음부터 달라붙어 해제끼는걸 보고는 믿지 않을수 없었소. 언제공사, 물길공사, 공원꾸리기, 운동장담기... 그 모든것이 립체전의 형식으로 동시에 진행되었는데 관리국 부원은 한달이 멀다하게 신발을 갈아신으며 뛰어다녔다오. 관리국에서도 물심량면으로 그들을 도와나섰다오.

그러던 어느날 물길굴뚝기공사가 난관에 부딪혔다오. 언제 꺼져내릴지 모를 위험구간이 앞을 막아나섰던거요. 하자거니, 못한다거니. ... 론의가 분분했는데 그때 장마철이나 넘기고 보자며 물러서려는 사람들앞에서 처남은 말했소.

《언제인가 여기 탐사대사람이 마을앞에 세워져 있는 전망도속의 그림을 실지 있는것처럼 자랑하며 이 해빛덕너머로 나아온 소년을 데리고 왔던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이 커서 군데에나갔다 제대되어왔을 때에도 그가 자랑하던 전망도속의 그림은 현실로 이루어지지 못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또 여기서 주저앉으면 저전망도를 세우면서 탐사대마을을 어린 소년들과 한 약속을 또다시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동무들, 생각해보시오. 우리가 마을 한복판에 그려 내세운 전망도가 어찌 탄광마을 아이들과만 한 약속이겠습니까? 그것은 조국의 미래와 한 약속, 경애하는 장군님앞에 다진 맹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날 언제 봉락될지 모르는 위험개소앞에서 사람들에게 처남이 들려준 이야기가 뭔지 아오?

병사시절에 겪은 이야기였다오.

신입병사훈련을 마치고 중대로 배치받아가니 깊은 산골짜기 집 한채 없는 곳에 《제8중대》라고 쓴 말뚝만 덩그러니 박혀 있더라는거요. 8중대만이 아니라 한개 연대가 바로 그렇게 말뚝으로만 표시되어 있더라는거요. 하루밤사이배 배비변경하여온 연대의 새 전투구역이었소. 골짜기 한중간에 모두들 볼수 있도록 커다랗게 그려놓은 대형전망도를 보고서야 이제 세워야 할 병영이며 그리고 고개너머에 건설하게 될 자체발전소며를 그려볼수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이 한적한 산골짜기에 과연 저렇게 크고 희한한 현실을 언제, 어떻게 창조할수 있을가 하는 아득한 생각부터 앞서더라는거요.

보기는 희한하고 멋있는데 이루어내자면 아득해보이는 그림앞에서 발길을 떼지 못하는 그의 가냘픈 어깨우에 누군가의 역세고 큼직한 손이 놓였소. 돌아다보니 연대장동지였소.

《어떻소 젊은 병사동무?》

연대장동지가 묻는 말이었소.

《멋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그렸습니까?》

《내가 그렸소.》

《연대장동지가 말입니까?》

이리로 배비변경을 해올 때 내내 병사들과 꼭

같이 도보로 행군해온 연대장을 젊은 병사는 황홀하게 쳐다보았소.

《왜 믿어지지 않소? 이래봐두 내 중학교때 당당한 미술소조원이었소.》

《그렇습니까?! 그런데 연대장동지, 한가지 물어볼수 있습니까?》

《물어보시오.》

《이걸 누가 지어줍니까?》

병사시절부터 지금까지 남이 지어주는 집에서 호강해보지 못한 전형적인 군인인 연대장한테는 뜻밖의 질문이었지만 처남으로서는 자연히 내뱉은 물음이었소. 어릴적에 바로 것처럼 희한한 전망도앞에서 거짓말쟁이 매부가 그 전망도속의 모든것을 제가 해낼것처럼 어렵지 않게 장담하던 그 모습이 처남으로 하여금 그렇게 질문하도록 했을것ियो. 처남은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는것을 끝내보지 못한채 군대로 나갔던거요. 《이상한 질문》을 하는 젊은 병사를 생각깊은 눈길로 더욱더 바라보던 연대장이 그의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소.

《동무와 나, 우리 연대 모든 병사들의 손으로 건설해야 하오. 그것도 빠른 기간에 말이요.》

《우리 손으로 말입니까?》

놀라 쳐다보는 젊은 병사에게 연대장은 계속했소.

《그렇소. 우리 손으로! 제 손으로 하겠다고 나서면 이 손이 무엇이든 다 만들어내지만 남을 쳐다보며 이 손을 내밀면 십년이 가도 맨손바닥밖에 바라볼게 없거던.

어떻소, 병사동무. 매일 이 전망도앞에서 연대군인결기모임이 있는데 한번 토론해보지 않겠소? 우리의 이 손으로 기어이 해내자고 호소 해보란 말이요. 그러면 구대원이나 지휘관들의 호소보다 더 심금을 울릴거요.》

연대장동지의 고무에 추동되어 다음날 군인결기모임때 처남은 연단에 달려나가 우리의 손으로 전망도속의 황홀한 그림을 현실로 펼쳐놓자고 호소했다는거요. 젊은 병사의 호소에 지휘관들, 구대원사관들, 부대의 모든 병사들이 주먹을 높이 쳐들고 호응해나섰다오.

한해반후엔 전망도를 더이상 세워둘 필요가 없게 되었소. 풀과 나무와 바위와 물밖에 없던 산골짜기에 그림속의 모든것이 그림이상으로 현실화되었던것이요.

하지만 결코 쉽게 이루어진 현실은 아니었소. 가슴아픈 희생도 있었는데... 바로 그 연대장이 높은 산중턱으로 발전소 물관을 끌어올리는 전투를 지휘하다가 아차하는 순간 미끄러져내리는 물관밑에 몸을 날려 술한 전사들을 구원하고 희생되었다는것이였소. 마지막순간에 연대장은 정치위원동지의 손을 꼭 잡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 꼭 완공의 보고를…》하고는 눈을 감았다 오.

동무도 눈물이 많구만! 그날 나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며 부위원장이라는 사람도 울더군. 하지만 눈물을 씻소. 자기의 한몸을 아낌없이 바친 영웅적희생에는 바친것이상의 위대한 영광이 따르는법이요!

이듬해 친히 부대를 찾아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부대장병들이 남모르는 곳에서 소문없이 큰일을 해놓았다고, 최고사령관이 일단 결심하면 우리는 무조건 한다는 정신으로 달라붙어 끝까지 해내고야마는 이것이 바로 혁명적군인정신이고 조국수호전에서도 강성대국건설대전에서도 우리는 이와 같이 죽음을 각오한 사람 당할자 이 세상에 없다는 결사의 희생정신을 발휘하여 모든 난관과 시련을 용감하게 뚫고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 련대장에게 공화국영웅칭호를 수여하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셨다오.

…처남의 이야기가 끝나자 둘러앉았던 사람들 모두가 말없이 일어서서 봉락위험구간으로 달려갔소.

런 이틀동안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끝에 마지막구간을 막아나섰던 제일 큰 장애물을 돌파했소. 한데 그 마지막돌격전에서 처남은 떨어져내리는 돌이 몸을 상하고 쓰러졌던거요…

《아바이, 우리도 마을 한복판에 내다세운 전망도를 내리울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대장동무네 그 련대군인들처럼 말입니다.》

이야기를 마치면서 부위원장은 자못 확신성있게 선언하는것이였소.

그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나는 몇번씩이나 몸을 흠칫흠칫했는지 모르오. 처남이 겪은 모든것, 처남이 한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다 나에 대한 비판으로 뜨끔뜨끔하게 속을 찌르고들었기때문이였소.

이야기가 끝나자 나는 생각이 깊었소. 아니, 하루를 잃으면 어떻게 얻으면 또 어떻다는거나 하고 발끈해하는 나에게 그러니까 지금껏 그렇게 앉아몽겐다며 뽕뽕하게 편잔을 주던 처남의 목소리가 다시금 귀전에 울려오면서 무엇인가 생각하고싶었소. 내가 걸어온 인생의 자욱자욱을 놓고 말이요.

하지만 그러지 못했소. 이야기를 마친 그가 움쭉 일어섰던것이요.

《아바이, 아무래두 우린 좀…》

직맹부위원장이 령 옷쪽을 쳐다보며 량해를 구했소.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도 초조한 눈빛으로

그쪽을 쳐다보곤 하던 그였소.

그들 두사람이 나의 시야에서 금방 사라졌을가 했을때 령 옷쪽에서 왁작 떠들어올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소.

5

친구, 내 이야기가 지루하지 않소? 그렇지 않다?!

거짓말! 난 장거리운전사여서 그런지 이야기하는 숨씨도 항상 장거리요. 그러니 조금만 참아주소. 장거리은행길에서 운전사한테 제일 싫은게 뭘지 아오? 이렇게 옆에 태우고 가는 사람이 눈을 감고 잠을 청하는거요. 그럴 땐 한대 툭 박아주고싶어진단 말이요 허허. 이젠 룡말이고…

령 옷쪽에서 금방 들려오기 시작한 소리가 여럿이 서로 부르고 화답하는 소리, 삽이나 쇠붙이 같은것으로 언땅을 쪼아대는 소리로 점점 분명해졌소. 나도 차에 늘 싣고다니는 삽을 찾아들고 늦게나마 그리로 올라가려고 했소. 하지만 그러지 못했소. 아니 그럴수가 없었소. 나와 처남 둘이서 떠났고 새벽녘에 직맹부위원장과 젊은이까지 넷으로 불어난 우리 일행에 다섯번째사람이 나타났던것이요. 그 다섯번째사람은… 뜻밖에도 녀성이였소.

《저… 말 좀 물읍시다.》

불자리를 거두고 제각 따라서려고 자리에서 일어서던 나는 등뒤에서 들려오는 맑고 부드러운 녀자의 목소리에 동작이 굳어졌소. 돌아보니 바로 내뒤에 처녀가 서있었소. 나이가 어지간히 차보이는 그때문에 범접하기 어려운 도고함이 은근하게 풍겨오는 처녀였소.

《저… 이 령너머에 해빛덕람사대가…》

《그렇소.》

《그렇습니까?! 그런데 혹시 저 차에 실은것이람사대…》

나는 처녀의 질문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렇다고 대답하고나서 그에게 물었소.

《동문 어디서 온… 누구요?》

나의 통명스러운 질문에 한동안 대답이 없던 처녀가 도병원에서 온 의사라고 대답하는것이였소.

순간 그 어떤 불안한 예감에 속이 후두둑 떨리는것 같은 감을 느끼며 나는 처녀를 훑어보았소. 나이에 어울리게 은근한 쪽색갈숨옷에 같은 색깔의 보르르한 털수건을 두르고 선 처녀의 몸 어디선가 《병원냄새》가 풍겨오는듯 했소.

《그러니까 창수 저 사람이 채 낫지 않은 몸으

루 병원을?!》

《그래요.》

처녀가 어쩐지 차거운 어조로 내 말을 받더니 그들이 드리운 샘물속같이 서늘하게 깊어보이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묻는것이었소.

《그가 지금 어디 있어요?》

《저기서 길을 열고있을거요.》

내 대답을 보충해주기라도 하는듯이 령 옷쪽에서 떠들어올리는 소리가 더욱 크고 가깝게 들려왔소. 우윳-우윳 - 뭉쳐돌아가는 메아리속에 딱, 딱, 딱... 하고 얼음을 쪼아내는 소리, 서로 찾고 부르는 소리, 《영싸, 영싸》하고 무엇인가를 굴러내는듯 한 소리가 선명하게 갈라져 들리는것이었소.

잠시 서서 그 소리를 가늠해들던 처녀가 가방을 힘껏 추스르더니 령길을 올라가기 시작했소. 종종히 멀어져가는 처녀의 뒤모습을 보며 생각해봤소.

도병원에서 여기까지 그 먼길을 처녀가 따라온 것은 무엇때문이겠는가? 채 낮지 않은 몸으로 뛰쳐나온 처남의 병상태가 걱정되어 병원에서 그를 뒤따라 보냈을수 있다. 물론 제기는 처녀가 했을 것이고... 그런데 아까 차에 실은것이 발전소설비가 아닌가고 물었지. 처녀가... 그건 어떻게 알아봤을가? 처녀의사가? 그래그래, 처남이 병원에서 줄곧 그 걱정을 하다가 뛰쳐나왔을것이다. 이자직맹부위원장의 이야기를 듣고봐선 그렇게 미진된 일감을 놓고 맘편히 누워있을 성격이 아니지 않는가. 나의 생각은 끝없이 꼬리를 물었소.

처녀는 곧장 화물역에 들려봤을것이고 거기서 좁전에 왔던 직맹부위원장네처럼 내 차에 싣고 떠났다는 소리를 듣고 곧장 따라섰을것이다.

무서운 정열이었소. 그 먼길을 밤도와 오다니. ... 처녀가 단신으로 여기까지 따라온걸 봐선 처남의 몸상태가 대단히 중하다는 소리였소. 아니면 혹시 처녀와 처남이?!...

어느 생각이 맞든 나는 더 서있을수가 없었소. 그리하여 나도 처녀를 따라 령을 오르기 시작했소.

몇번 넘어졌다. 일어서며 뒤굽인가 돌아서야 처녀를 따라잡았소. 그리고는 처남의 병상태부터 알아보았는데 그의 대답을 듣고 한동안 멈춰선채로 걸음을 옮기지 못했소. 처남은 전번 락반사고 때 다친 몸을 아직 채 회복 못한 상태였소.

《그런데 이렇게 찬데서 몸을 혹사하면...》

길 한가운데 우뚝 선채로 움직일념을 못하는 나를 안타까움에 겨운 눈매로 돌아다보며 처녀는

울음섞인 어조로 말했소. 그에 무어라고 할 말을 찾지 못한 난 그냥 서서 그를 보기만 했소.

처남이 무릎위에 소중히 안고오던 약초배낭이 문득 떠오르면서 오죽했으면 젊은 사람이 늙은이처럼 약배낭을 안고 다니랴 하는 측은한 생각, 성성한 늙이 밤새 것처럼 성하지 못한 사람한테 《남의 일》을 도와준다는 생색을 내며 무겁게 업히워 왔구나 하는 아릿한 자책이 가슴을 에이는 듯 해서 걸음을 옮길수가 없었던거요.

《그렇게 온전치 못한 사람을 내놓으면 어떻게 하오. 응. 의사선생?!》

내 입에서 불쑥 튀어나간 목소리였소. 그런데 자신을 때리지 못해 던진 그 한마디의 말이 처녀를 울릴줄이야.

흑- 하고 금시 터져나오려는 외마디 흐느낌소리를 삼켜버린 처녀는 안주머니에서 네겹으로 접은 종이장을 꺼내주는것이었소.

그러고는 핵 돌아서더니 다시 령길을 오르기 시작했소.

처녀가 굽인돌이뒤로 사라진 다음 나는 그 종이장을 펼쳐들었소. 희고 뽀뽀한 종이장에 급히 휘갈겨쓴, 그 어떤 촉급함이 강하게 느껴지는 필체가 살촉처럼 눈속을 찌르고들었소.

《선관동무.

변변치 못한 이 사람에게 그토록 정성을 다해준 고마운 선생님들에게 인사도 없이 떠나가는 날 용서해주시오.

인사를 하자면 어차피 동무와 마주서야 하고 그러면 붙잡히겠기에 몇자 남기고 갑니다.

발전소준공을 눈앞에 둔 이때 침대에 누워만 있자니 피로와 견딜수 없습니다.

오늘의 하루를 놓치면 이해를 그저 보내게 되고 이해를 그저 흘려보내면 우리는 탐사대마을 전망도속의 리상을 현실로 펼치는것을 뒤로 미루어야 합니다.

어제 우리한테 면회온 사람들과 나는 이야기 끝에 누군가가 지금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세상을 놀래우는 대고조, 대비약의 폭풍이 일어나고있다면서 인차 그 덕을 보게 될것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온밤 생각이 깊었습니다.

대고조, 대비약의 폭풍을 일으키며 나가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 그늘밑에서 덕을 보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소림니까? 그가 〈인차〉라고 표현한 누구나 덕을 보게 될 그 희한한 〈래일〉을 도대체 누가 가져다 준다는겁니까?

나는 그에게 말해 주고싶었습니다. 동무, 나나 동무나 기어코 넘어가야 할 높은 령 저 너머엔

그 어떤 희한한것이 기다리고있지 않다, 동무나 나나 우리모두가 시대앞에 조국앞에 자기가 맡은 짐을 한그램도 덜지 말고 힘껏 짊어지고 어서 빨리 넘어가서 우리의 손으로 조국의 미래이고 찬란한 리상인 강성대국이라는 큰짐을 일떠세워야 한다! 라고 말이요…»

나는 글을 읽다 말고 종이장을 든 손을 털썩 떨구고말았소. 그 얇다란 종이장에 담겨진 그의 마음이 너무도 무거워 더는 들고있을 힘이 모자랐던거요. 마디마디 예리하게 날이 선 창끝처럼 심장을 찌르고드는것이였소. 온몸의 살이 푸들푸들 경련하는것 같았소. 가슴속에서 그 어떤 폭풍같은것이 일어나는것을 나는 숨가쁘게 느꼈소.

그런 속에서도 얼음을 까내느라고 복적복적 끓는 소리는 점점 더 우렁차고 활기있게 들려오고 있었소. 나는 그 소리에 이끌리듯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소. 굽이를 돌아서니… 굉장했소.

얼핏 보기에다 백여명은 훨씬 더 될 사람들이 령길에 한벌 쪽 덮였는데 삽, 팽이, 도끼로 얼음을 까내는 사람, 맞들이로 금방 까낸 얼음조각들을 날라다 버리는 사람… 그런가 하면 그들이 금방까낸 길우에다 탄재를 뿌리는 축들도 있었소. 탄재는 저 웃쪽 길 한가운데 서있는 두대의 발구에서 날라오고있었는데 좀 더 웃쪽 굽인돌이로 그런발구 몇대가 또 내려 오고있었소. 《규철동무, 빨리 와요.》

우동통해보이는 처녀가 그쪽에다 대고 빈 삼태기를 흔들어보이며 쟁쟁한 목소리로 소리쳤소.

《어-》하는 대답과 함께 맞받아 손짓하는 청년의 모습이 보였소.

나는 혹시 이들중에 나를 알아볼 사람이 없나 하여 그 자리에 선채 얼음가끼에 여념이 없는 그들을 다시금 훑어보았소. 몇몇 나이든 사람들의 얼굴은 낫이 익었지만 대개가 다 낯선 얼굴들이었소.

사람들이 모두숨을 헉헉 내쉴 때마다 한발씩 뿔어져나온 허연 입김들이 그들의 머리우, 새벽기운이 완연하게 뻗치기 시작한 넓은 공간속에 운무처럼 뽕얇게 서려오르는것이였소. 화끈 단 그 얼굴들에서 뿔어져오는 열기, 비자루같이 실한 그 입김들에서 내뿜치는 활력, 하나의 원동기에 치차를 맞추고 움직이는 기계의 부속처럼 부지런히 일손을 다그치는 그 힘찬 물동에서 마쳐오는 벽찬 느낌이 얼마나 빠근하게 심장을 압박해오는지 선뜻 다가설수가 없었소. 그리하여 우뚝 선채 나는 처남을 찾아봤소. 그는 그 복새통한복판에서 꼭팽이로 얼음을 까내고있었소. 그리

고 도병원에서 온 의사처녀는 손도끼로 바로 처남곁에서 얼음을 까내고있었소.

난 처남을 부르려다가 그만두었소. 그와 나사이, 나와 그들사이의 멀지 않은 공간에 절대로 넘어설수 없는 그 어떤 보이지 않는 장막같은것이 가로놓여있는것처럼 생각되었던것이요. 그 어떤 과단적인 행동으로써만 그 어떤 폭발적인 힘으로써 난 그 장막을 뚫을수 있고 찢어발길수 있는데… 그것을 깨치고 뚫어야 할 과제가 바로 나에게 있다고 생각되는것이였소. 나는 돌아섰소. 그리고 달리다싶이 다시 령을 내려와 차상태를 짚짚히 살펴본 다음 발동을 걸었소.

그들이 길을 열면서 내려오는 저 높고 험한 령을 향하여 나 역시 길을 열면서 맞받아 육박하려는것이였소. 놀라지 마오. 자동차는 순수 기계의 힘으로만 움직이는게 아니요. 운전사의 기술이 첫째인가 하면 그것도 아니요 운전사의 정신이요, 의지요, 배짱이요.

나는 세상이 나서 그때보다 더 큰 정신적흥분을 느껴본적은 일찌기 없었소. 제동을 풀고 가속답판을 밟으면서 어제 오르다 덴겁하여 되내려온 령길을 향해 차를 돌기 시작했소 2단으로, 2단에서 3단으로… 어제 헛바퀴돌던 얼음구배가 눈앞으로 가까와왔소. 처남이 도끼로 까버린 차국이 검은 얼룩처럼 보였소. 가속답판을 깊숙이 밟으면서 그를 향하여 돌진했소. 구배길, 조향륜을 힘껏 잡아 돌리면서… 앵- 앵- 차바퀴가 땅을 짚는 소리가 고막을 찢었소. 차가 멈칫했소. 힘이 딸리는것 같았소. 그러다 헛바퀴 돌면… 1단으로 변속을 바꾸려는찰나, 씩- 차가 구배길을 넘어섰소. 어제 밤엔 1단으로도 끝내 넘어서지 못하여 도로 내려 간 구간이였는데 2단으로 말이요.

그렇게 한굽이를 극복하고 또 한굽이를 돌아서는데 사람들이 얼음을 까내고 그것을 밀어내고 퍼내고 그우에 탄재를 뿌리던 사람들모두가 무슨 일인가싶어 일손을 멈추고 차를 바라보는것이였소.

나는 한손으로 그냥 조향륜을 잡아돌리면서 다른 한손을 옆창너머로 내밀어 길을 비키라고 손짓했소. 도중에 멈춰세울수 없었던거요. 아니, 멈춰세웠다면 타력을 잃어 다시 오르기 힘든것은 물론 잘못하면 어제 밤 물러앉았던 길목까지 후진해야했기때문이었소. 령이 높으면 높을수록 령저 아래서부터 힘껏 밟아오던 가속으로 냅다 채야 하는거요.

앵- 앵- 용을 쓰며 령길을 그냥 툴아오르는 차의 기상에 쫓기우듯 길 량옆으로 좌악 갈라서는

그들의 모습이 보였소. 그속에서 난 뒤늦게야 바로 내 차인것을 알아보고 더더욱 놀라와하며 다른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는듯싶은 젊은이와 직맹부위원장의 얼굴을 보았소. 그리고 나를 향해 얼음버개투성이의 팔을 흔들어보이는 처남도 알아보았소. 그결에서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훔치는 처녀의 얼굴도 보았소.

차는 그들이 얼음을 까낸 령길을 한치한치 물어뜯으며 앞으로앞으로 전진했소. 차뒤에 바투 붙어서 따라오는 사람들의 모습이 후사경을 통하여 한눈에 안겨왔소.

차가 속도를 내면 달리다싶이 하며 따라오다가 멈칫하면 주춤 멈추어서서 지켜보곤 하는것이였소. 그러다가 차바퀴가 헛돌이하면 욱 차뒤에 묻켜들어선 어깨를 들이밀곤 하는데 그 맨 앞장에 처남이 서있었소.

《하나 둘 영싸, 하나 둘 영싸...》

어깨로, 손으로... 차를 밀며 웨치는 그들의 힘찬 구령소리가 귀전을 때렸소.

차는 앞으로 전진하기 시작했소.

《하나 둘...》 처남의 우렁찬 먹임소리

《여이싸...》 사람들의 힘찬 화답.

차의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처남의 먹임소리도 빨라졌고 모두의 화답도 빨라졌소.

《하나 둘... 영싸.》

《하나 둘, 영싸.》

그렇게 전진해올라온 차는 령의 마지막구배길에서 또다시 헛돌이하기 시작했소. 급히 변속을 바꾸고 가속단판을 밟았으나 앵-앵- 헛되이 모지름을 쓸뿐 차는 앞으로 전진하지 못했소.

아무래도 안되겠다, 조금 뒤로 물러섰다가 타력을 얻어가지고... 그러자면 저 후사경속에 가득찬 차뒤의 사람들을...나는 급히 경적을 울렸소. 그러자 흠칫하고 물러서는 사람들의 모습이 후사경속에 비졌소. 허나 다음순간 나를 향하여 안으로 내밀라고 손짓하면서 차밀으로 육박해오는 처남의 모습이 후사경을 꼭 채웠소.

동무, 처남의 그 모습에서 내가 뭘 보았겠소? 런던자체발전소의 마지막 물관설치작업을 지휘하다가 지쳐내리는 물관밀에 날아들었다는 런던장의 모습을 보았소. 잊을수 없는 자기 지휘관의 영웅적인 그 모습이 처남의 마음속에 깊이 남아떨어지는 락만밀에도 서슴없이 몸을 내대게 했고 지금도 저렇게 지쳐내리는 차밀에 주저없이 어깨를 들이밀도록 고무하고 추동하는게 아니겠는가. ...

처남의 뒤를 따라 다시금 차뒤에 묻켜선 사람

들의 웨침소리가 창유리를 즈렁즈렁 울리다가... 누가 선창을 뗐는지 노래소리로 변했소.

저 있잖소. 고난의 천리를 가면 행복의 만리가 온다, 수령님 따라서 시작한 이 혁명 기어이 장군님따라 승리 떨치리 ... 하는, 바로 그 노래였소.

그 노래소리가 그 누군가의 준절하고 엄숙한 목소리로 되어 내 심장을 두드리는것 같았소. 아니 그것은 나를 꾸짖는 바로 나자신의 목소리였소.

...익배,너 대답해보라. 우리 장군님께서 철령너머 병사들과 명문고개너머 북방의 로동계급을 찾으시던 조국수호의 엄혹한 그 겨울날에 너는 뭘 했느냐? 이 높은 해빛덕을 내려 안온한 온돌방에 들어앉아 동면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장군님께서 《그 누가 내 마음 몰라줘도 몰라준대도 희망안고 이 길을 가고가리라》는 노래를 마음속으로 부르시며 안아오신 승리의 봄들판에 강성대국건설의 씨앗을 심던 그 봄날엔 또 뭘 했느냐? 겨울잠을 미쳐 털어버리지 못한채 늦장을 부리지 않았더냐? 그런데 이 마지막령밀에와서까지 온 나라에 타번지는 대고조의 그늘밑에서 낮잠을 잔다면 익배 너에게 묻고싶다.

높은 령 저 너머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야 할 사람은 누구며 그 집에서 살아야 할 사람은 대체 누구이냐?...

그렇소.

나는 노래소리와 함께 심장을 때리는 그 목소리에 이끌리워 한치한치 고개를 올랐소. 아니, 차바퀴에 깔려 죽을지언정 물러서지 않으려는 결사의 의지, 차밀에 어깨를 들이밀고 따라선 해빛덕 사람들의 억센 기상에 떠밀리워...

드디어 령을 다 올랐소.

차를 세우고 이마를 함뿍 적신 땀을 훔치는데 차문이 벌컥 열리더니 직맹부위원장과 젊은이의 열기로 화끈 달아오른 얼굴이 불쑥 나타났소.

《아바이, 운전숨씨가...》하며 젊은이가 엄지손가락을 세워보이는데...

《이게 누군가, 이사람, 자네 익배 아닌가?!》

하며 그들뒤에 서서 차안을 들여다보던 낮익은 로인이 나를 알아보고 소리치는것이였소.

그바람에 나를 아는 사람들이 욱 밀려와 차에서 마구 끌어내리며 반가와들 했소.

《자네 여길 떠나간 다음엔 한번도 발길을 앓더니 오늘 무슨 바람에 들렀나?》

《아바인 모르시우? 우리 창수대장동무가 익배 운전사네 처남이우다.》

순간 나의 옛지기들한테 밀리워 몇걸음 물러서 있던 직맹부위원장과 젊은이가 나를 쳐다보고 사람들 맨 뒤쪽에 서서 별썩별썩 웃고있는 처남을 돌아보고 하더니 호호... 허허... 웃음을 터뜨리는 것이었소.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자기네 세 대장 뒤소리를 한것이 한편 어이없고 한편 통쾌하게 생각된 모양이었소. 하긴 그럴것이 듣기 좋은 뒤소리였으니까.

나도 따라웃었고 웃음이 웃음을 낳아 둘러선 사람들 모두가 무슨 영문에 웃는지도 모르면서 산정이 찌렁찌렁 울리도록 하하... 허허... 호호... 웃어댔소. 그리고 그 웃음속에 나는 나와 그들 사이에 가로막혔던 어떤 보이지 않는 정막같은것이 사라지고 나라는 존재가 그들속에 흔적없이 삼키워져버린듯 한감을 느꼈소.

친구, 다 왔소 저 령이요. 그날 우리가 그토록 힘겹게 올라선 해빛덕이... 얼마나 높은가 보오.

여긴 이렇게 아직도 나무일이 새파란데 저긴 벌써 불깃누룽 단풍이 들기 시작하잖았소.

동무, 내 이야기는 다 끝났소.

미처 못한것이 있다면 처남이 안고오던 그 약초배낭이야기인데... 차가 탐사대를 향하여 다시 떠나기 전에 사람들은 처남을 따라온 처녀의사를 내 옆자리에 떠밀어올렸소. 그들도 처녀가 그저 의사의 자격으로만 여기까지 따라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소.

그리하여 보조운전사좌석에 타게 된 처녀도 그 배낭을 처남이 그랬던것처럼 제 무릎위에 소중히 올려놓는 것이었소.

《그게... 처남의 병치료에 얼마나 도움이 되오?》

차를 몰면서 내가 물었소.

《이게 뭐게요?》

의아쩍은 시선으로 배낭과 나를 번갈아보며 처

녀가 반문했소.

《고려약재가 아니요?》

《고려 약재요?! 어마나... 호호호... 아니, 이견 풀씨랍니다.》

《풀씨?!》

《예, 해빛덕너머 등판에 풀먹는 집짐승들이 해마다 몰라보게 늘어나는데 좋은 풀밭을 더 늘여야한다면서 치료받는 째뽕에 주변에 있는 축산연구소에 나가 구해왔답니다. 이것때문에 <자유주의>를 빈번히 하는 바람에 간호원동무들이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답니다.》

나는 차를 몰면서 처녀의 담담한 목소리를 묵묵히 듣고만 있었소. 뭐라고 할 말이 있어야지.

그의 말대로 염소나 양, 젖소떼를 늘이기 전에 먼저 풀판을 더 풍요하게 해야 하잖겠소. 강성대국에서 더 큰 행복을 누리며 살 꿈을 꾸기 전에 제 손으로 그것을 일떠세울 생각을 해야 하듯이...

무거운 탐사대설비들에 못지 않게 무거운 그 생각을 함께 실은 차가 탐사대마을입구에 이르렀을때... 나는 보았소. 오래전에 나ער린 처남에게 내가 자랑했던 전망도숙의 멋진 그림이 현실로 펼쳐져가고있는 희한한 선경을 말이요.

높이 솟아오른 언제와 그 아래편의 아직은 두터운 얼음에 덮여있는 저수지며 그 한옆에 뿔려진 물길굴이며... 그 물길굴이 끝나는 저편 산기슭에 그들이 건설한 발전소가 내 차에 실고가는 배전설비들을 기다리고있을 것이었소.

난 그것을 보면서 이제 발전소에서 전기가 나올 그날, 해빛덕사람들이 만복을 누리며 살 그날을 눈앞에 그려보았소.

거대한 생명의 힘을 품고 바야흐로 잠을 깬 높은 령 한끝에 찬란한 아침해빛의 첫가닥이 비쳐 오고있었소.

상식

우리 식의 제철제강법의 우월성

폭스와 파고철을 전혀 쓰지 않고 100% 주체철로 질 좋은 강철을 생산할수 있다.

-한번 끓기 시작한 쇠물을 식히지 않고 마지막 공정까지 계속 끓이면서 강철을 생산하므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대폭 낮추게 되어있다.

-제강시간을 종전보다 훨씬 줄이게 되었다.

-슬라크속에 섞여있던 석탄이 보충적인 에너지로 이용되므로 많은 량의 석탄도 절약할수 있

다

-회전로의 수명을 종전보다 훨씬 늘일수 있을 뿐아니라 주체철생산의 공정이 간편해져 막대한 로력과 생산면적, 설비와 자금을 절약하게 되었다.

이밖에도 쓸모없이 버리던 슬라크를 세멘트생산에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등 경제적인 실리는 참으로 크다

시인의 남다른 감각, 특색있는 형상적발견

-가요 《변이 나는 내 나라》의 가사형상을 두고-

신경애

지난해 첫아침에 가요 《폭풍쳐달리자 강성대국 향하여》가 우리를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어로 떠밀어주더니 올해엔 가요 《변이 나는 내 나라》(윤두근 작사, 안정호 작곡)가 또 우리의 출근길을 새롭게 떠밀어준다. 인민생활대고조의 창조자된 궁지높이 하루 출근길에 너도나도 펼쳐나선 천만 군민의 발걸음에 창조와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는 가요 《변이 나는 내 나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시문학은 눈부시게 발전하는 현실을 민감하게 반영하여야 하며 시대를 선도하는 투쟁의 기치로 되여야 한다.》

시대를 노래하는 가요에는 그 시대가 품기는 고유한 서정이 구현되여야 한다.

가요 《변이 나는 내 나라》가 세상에 나오자마자 사람들을 총공세로 고무추동하며 깊은 충격을 주는것은 작품이 선군시대와 시창작의 미학적요구를 훌륭히 결합한데 있다.

가요에는 시대의 서정, 시대의 철학이 있다. 가요에 응축된 시대의 철학은 민족자존의 철학, 령도자의 담력과 배짱의 철학 령도자를 따르는 군민의 사상정신의 철학이다.

1절에서는 아버지수령님의 평생소원이었던 주체철이 사품쳐흐르는 소리에 대한 형상을 통하여 위대한 주체사상의 승리가 천지개벽의 현실로 꽃피어나고있는 선군조선의 기상을 노래하고 있으며 2절에서 역시 세계의 하늘가로 주체조선의 위성이 날고 최첨단을 돌파해나가는 소리형상을 통해 부닥치는 시련과 난관도 뚫고 우리의 기술, 우리의 힘으로 세계를 향해 비약적으로 솟구쳐 부강번영을 이룩해나가는 선군조국의 존엄과 위력을 환희롭게 터치고있다. 3절에서는 백두장군 발걸음 따라 천만군민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나가는 소리에 대한 형상속에 어제와 오늘도 래일에도 변함없이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승리위해 우리 장군님의 리상을 더 높이, 더 빨리 현실로 꽃피워 영원한 승리만을 펼칠 선군조국의 드릴줄 모르는 의지를 격조높이 노래하고있다.

가사는 변의 원천에 대한 해명으로 형상의 초점을 모아 후렴구에서 철학적으로 해명하고있다.

《백두령장 선군덕》, 이것이다. 철학적발견이다.

물론 《선군덕》이라는 말 자체는 이 가사에서 처음 씌여진것이 아니다.

인민의 리상이 실현된 지난 한해의 력사적사변을 노래하는데만 머무르지 않고 어제와 오늘도

래일에도 선군의 기치따라 변함없이 더 큰 승리를 펼쳐갈 내 나라 위대한 태양조선의 모습을 이 말을 통해 확신한 여기에 우주가 비낀 한방울의 물과도 같은 형상의 철학적발견이 있는것이다.

쌓이고쌓인 물목이 터쳐진듯 자랑하지 않고서는, 노래하지 않고서는 이 나라의 시인이라 자부할수 없기에 서정적주인공은 철학적이면서도 서정적인 결구를 터쳐놓는다. 우리의 리상이 실현되고 꽃피어나게 하신분은 우리 장군님이시다.

지나온 해들에 비해 지난 한해 200여개단위들에 대한 우리 장군님의 초강도강행군길을 마음속으로 함께 걸으며 심장을 뚫고 뚫여온 서정적주인공이 도달한 경지는 어딘가 그것은 자신의 천만고생과 바꾸어 우리의 리상을 꽃피우시고 승리에서 더 큰 승리로 이끄시며 강성대국의 휘황찬란한 래일을 펼쳐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매혹이다.

우리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과 다함없을 칭송의 마음이 백두령장의 선군덕에 변이 나는 내나라에 대한 송가를 낳았다.

실로 《변이 나는 내 나라》는 제목 자체가 그대로 우리 장군님의 사상과 의지의 표현이다. 이 한편의 시는 백두령장들을 모시여 위대한 주체사상의 승리가 현실로 꽃피어나가고있는 내 나라 내 조국의 승리의 력사, 그만이 아닌 보다 휘황한 래일로 폭풍쳐날오는 선군조선의 승리의 래일이 어려있다. 이로써 이 가사의 심오한 철학적깊이가 담보된다.

가요의 가사에서 철학적발견은 형상적발견으로 담보되여야 한다. 가요 《변이 나는 내 나라》가 성공한 비결은 깊은 체험과 새로운 느낌에 기초한 형상적발견, 《소리》에 대한 남달리 독특한 감각에 있다.

반만년민족사에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위대한 변혁과 사변으로 리상과 만복이 꽃피는 내 조국의 현실에서 서정적주인공은 무엇을 듣고 어떻게 노래하는가.

서정적주인공은 온 땅이 지각운동을 일으키듯 움쉴 태동하는 소리를 듣는다. 어딜가나 대혁신, 대비약이 나래치는 소리, 창조로 변이 나는 소리, 만복이 꽃피어나는 소리! 땅속에도 땅우에도 하늘과 바다에서도 신비의 음향이 울린다.

우리 나라에서 초고전력전기로로부터 주체철생산체계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궁지와 환희의 경사로운 소리, 승리의 포성이 련발 울린다.

진정 한해에 이룩했다고 하기에겐 너무도 가슴

벽찬 경이적인 사변이다.

그러나 같은 시대, 같은 현실을 함께 목격하고 체험한다고 하여 시대의 감정을 누구나 다 듣게 되는것은 아니다. 서정적주인공은 누구보다 흥분하고 누구보다 예민한 청각으로 아니, 온몸, 온넛으로 땅속, 땅우는 물론 우주에서 나는 모든 소리까지를 다 들었다. 그것은 대고조의 진두에서 울린 백두준마의 호기찬 말발굽소리에서부터 줄기차게 울리는 기적의 소리, 축지법을 쓰시는 우리 장군님의 혁명시간의 초침소리에서 나는 신비한 소리였다. 서정적주인공은 백두령장의 선군덕에 변이 나는 내 나라의 숨결과 기상에 온넛을 기울여 백두령장이 지휘하는 대교향곡을 감수하였다.

그리하여 서정적주인공은 《선군준마 번개쳐 내닫는 소리》, 《우리 위성 우주를 날으는 소리》, 《강성대국 대문이 열리는 소리》 등 모든 소리를 《대혁신소리》, 《대비약소리》, 《대진군소리》로 확신에 넘쳐 노래하고있다.

위대한 리상이 꽃피나는 현실에서 천만대중의 심장을 울려주는 독특한 소리를 남먼저 감수하고 시대의 서정, 시대의 울림으로 시화하였다. 이것은 형상적발견이다.

한편의 정교한 시로서의 이 가사는 또한 독특한 언어형상으로 하여 특이한 매력을 보이고있다.

이 가사에는 혁명적대고조시대의 정서를 대변할수 있는 시대어 《선군준마》, 《주체철》, 《강성대국 대문》, 《최첨단》과 같은 시대어들이 구사되였다. 얼핏 보면 직선적인 표현같아 시대의 서정이 느껴지지 않는것 같다. 하지만 가사는 이런 시대어들로 예상치 않은 남다른 정서적충격과 감흥을 자아낸다.

가사

김로인네 딸네 집 새집들이 가요

손명화

대동강과수농장마을 딸네 집에
나들이 가던 김로인내외 어리둥절
하늘에서 내렸나 땅에서 솟았나
파원에 꽃바다 펼쳐져 황홀경이러오
대사-여보 로친 변도 이런 변 봤나
강성대국파원이 여기에 벌써 펼쳐졌구려
로인네 꽃향기에 취해있다 해저물겠소
장군님 펼쳐주신 선군11경에 반했다고

대동강 물오리떼 내려 나래 폈나
추녀 건들 들린 고래등같은 기와집
령감님 문패를 보고 또 보느라니
그 사랑 너무 커 눈굽을 적시오
대사- 장군님께선 일년내내 한지에 제시면서도
애들에게 이런 큰집을 안겨주셨구려

가사에는 시대어들을 총괄하는 형상의 핵이 있다. 그것이 소리이다. 시대어들이 소리로 일관된 부단한 반복, 점차 승화되어 울리는 소리의 강렬한 반복의 수법과 조화롭게 맞물려 선군조선의 기상과 우리 시대 인간들의 숨결이 들려오는듯하다. 또한 소리의 청각적효과가 《들려온다》, 《흥이 난다》, 《경사로다》 등 경쾌한 시어들과 어울려 시대어의 음향적진폭을 넓혀주고 절로 흥취나고 박력있는 선물이 흘러나오게 하고있다.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서정속에 물들어 온넛을 휘여잡게 하는 감미로운 선물, 우리 식의 독특한 민족적장단을 타고 흐르는 선물을 따라부르느라면 위대한 장군님의 강행군자욱따라 천만국민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장쾌한 환호소리가 금시 들려오는것 같아 사람들을 울해에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안아오는 총공세에로 더 높이, 더 빨리 질풍같이 달리게 한다.

이로써 가요의 가사는 변이 나는 시대의 서정을 집약적으로 안고있는 시대어들을 재치있게 활용한것으로 하여 폭발적인 정서적효과를 달성하고있다.

가요 《변이 나는 내 나라》는 격동하는 시대 사람들이 새롭게 개척해야 할 서정의 높이, 우리문학이 더 높이 올라서야 할 철학의 깊이에 대해 시사해준다.

변이 나는 오늘의 현실에 발을 붙이고 더 큰 변이 일어날 래일을 락관하는 안목, 깊이있는 사색과 탐구력, 남다른 예민한 감각을 지닐 때 시대의 서정이 뚜렷한 개성적인 목소리를 터칠수 있다는것을.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진군의 위대한 시대와 현실은 이런 노래를 요구한다.

세간난 딸자식 보살피는 친어머니런듯
장군님 베풀어주신 행복의 보금자리러오

부엌에선 메탄가스불이 펄펄펄
텔레비존앞에선 손자손녀 짝자궁
꿈이요 생시요 무릎 꼬집어보소
로인내외 흥에 겨워 온몸 들썩이오

대사- 장군님사랑에 보답은 아득한데
은덕은 은덕은 쌓이기만 하는구려
사랑의 파원에 한줌의 거름 되어서라도
장군님은혜 보답하자 간곡히 당부하오

아 얼씨구나 노래하세 아버지사랑
길이길이 전해가세 장군님은덕

숨쉬는 산악

서봉제

지도에서 찾지 말라

지도를 펼치기 전에
그 지명은 마음속 복판에 있었다
우리 글 배우는 아이들 귀에
그 말은 먼저 익혀졌다 희천!

군대를 따라 인민이 왔고
아버지를 따라 아들이 왔고
딸을 바래며 아버지들이 손졌던
역두 환송의 꽃물결들이
뜨거운 대하로 흘러드는 희천

새벽 출근길 나선 사람마다
눈길 들어 쳐다보는 북방하늘
해 저물어 별 돋으면
온 나라 온 마을 온 가족들이
텔레비죤화면에 바투 앉아
발전소소식부터 기다리는 희천!

새해벽두에 찾아오시여
총공격의 최전선이라 령을 내리신
위대한 령장의 그 믿음에
또다시 대격전의 분화구를 터치였구나

불러 자랑차다
낮이면 붉은기로 언제를 덮고
밤이면 불야경으로 타번지는 땅
부강조국건설의 최전선으로 자리잡아
화산마냥 뿜어번지는 결전장

숫구치는 저 언제너머에서
들러오누나 실려오누나
우리 인민의 리상을 꽃피우며
만복이 쏟아지는 우람찬 동음
오곡백과 무르익는 전야의 정찬 설레임
멋쟁이 새 거리의 불빛아래
넘쳐나는 기쁨의 웃음소리 노래소리

아 이 나라 남녀로소 누구나 다 아는
그 이름 지도에서 찾지 말라
더 광망한 빛 더 뜨거운 열로
더 과감한 정신력을 폭발시킬
2012년으로 곧추 뻗은 조국의 돌격로에
결사의 붉은기 들고 너는 섰구나
강성대국 한복판에 우뚝 솟아오르는구나

초침이 뿜다

산악을 허물고
바위산을 깨내어
만년기초를 다져야 했기에
우리는 먹을것도 배낭으로 지고 날랐다
철근도 혼합물도 등짐으로 올리였다

앞을 보면
전우의 잔등에서 허연 김이 피였고
고개속이면 순간에
어지럼증을 불러내며
강줄기가 휘감아도는 격전장

평탄한 대로를 걸어
한낮의 뻘스에 실려
우리 오고 우리 간다면
어이 주공전선 참전자로
총돌격전의 오늘을 뒤돌아볼것인가
가장 값높은 병사시절의 추억이 있을것인가

애어린 전사에게 물어보라
부대장 장령에게 다가서보라
그러면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정해주신
돌격로에 나섰다는 강철의 말이 있어라
기어이 결승선에 들어서야 할
그 기일이 있다는 총알같은 대답이 있어라

오 불세출의 령장 우리 장군님
최후승리를 략관하시며
천만군민에게 구령처럼 새겨주신
강성대국건설시간표 전선시간이
여기서 달음친다
최고사령부 초침이 언제우에서 뿜다

무쇠발구름

머리우엔 하늘에 닿는 층층바위
발아래로 천길벼랑 깊은 강물
암반으로 막힌 길 톱아
안개끼 언덕으로 굴착기가 오르는 이 새벽

기우뚱 무한궤도 그 몇번 돌리고
바위같은 동체는 제자리 몸부림
비장한 그 분분초초앞에

대장은 신호기발 곧추 들고
묵묵히 운전수를 부르누나

설사 초연은 흐르지 않아도
설사 총탄은 날리지 않아도
걸음걸음 생사를 짊으며 가는
이 불굴의 정신력앞에 어찌
불가능이 마주선단 말인가

굳이 묻지 말라
결사관철 근위병들의 심장은
굴착기 성능의 극한점도
은행조건도 따지지 않는다

백두령장의 강행군속도에
맹렬한 공격의 보폭을 맞추며
유압식굴착기가 언제우로 오르는 길
《희천속도》의 거세찬 불바람은
언제우에만 격류치지 않았거니
아 산악을 깔고 우뢰치는 군민의 무쇠발걸음
하늘을 딛고 하늘을 울리어라!

우리를 아는 사람 많지 않다

우리 장군님 전경도에서
오래도록 보아주신 물길막장
여기서 낮과 밤이란 말
지워버린지 오래길래
구태여 시간을 보지 않아라

다만 밀어야 할 암벽이
눈앞에 마주섰길래
교대와 경쟁도표선을 두고
고속도굴진속도를 재어보느라
려단장만이 초점을 세어갈뿐

우리는 착암공도 발파공도 아니었다
픽- 화약내 풍기며
도화선이 타드는 엄숙한 소리
정대가 휘는 청석바위앞에서
결사옹위의 무쇠벽을 쌓았거니

한치한치 열어가는 이 길이
발전기를 돌릴 거세찬 물결도
위잉- 새된 소리를 뿜으며
흘러갈 전류가 이 물길에 모여있어
위훈의 걸음 암벽에 깊숙이 새겨가는
우리의 막장길이어

돌격의 참호 떠난 병사
에돌며 간적 없었노라

적진으로 향한 습격의 길
멈췄던적 더더욱 없었노라
우리의 착암대차들은 이렇게 가노라

모여설 자리 비록 좁아도
우리는 경제강국 큰길을 열어가느
자랑많은 영웅부대
용감한 별동대
위대한 장군님 안겨주신 그 칭호를 안고
련포군의 우뢰로 지심을 가르며
땅속 천리를 애국의 정신력으로 밀어가노니

우리를 아는이들 많지 않다
허나 희천발전소준공의 그날이면
사람들은 들으리라 새기리라
조국의 박동이 더욱더 높뛰는 소리
아 밝게 웃는 강성대국 내 나라의 모습이
불빛속에 크게 웃는 우리 얼굴 비쳐주리라!

언제우에 백승의 령장 계신다

모진 추위에 얼음장은 갈라지고
바위마저 얼어터지는데
아버이장군님 새해에도 정초에
우리 건설장 선참 찾아주실줄
누가 생각이나 하였던가

북방의 강추위를 녹이며
산발과 나란히 거창히 솟는 언제
희천의 산협에 펼쳐질 대인공호수도
눈앞에 가까이 그려보시며
환한 미소를 지으신 우리 장군님

얼어드는 야전복자락
매운 눈보라에 날리시며
어이하여 굵이굵이 또 굵이
얼음낀 령길을 오르시였던가
산세 험한 건설장의 곳곳을
다 돌아보시였던가

일년을 몇시간
십년을 몇해로
위훈떨치며 질풍처운 1분1초
세인을 놀래운 기적이
조국번영으로 내닫는 조선의 기상이라고
그리도 만족하여 주신 특별감사
아 그 사랑 그 믿음
엄한을 녹여주신 불이 아니었던가

9월에 찾아주신 감격
아직도 끝마다 열풍치건만
눈덮인 산마루에 높이 서시어
전당 전군 전민을 희천에로!
온 나라를 일대 진공전에 불려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

희천의 엄동설한이여
자강땅의 눈보라여
너 울부짖어도 두렵지 않다
온 세상에 강성대국승리를 선포하실
위대한 령장의 호소에 심장으로 터친 대답
조국이 지켜보는 가장 높은 곳에서
《희천속도》로 노도치는 불의 용암이

북방의 세찬 눈보라를 활활 태우리니

아 2012년의 화창한 봄을 안고
산악이 숨쉬며 설악이 끓는 땅
내 나라의 선군대기념비로 높이 솟을
희천의 언제우엔 장군님 서계시여라
천하를 딛고 승리를 부르시며
총공격의 최전방에 백승의 령장 서계시여라

사진사는 멀어지고...

박정애

선경의 원홍땅 황홀한 풍경을
다 안고 가시려는가
멀리 더 멀리서 찍으라고
사진사에게 이르는 장군님

해빛같은 그이의 영상을
더 가까이 더 밝게 모시고싶었던
아쉬움속에 사진사는 한자욱 한자욱 멀어지고
사진속의 무릉도원은 넓어지고 더 넓어지고...

기쁘시여 오래도록 못 떠나시는
그이의 마음은 그 한장속에
이사짐을 풀고싶다 하시던
궁궐같은 저 살림집들
창가마다 넘치는 행복의 웃음소리
가공공장의 동음과 저장고의 향기도 담으시었다

눈뿌리 아득한 파원에는 찬바람 부는데
꿀벌나비 날아에는 꽃계절풍경
탐스러운 열매들이 주렁질 가을을
울긋불긋 쌓아질 사과매대를 지나
조국땅 한끝까지 그윽한 향기로 가득찰

가사

그날까지도 그려보시고 다 담으시었다

평생소원이 풀렸다고 하시는
이 무릉도원
그이 안아보시는것은 한장의 사진이던가
한생을 강행군하시는 야전차창에
흰 성예를 녹이며 비껴오던
희망의 리정표였다

만복의 웃음이
그윽한 사과향기에 실려오는 이 땅
사회주의무릉도원이여 너는
장군님 마음속에 안고오신 꿈이고 소원
들리시는 곳곳마다 천경만경으로 펼쳐가실
세계가 부러워 할 사회주의리상향

멀리 더 멀리서 찍으라고
환한 미소 지으시며
장군님 다정히 저어주시는 그 손길에
사진사는 멀어지고
꿈같은 인민의 행복한 래일은
가까워지고 더 가까워지고있어라

책은 말없는 선생

김국철

혁명의 먼길을 가고가자면
지식의 높은 탑 쌓아야 하리
실력은 꾸준한 학습의 열매
더 많은 책을 읽고 또 읽자요
아 책은 말없는 선생
생활의 참다운 길동무라오

풍부한 지식은 삶의 큰 재부
알아야 힘이 나고 먼길도 가리
오늘의 애국은 지식의 높이

더 많은 책을 읽고 또 읽자요
아 책은 말없는 선생
생활의 참다운 길동무라오

참다운 인생도 조국의 래일도
지식의 높이어서 꽃피난다네
혁명의 귀중한 분초를 아껴
더 많은 책을 읽고 또 읽자요
아 책은 말없는 선생
생활의 참다운 길동무라오

행복의 무게

변영옥

레사롭게 흐르는 생활속에는 이따금 새 책이 책꽂이에 꽂혀지듯 예상외의 일이 끼워지는 때도 있다.

나는 어제 가정에서 작은동서의 딸을 주일탁아소에 맡길 새로운 《과업》을 자진하여 맡게 되었다.

조선로동당창건 65돐을 뜻깊게 맞는 올해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전환을 가져오기 위하여 온 나라가 들끓고있는 때에 도로관리원으로 일하면서 혁신자로 소문난 작은동서가 로동자휴양을 가게 된것이다.

얼마나 기쁜 일인가.

그날부터 봄순이는 우리 집안의 한식구로 되었다. 그리고 나는 세월을 거꾸로 거슬러 다시 《애기 어머니》가 되어 《탁아소행》을 하게 되었다.

나의 출근시간은 여느때보다 일찍 앞당겨졌다.

그날도 나는 봄순이를 안고 출근길에 올랐다.

사리원주일탁아소정문을 눈앞에 바라보니 감회가 새로와졌다. 두 아들을 저 주일탁아소에 맡기고 보람찬 로동과 창조의 날과 날을 보내던 그때가 엇그제같은데 벌써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것이다.

거의 20년이라는 세월동안에 주일탁아소는 몰라보게 달라졌다.

번듯하게 닦아진 마당 한옆에 독특하게 꾸려진 쟁사, 노루사, 사슴사, 해빛에 번쩍이며 뛰어오르는 양어장의 은빛금빛물고기들, 구내길마다에 저절로 웃음이 나오도록 재미있게 형상된 동물조각들...

청사뒤에는 규모있고 실리가 나게 꾸려진 온실과 축사며 조화롭게 조성된 호박굴, 왕다래굴, 수세미오이굴도 있어 탁아소에 들어서는 아이들과 어머니들을 상긋한 정서속에 잠기게 했다.

그속에서도 나의 눈길을 특별히 끈것은 노루사 앞에 세워진 작은 속보판이었다.

x 월 어린이들의 몸무게측정 경쟁순위

1등 최영희 (보육원)

2등 장진숙 "

3등 리광숙 "

...

별로 크고 요란한 내용의 글이 씌여진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것은 나의 마음을 꼭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우리 나라에서 어린이들의 몸무게측정은 어느

탁아소에서나 주별, 월별로 늘 진행되는 규칙적인 생활일과중의 하나이다.

어느 보육원이 어린이영양관리를 잘하여 몸무게를 제일 많이 내는가 하는것은 보육원과 보육원, 탁아소와 탁아소간의 일종의 승벽내기이고 경쟁이다.

우리 사회주의제도하에서만 찾아볼수 있는 이 특이한 생활경쟁이 던져주는 감흥은 자못 컸다.

아이들의 몸무게! 그것은 귀엽고 복스러운 어린이들의 행복의 무게였고 그 무게에서 최대의 긍지와 보람을 찾는 보육원의 기쁨의 무게였다.

아니, 이렇게만 말하기도 어설프다. 잊달아 떠오르는 언젠가 작은동서가 해주던 이야기...

《그날도 나는 일을 끝마치고 주일탁아소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낮모를 보육원이 봄순이를 나에게 안겨주는것이 아니겠어요. 나는 의아쩍은 눈길로 그에게 물었어요.

〈담당선생님은 어디 갔어요?〉

〈저 의무실에... 회의를 한답니다.〉

특별히 담당보육원을 만날 일은 없었지만 어떤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혹시 우리 애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았을가 하는 위구심때문이였어요.

의무실에서는 소장선생의 노하고 격한 음성이 복도까지 흘러나왔는데 일어난 선생님을 출입문 창너머로 몰래 훑쳐보니 다행히도 봄순이 선생님은 아니고 식당어머니였어요.

〈...동무가 오늘 아이들에게 끓여줄 호박을 크게 썰고도 가책을 심각히 느끼지 못하여 모임을 했는데 동무들의 비판이 접수됩니까?〉

〈예. 앞으로는...〉

〈앉으세요... 동무들, 우리는 사업에서의 티끌만한 방심과 무책임성이 래일에 가서는 어린이들의 몸무게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수 있다는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우리 장군님 견고걸으시는 초강도강행군이 결국에는 미래를 위하여 가시는 길이라는것을 그래, 우리가 다 모른단 말입니까. 미래를 위하시는 아버지 장군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에 지녀야 합니다.〉

그때 소장선생의 그 말은 저의 가슴을 얼마나 뜨겁게 해주었는지 몰라요. 솔직히 집에서는 호박을 끓여도 크기같은건 안중에도 없고 아이들이 많지 않고 크면 그만으로 여기는것이 보통인데 탁아소에서는 그 자그마한 호박 하나에 아이들의 오늘과 래일의 무게까지...》

작은동서의 이야기를 다시금 되새겨보느라니
나의 가슴이 뜨겁게 달아오른다.

얼마나 고마운 사회주의조국인가.

우리는 매일, 매 시각 알게 모르게 사회주의혜
택을 몸 가까이 누리며 살아오고있다. 언제 스쳐
지나는지도 모르고 그 혜택을 입고있다.

나는 탁아소 속보판에 게재되어 있는 어린이들
의 몸무게경쟁순위를 보면서 바로 이 사회주의혜
택의 무게를 느낀다.

정녕 그 무게는 나라에서 제일로 으뜸으로 여
기고 떠받드는 아이들을 더 튼튼히 더 억세게 키
우려는 보육원들의 정과 사랑으로 고인 행복의
무게였다.

그 행복의 무게를 한평생 아이들을 사랑하시며
어린이들과 함께 계신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의 무게와 어떻게 떼어놓고 생각할
수 있랴.

돌이켜보면 그 행복의 무게 눈금눈금마다에는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 김정숙탁아소를 비롯한 탁
아소, 유치원들을 훌륭하게 지어주시고 탁아공급
체계도 정연하게 세워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사랑
의 자욱이 실려있고 평양산원의 중앙홀바닥에 새
겨진 보석주단의 무게가 실려있으며 소년궁전의
훌륭한 무대도 무겁게 실려있었다.

정녕 그 행복의 무게에는 수령님의 인민에 대
한 사랑을 그대로 이어받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
서 령도의 자욱을 남기신 다박솔초소에 내리던

송이송이 눈꽃도 실려있고 야영소로 떠나는 아이
들을 전선길에서 배려주시던 장군님의 그 밝은
미소도 실려있으며 엄혹했던 《고난의 행군》시기
에도 탁아소, 유치원 학교로 변함없이 줄지어 달
리던 쿵우유차의 동음소리도, 아이들의 고운 꿈
깨여날세라 포근히 덮어주는 《마안산》모포의 오
리오리털실도 무겁게 실려 있었다.

그 위대한 사랑의 무게에 떠받들려 바로 어린
이들의 몸무게가 늘어나고 행복의 무게에 대해서
도 우리 말하게 되었거늘. 그렇다.

우리 도시의 크지 않은 탁아소속보판에 썩여진
어린이들의 몸무게량을 보면서 나는 우리가 받아
안고 자라고 우리 자식들의 세대가 누리고있는
사회주의혜택의 무게를 느끼게 되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초강도강행군길을 걷고
또 걸으시면서 력사에 류례없는 헌신으로 인민에
게 안겨줄 사랑과 행복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민
은 장군님께서 안겨주시는 혜택을 날에날마다 누
리는 사회주의대가정의 아름다운 모습!

정녕 이것은 작은것에서 큰것을 보게 하는 하
나의 화폭과도 같거니.

그래서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리상이
꽃피어나는 다가오는 강성대국의 래일을 황홀하
게 그려본다. 그 래일을 눈앞에 보며 그 래일을
앞당겨오고있다.

아! 아름다운 우리의 생활이여!

사과꽃 필적에는

주광일

황홀경에 걸음 멈춘 길손이여
꽃필적에 다시 와보오
사과꽃 필적에는
파원의 경치란 참
멀리서 보기만 해도
가슴은 뜨겁지만 하다오

길가에 산기슭에
진달래 개나리가 한물 지고
한창 사과꽃이 만발할적엔
흰구름이 몽게몽게 피어나는듯
복숭아꽃이 다투어 꽃잎들을 펼치면
연분홍물감이 강물우에 퍼져가는듯

놀랍기만 하다오
한해사이 내 고향에 펼쳐진
희한한 새 파원의 꽃바다가
그속을 그저 거닐어도

내 황홀한 꿈을 꾸는듯

아침마다 《삼천리》배스를 타고
흥그러이 파원에 들어서면
해종일 꽃속에서 떠나고싶지 않고
벌떼가 봉봉 꿀을 나르는 꽃길로
꽃구경을 하며 아이들은 학교로 가고

노래처럼 그림처럼
아름다운 집들이 온통 꽃속에 묻히고
파원가득 넘치는 과일꽃향기
내 집 프락에도 홀러드는 저녁이면
창을 열고 그 향기에 취해
전설속의 무릉도원에 온 사람처럼
때없이 어리둥절해지곤 한다오

그럴 때면
생각도 깊어진다오

저 동구밖 큰길을 지나시던 장군님
문득 차를 세우시고
무릉도원꽃구경을 하고 떠나신다면
하여 잠시라도 꽃향기속에 계신다면...

꽃필적에 다시 와보오

사과꽃 필적에는
우리 장군님 맞고맞으신 그 흰눈송이가
무릉도원꽃송이로 만발한듯싶어
멀리서 보기만 해도
가슴은 뜨겁기만 하다오

병사들이 왔다

김윤걸

군가를 부르며
병사들이 왔다
장군님 손수 짚어주신
눈꽃 날리는 원홍땅 한 지점으로

얼어든 대지를
그들은 우등불로 녹이지 않았다
후더운 가슴으로 품어안으며
산을 허물고 강줄기를 돌리며
주름진 대지를 번듯이 펴나갔다

치열한 격전을 눈앞에 둔듯
분과 초를 쪼개며
부르트는 손에 봉대를 감으면서도
일손을 멈추지 않은 이들

추위를 불사르는 이글거리는 눈빛들이
서로 나누는 대화였을뿐
다만 변이 나는 산천만이
그들의 심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봄이 오기 전에...
봄이 오기 전에...

지평선 저 끝까지
사과모를 다 심기 전에는
장군님마음속에 움터나는 무릉도원의 몸
파원의 꽃바다로 펼쳐기 전에는

조선속담

조국의 봄을 몇몇이 맛을수 없는 병사들이었다

그토록 봄을 사랑한 병사들
마음에 안고산것은 백두산이었다
한순간 쪽잠마저 죄스러워
불사신처럼 다시 일어서던 그들의 모습은
그대로 투사들의 모습이였다
생눈을 삼키면서도
한치 또 한치 조국의 봄을 마중가던...

투사들의 후더운 그 숨결인듯
흑한속에 벗어놓은 군복마다에선
봄의 아지랑이마냥 더운 김이 피어올랐다
긴긴밤 타오르던 우등불가에선
백두의 군가가 울렸다

인민의 행복이 넘치는 봄을 꽃피우리라
수령님따라 붉은기 날리며
백두산에서 떠나온 성스러운 대오
그 정신을 선군의 총대로 이어받은
그들은 우리 혁명무장력의 한 부대였다

오, 누구보다 봄을 사랑한 이들
조국의 봄을 사랑할줄 알았던 병사들
그들은 다름아닌
백두의 아들딸들이였다

먹고 입고 쓰고 사는것

- . 가을 상추는 문걸어잡고그고 먹는다
- . 감기는 밥상머리에서 물러간다
- . 김치는 절반량식
- . 먹는것이 하늘이다
- . 명주웃은 사촌까지 덤다

- . 몸뭉새 내다 얼어죽는다
- . 아이도 아홉집질을 입는다
- . 옷은 나이로 입는다
- . 갈매기도 제집이 있다
- . 새는 앓는 곳마다 것이 떨어진다



1

운명은 그들을 20여년만에 고향에서 다시 만나게 해주었다.

70년대 중엽의 약동하는 현실은 선경의 소시적 꿈이 배어있던 조이골을 몰라보게 뒤번저놓았다.

《애두 참, 조이골이 뭐냐, 조이골… 이제 늙은이들두 그 이름을 안 부른다 애.》

작업반장으로 성장한 소꿉친구 순금이가 가볍게 선경의 허리춤을 쥐어박으며 하는 말이였다.

주체농법이 꽃피난 사회주의농촌풍경을 바라보며 너무도 달라진 고향의 모습에 어마지무 놀라와하는 선경을 보며 순금은 고향자랑을 수다스레 늘어놓았다. 아마도 번거로운 선경의 심정을 흐트러놓으려는 자심한 처사일것이다.

선경은 지금 교편을 잡고있던 수도의 대학교정을 떠나 남편의 연구를 마저 완성하기 위해 고향벌로 내려온 참이였다.

순금이와 함께 리합속에 집을 내려놓고 고향마을을 돌아볼때에는 슬픔을 나타내지 않고 누르려는 의지와 전야에서 활발히 들려오는 생활의 음향이 어금지금한지라 선경은 다른 생각에 어쩔새가 없었다.

남편이 침식을 하던 리합속에 가서 혼자 조용히 있고픈 생각이 간절했으나 순금은 단호하게 선경을 놀려앉혔다.

《안돼, 거기 혼자 앉아서 장밤 물고있을려구.》 이러면서 그 우격다짐에 선경은 지금 순금의 집에 누워 키높이 자란 터밭의 강냉이들이 바람에 버석버석 소리를 내며 설레는 창박을 바라보며 갈래없는 생각들을 헤집고있었다.

마치도 세상과 동떨어진듯 한 고요로 뒤덮인 밤의 정적은 지쳐버린 선경의 심신을 교조긋한 어둠의 너울로 하냥 쓰다듬어주고있었다.

선경은 어릴적부터 밤은 밤대로 자기의 언어가 있다고 생각해왔었다. 둘도 없는 기둥으로 의지해온 남편이 곁에 없는 이밤에는 칠혹같은 어둠

김은희 그림 김광석

으로 고독과 외로움만 더욱 곱씹어 강조하는것만 같았다.

선경을 바라보며 순금은 《옛날에 동네늙은이들이 부모복이 없으면 남편복이 없다구들 말하길래 무슨 소리가 했더니… 에이, 네 일두 참…》하고 말끝을 흐리마리해버렸다. 그러더니 하루일의 피곤에 못 견디겠는지 잠이 들어버렸다.

물론 순금은 늙은이들의 구시대의 낡은 격언을 무심하게 입밖에 내뱉았겠지만 선경이로서는 어쩔수없이 어릴적에 여윈 어머니를 생각하게 되고 과거를 돌이켜보게 되었다.

(나의 어머니, 자그마한 복조차 언제한번 누리지 못하고 애끓은 나이에 딸자식 하나만을 남기고 운명한 어머니…)

피기없는 하얀 얼굴에 가냘픈 웃음발을 띄우고서 《연아! 할머니집에 가지 않으련?》하고 선경이를 바라보던 어머니의 고운 얼굴이 떠오른다.

선경이를 어릴적에는 다들 연이라는 아침으로 불렀다. 하늘을 날아에는 자유분방한 제비…

…선경이의 어릴적, 해방전 어느해 여름날 선경은 어머니와 함께 황해도 벽성에 있는 할머니 집을 찾아가고있었다.

벌방을 끼고있다고는 하지만 갈데없는 산골이였다.

밤나무, 감나무가 짝 들어찬 산속으로 뻗은 오솔길로 한참 들어가느라만 파란 시내물이 바위쨍으로 돌돌 흐르고있었다. 들여다보면 머리가툼까지도 선명히 보이는 거울같은 물이였다. 들성들성 박혀있는 서덜바위 뒤쪽으로 얼핏 몸통을 내밀었다. 부랴부랴 도로 숨어버리는 가재들의 모양까지 새말갈게 들여다보이는 내를 따라 올라가느라만 지붕에 하얀 박꽃이 덮인 초가집이 세간 놀이하느라 집마냥 쪼꼬맻게 보였다.

소란스러운 왜정말기의 세상형편과는 인연이 없어보이는 목가적인 초가였다.

뒤산에는 밤나무가 울창했다. 시퍼런 잎사귀로

왕성한 자연의 기세를 뿜내는듯싶은 한여름의 숲은 꽤 우중충하고 무성하였다.

《연아, 우리 가을에 한번 오자. 그때 우리 연이 밤청대 해먹다 엄마보다 먼저 죽는 꼴 좀 보게.》

항상 가슴노리를 움켜쥐고 아픔에 피로와하던 어머니가 그때만은 정말 기분이 좋았었다.

엄마의 웃는 얼굴을 보니 선경이도 마냥 좋기만했다. 선경은 하루종일 시내가에서 침범거리다 삭열하던 해가 서전하늘이 꼴깍 숨어버릴 때에야 밥먹자고 찾는 엄마목소리와 함께 시간을 의식하곤 하였다.

《연아, 저녁 먹자.》

저녁밥상에 앉아서 노란 조밥에 개울에서 금방 건져낸 가재를 새빨강게 토장에 보글보글 끓여낸 가재탕이 어쩔 그렇게 맛있던지.

외가집에서의 생활은 하루하루가 정말 좋았다.

그러던 어느날 밤, 새벽녘에 오줌이 마려워 깨여났던 선경은 두런두런 옆에서 들리는 말소리에 선경이 썩었다.

어머니와 할머니가 마주 누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방안에 서린 어둠과 정적이 왜 그렇게 괴피하던지 선경은 그만 졸음이 말짱 달아나버렸다. 더우거나 엄마와 할머니의 표정이 무섭도록 침울하였다. 아마 그때 벌써 엄마는 자기의 얼마 남지 않은 생을 예감했던 모양이다.

《엄마, 난 이번에 가면 엄마보러 다시 못올것 같아요.》

《아서라 공상스런 소리 작작해라. 엄마보다 먼저 가는 자식처럼 불효자식 없느니라. 연일 어떡할려고...》

《엄마, 연이 생각을 하면 마음이 막 아파요. 계속 떠돌아다니는 애아버지가 제대로 아이건살 하겠는지...》

그만해야 선경은 무서워서 오줌누려 나가려던 생각마저 잊고 이불깃을 꼭 깨물었다.

그것이 바로 외가집에로의 마지막길이었다.

외가집을 다녀온 후에 선경의 어머니는 종시 운명하고말았다. 그래도 다행스러운것은 품팔이로 노상 떠돌아다니던 선경의 아버지가 그즈음에는 집에 있던것이였다.

《연이 아버지! 당신은 계촌 밖에 나가계시니 좋은 녀잘 하나 데려오세요. 그래서 연이를 제대로 건사만 해주면 난 땅속에서도 눈을 감을것 같아요. 꼭 부탁해요.》

선경의 어머니의 운명전 마지막말이였다.

어머니를 여원후 아버지는 술이 퍼그나 늘었다. 그저 떠돌아다니지 않으면 막걸리집에 노상 없혀살았다. 언제한번 말뚱한 얼굴로 들어오는 모습을 볼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날, 그날 저녁도 늦게야 들어온 선경의 아버지는 잠들었다 깨어나 아버지 밥상을

차려준다며 일어나는 선경의 손을 끄당겨앉히며 말했다.

《선경아, 아버지 너를 보면 피로워 못살겠구나. 너에게 엄마를 데려다주마.》

《엄마라니요?》

의아스레 되묻는 선경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아버지는 나직이 되뇌였다.

《그래, 엄마를 데려다주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눈길은 허공중에 향해있었다.

그로부터 며칠후 선경의 집에는 처녀애를 데린 낯선 녀인이 나타났다. 그 녀자가 바로 선경의 이붓엄마였다. 남편을 왜놈 《징용》에 내보냈다는 녀인의 인상은 사무러워보이지는 않았으나 왜서인지 짜증기어린 표정이였다. 먼길에 지쳐서인지 아니면 각박한 세상살이에 대한 시름에서인지 어쨌든 첫대면에도 그 녀인은 선경에게 우정이라도 지어보였음직한 어설픈 웃음조박조박 보여주지 않았다.

데리고온 처녀애는 선경이보다 한살 우였다.

이름이 옥숙이라고 했던지. 하지만 그 애는 이붓엄마보다 더 차거웠다.

그날부터 집안의 분위기는 달라졌다.

선경의 아버지는 집에 일찍 들어와서는 여느때 볼수없던 엉너리를 쳐가며 말을 많이 하곤하였다. 이붓엄마가 혹시 자식들 편애하지 않나 하여 신경도 많이 썼다. 하지만 선경은 그만해야 몸도 마음도 둘 곳이 없는 소녀애가 되고말았다. 방황하는 마음은 늘 밖으로 떠돌았다. 안정을 찾지 못하는 그의 마음을 불쌍히 여겼던지 아버지는 선경이에게 익어가는 조발에 무시로 내려앉곤 하는 참새떼 쫓는 일을 맡겼다. 말하자면 선경은 조발파수군인셈이였다.

선경은 깨어진 낫양푼을 들고 조발두령을 왔다 갔다하며 두드려댔다. 한참을 그렇게 하고나니 다리가 매시시하고 팔이 푹 떨어져나갈것처럼 아파났다. 선경은 맥쫄린 눈길을 들어 조발을 빙 둘러보았다. 얄미운 참새떼가 또 날아와 조이삭들에 앉았다. 또 낫양푼을 두드려댔다.

(앵이, 안되겠어. 저놈의 새들을 쫓아버리는 다른 방법이 없을가. 팔다리가 아파서 견딜수가 있나....)

속으로 중얼거리던 선경은 멈칫 서서 조발을 바라보았다. 피땀 한 생각이 떠올랐다.

선경이가 궁냥을 굴려 해낸것이 바로 랑쪽 발두령에 장대를 박고 새끼줄을 길다랗게 늘어놓은 다음 거기에 양철통이요, 쇠조박이요 하는것을 주렁주렁 매달아놓은것이였다. 그것을 한끝에 서서 흔들기만 하면 똥가당 똥가당 소란스러운 소리가 울린다. 이 무슨 소리야 하는듯 새들은 깜짝 놀라 파르릉 날개를 펴며 날아가버리고.

《야! 멋있구나.》

선경은 자기의 궁냥이 제 스스로도 무척 대견하여 손을 치며 기뻐했다. 그리고는 사방을 둘러보았다. 누구든 눈에 띄우는 사람이 있으면 자랑하고싶어서였다. 그러나 무심하게도 사람은커녕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다. 농군들은 따가운 해별을 피해 능달로 들어갔는지 가없이 쌍- 하니 열린 파란 하늘아래 인적이라고는 선경이와 참새떼뿐이다.

이제는 할수없이 면에 있는 사립학교에 공부간 학세오빠가 돌아오기만 기다리는 수다. 선경은 동구밖으로 향한 달구지길을 움해서 바라보기 시작하였다.

학세오빠란 선경이네 뒤집에서 장손으로 끄찍이도 아끼는 외아들이었다. 그래도 밥술이나 먹는 자작농이라 그 외아들만은 공부를 시킨다며 사립학교에 보내었다. 그 집 할아버지가 아주 개명한 사람이었다. 사내라면 우선 글자를 깨치고 학문을 터득해야 세상을 굶어볼수 있노라며 체통이 깨끗한, 무서운 인상의 그 할아버지는 손자의 등허리에 지게를 지우지 않고 학교로 보냈던것이다.

그 학세오빠가 아주 인정이 많았다. 오빠, 오빠하며 졸졸 따라다니는 선경이를 잘 데리고 놀곤 하였다. 이북엄마 손에서 먹는 밥은 배가 차지 않는다며 먹을것이 생기면 들고나와 선경의 손에 들려주고 학교갔다 돌아오는 길에는 선경이가 있는 조발에 꼭 들려 글자며 산수를 배워주곤 하였다.

그 오빠에게서 동냥글을 익혀서 선경이는 그즈음에는 제법 문장을 짓기도 하였다.

기다리던 학세가 동구길입구에 나타났다.

목빠지게 기다리던 모습이 보이자 선경은 《오빠!》하고 쉼없는 목소리로 반겨붙었다.

《선경아!》학세는 멀리서부터 길다란 팔을 흔들며 뎡뎡뎡 뛰여온다. 그리고는 발두렁에 털썩 주저 앉았다.

《선경아, 그래, 오늘은 무얼 썼니? 어디 좀 볼가.》

학세는 이마언저리에 송골송골 맺힌 땀을 팔소매로 쓱 문대고서 물었다.

하지만 선경은 그옆에 앓을념을 얹고 시뭇한 자세로 학세를 내려다보며 되려 물었다.

《오빠, 내가 오늘은 뭘했는지 아나? 한번 알아맞춰봐요.》

《응?》

학세는 눈을 덩둘하니 올리켰다. 그리고는 뒤집을 지고 방글거리며 몸을 살래살래 흔드는 선경이를 보고 조발을 보고 하였다. 그러더니 움쭉 일어났다.

《음- 선경이가 뭘 했길래 이렇게 빠질가?》

학세는 두리번거리다 《에이, 모르겠구나.》하고 도로 주저앉을 차비로 엉거주춤했다. 선경은 《야, 오빠두 참...》 하고 학세의 팔을 끌어당겨 조발한귀통이로 그를 끌고갔다. 그리고는 새끼줄을 흔들어보았다.

앵가당 뎡가당, 요란스레 소리가 울렸다.

《아이쿠, 깜짝 놀랐구나.》

학세는 아부채기를 치더니 정말로 놀란 표정으로 저도 새끼줄을 흔들어보았다. 뒤이어 익살스런 말을 쏟아놓았다.

《어이구, 이게 바로 선경씨의 궁냥이겠소이다?》

《에-》

선경이도 말꼬리를 길게 늘구며 빠기듯 대꾸하였다.

학세는 정색한 표정을 짓고 선경을 내려다보았다. 그러더니 《선경아, 넌 정말 머리가 좋구나. 공부만 하면 넌 큰일을 할수 있겠어.》하고 어른스레 말하는것이였다. 이어 선경에게 물었다.

《그래, 선경이가 오늘 뭘 썼는지 좀 볼가?...》

선경은 주뭇주뭇 발두렁 한쪽끝에 놔두었던 보자기를 끄르고 그안에서 학세가 준 공책을 꺼내 들었다.

책장을 훌훌 번지던 학세가 멈칫하더니 소리내여 두런두런 읽었다.

《구름덮인 하늘은 시커먼 눈으로 나를 내려다보는것만 같다.》

《딩그렁, 딩그렁 새끼줄에 매달린 양철통 부딪치는 소리는 나를 쫓는 소리, 새가 아니라 나를 쫓는 소리...》

책에서 눈길을 든 학세는 왜서인지 선경을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지긋이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문득 이렇게 말했다.

《선경아, 내 옛날 하나 해줄가. 선생님이 해준 애긴데 들으면서 네 생각을 했었어. ...옛날옛적에 콩쥐란 처녀애가 어머니와 함께 오붓한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있었대.

콩쥐가 너무 예쁘게 생겨서 아빠, 엄마는 불면날가, 쥐면 꺼질가 그렇게 애지중지했더라. <곱게곱게 피어나라 어화둥둥 내 아가야>하고 노래까지 부르며 일싸둥둥 귀하게 키웠지.

그런데 그 행복하던 집안에서 엄마가 몹쓸 병으로 앓다 세상을 떠나갔단다. 엄마를 잃은 뒤 아버지는 더 콩쥐를 귀앓했지. 그러나 귀한 딸자식에게 엄마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 아버지는 이북엄마를 데려왔대.

커가면서 더욱 예뻐지고 아버지의 걱정을 덜어드리려 부지런히 일하는 콩쥐에게 이북엄마가 아버지가 없을 때마다 트집을 잡고 심술을 부리며 못되게 놀았다. 그건 콩쥐가 자기 딸 팔쥐보다 곱게 생겼기때문이였어.

선경은 그후 많은 세월이 흘러간 뒤에도 그때 학세가 해준 콩쥐팍쥐이야기를 한토막도 잊어버리지 않았다. 그리고 왜 그 옛말을 해주었는지 그 어스럽고 자심하기도 한 웅심깊은 마음을 이해하였다.

그때부터 선경은 꿈을 가지게 되었다.

그는 세상을 새삼스러운 눈으로 둘러보게 되었다. 선경의 머리우에도 푸른 하늘이 건듯이 쳐들려있으며 멀리 눈길을 들어 지평선끝을 바라보면 아지랑이와도 같은 희망의 꿈이 그물그물 피여오른다는것을 알게 해주었던것이다. 학세는 콩쥐에게 온것과 같은 아름다운 생활이 선경의 앞길에도 펼쳐지게 되리라는 희망과 기대를 품게 해주었다.

《선경아, 넌 앞으로 얘기짓는 사람이 되라.》

그때 학세는 선경이에게 이렇게 말했었다.

그래, 선경은 글을 쓰고싶었다. 세상에 대고 하냥 이야기하고싶었다.

선경이를 대견하게 바라보던 학세가 기지개를 켜더니 불쑥 이렇게 말했다.

《선경아, 우리 또 기차보러 갈가?》

선경의 눈이 반짝했다

《응. 그런데 오빠! 순금이도 같이 가자요.》

《그럼, 같이 가야지. 그를 찾아라.》

순금이도 한동네에서 사는 선경이의 동갑또래로서 선경이, 학세, 순금이 이들 셋은 소꿉친구였다. 셋은 야산곶이를 돌아 철길이 뻗어간 곳으로 냅다 달려 갔다. 그들은 철길주변에서 놀기를 즐겨했다. 지나가는 기차를 바라보면서 하나, 둘 방통수를 세보는것이 하루도 빼놓지 않는 일과이기도 하였다.

그들이 가보지 못한 곳, 알지도 못하는 미지의 세계로 향해가는 기차는 그야말로 선경의 동경이고 꿈이고 희망이었다. 그 기차가 가닿는 곳에서 학세오빠가 그려보이는 새로운 생활이 그를 기다려줄것만 같은 희망과 기대가 모록모록 가슴속 깊은 곳에서 피여오르곤 했다.

넙적 옆드려서는 페루에 귀를 대고 기차가 오나 안 오나 차바퀴소리를 가슴해들기도 하고 기차가 지나갈 때엔 달리는 그 기차를 따라 냅다 같이 달리기도 하고 차칸안의 알지 못할 사람들에게 손을 저어주기도 하고...

(난 이담에 꼭 저 기차를 타고 공부하러 갈테야.)

이런 다짐이 선경의 가슴속에서 남모르게 굳어가고있었다. 어느덧 세월은 살같이 흘렀다. 그 세월속에 해방도 맞았고 위대한 조국해방전쟁도 치렀다.

전쟁이 끝나자마자 선경은 학세와 헤어졌다. 그가 인민군대에 입대한것이다.

전후에 선경이는 도소재지로 옮겨가 살게 되었

다. 엄마없이 이붓어머니의 손에서 눈치밥을 얻어먹으며 자라는 그의 정상이 아무래도 가공해보였던지 선경의 외삼촌이 아버지와 토의끝에 선경인 공부를 시켜야 한다고, 자기 집에 데려다 고 급중학교에 다니게 하겠다고 완강하게 나왔던것이다.

그래서 선경은 초년의 아름답고 서글픈 희망이 습배여 있는 고향집을 떠나게 되었다.

이른아침의 잠결에서나 밥상머리에 앉았을 때나 때없이 이붓엄마의 사나운 눈찌를 의식하던 서러운 집을 떠나는것이 야릇한 애달픔을 자아냈지만 그것은 한순간이었다.

선경에게는 앞날에 대한 부풀은 희망과 새 생활에 대한 동경이 더욱 컸다.

막상 떠나는 날이 닥쳐오자 그 야박스럽던 이붓엄마도 눈구석에 눈물을 담았다.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한처마밑에 깃을 들였던 한 처녀애가 자기품을 떠나 먼곳으로 간다고 생각하니 애잡잘한 설음이 가슴 한구석에 피여올랐던 모양이다.

《연아!》 느닷없이 그는 선경의 애명을 불렀다. 좀해서 그 녀자는 선경의 애명을 입에 올리지 않았었다.

《이담에 네가 시집이랑 가면 이 엄마를 리해할거다.》

그렇게 선경은 떠났다. 그렇게 서러웠던 소녀시절, 야박스럽기만 하던 옛 세월과 인연을 끊었다.

2

선경은 남편이 연구하던 벼수확기가 놓여있는 기계화작업반으로 나갔다.

공교롭게도 연구조의 다른 성원들은 강습이 제기되어 중앙에 올라가고 없는터여서 선경이 혼자 합숙을 나선것이다.

넓다란 유개창고 한쪽에 수확기가 외롭게 놓여있었다.

선경은 불시에 눈곱이 파가와났다. 금시 어느 구석에서 《어, 당신 왔소?》 하며 남편이 움쭉 일어설것만 같다. 선경은 급히 다가가 아직도 남편의 체취가 습배여있는듯 한 수확기를 어루쓸었다.

선경의 남편은 종합대학 자동화학부(당시)교원이었다.

농업과학원 농기계연구소에서 이미 연구시험중에 있는 벼종합수확기의 부분별 자동조종문제와 관련하여 종합대학에 전문가를 보내줄것을 요구하자 남편은 자진하여 그 파제를 맡아안고 여기 고향 서천벌로 내려왔다.

《여보, 우리의 꿈이 실현될 날이 바야흐로 다가오고있소.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허리를 펴

고 기계로 농사짓는 시대가 왔단 말이요.》

그때의 그 사업과 생활에 대한 왕성한 의욕으로 양양하던 남편의 얼굴...

그러던 남편이 이태후 급병으로 현지의 군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은 선경은 불안스레 마음속에 다가드는 예감을 애써 털어버리며 부랴부랴 군으로 내려왔다.

20여년만에 밟는 고향땅이었던만 감회에 사로잡힐 마음의 경황이 없었다.

남편의 병은 치명적인 것이었다. 금시 눈앞이 아찔해졌다. 다음 가득히 차오르는 눈물을 애써 누르며 선경은 남편과 마주 앉았다. 남편은 웃고 있었다. 《선경이 당신은 정말 늙지 않누만. 지금도 당신은 곱소.》

《아이참, 당신두...》 선경은 밉지 않게 눈을 흘겼다.

《아니, 정말이야. 우리가 대학에서 다시 만나던 그때처럼 말이요.》

둘은 다정히 손목을 잡고서 그때를 돌이켜보았다.

인민군대에 나갔던 학세는 선경이보다 몇 해 늦게 대학에 입학하였다.

녀성기숙사정문에 나타난 학세를 보고 깜짝 놀라던 겨울저녁...

겨울갈지 않게 푸근한 겨울밤의 대기는 청춘들의 심장에 더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안겨주는데 아주 적합하였다. 세월은 학세를 멋스러운 청년장부로 만들어주었다. 머리풍뎡이를 달싹거리며 따라다니던 소녀애를 동정하여 사랑을 담아 내려다보던 총각애의 순박하던 얼굴표정은 진중하고 사려깊은 진지한 사내의 표정으로 달라져버렸다.

너무도 달라진 모습에 《선경이!》 하고 부르는 그에게서 선경은 위압감을 느끼고 왜서인지 부끄러운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한참 이야기를 나누고서야 말투며 씩- 입귀부터 웃기 시작하는 얼굴표정이 눈에 익은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래전의 오빠! 오빠! 하던 친근한 감정이 되살아났다.

미간이 선명한 이마며 리지적인 눈매에 그지없는 반가움과 사랑을 담고서 학세는 말했다.

《선경이! 몰라보게 달라졌구만. 아주 고와졌어.》

《아이참, 오빠두! 그런 말 말아요. 오빠두 많이 달라졌어요.》

《난 선경이가 글쓰는 학문을 택할줄 알았는데 전공이 아예 달라졌더군. 왜 그렇게 했어? 선경인 정말 글재간이 있었는데...》

묻는듯 한 학세의 눈길앞에 선경은 허물없이 속내를 터놓았다.

《학세오빠! 어릴적 우리 집 조밭에서 내가 참새떼 쫓던 일이 생각나요? 그때 난 사람이 일을

위해 세상에 났지만 육체에 비하면 그 로동이 무척 고되다는걸 어린 마음에도 크게 느꼈었어요. 그리고 힘들게 농사짓다 돌아간 어머니도 일생 잊지 못할것 같아요.》

학세는 심중히 머리를 끄덕였다.

《응, 그 말을 들으니 선경이 어머니가 생각나누만. 김매기때나 조가울할 때면 허리를 두드리며 아이구 허리야, 막 쭈시누나 하며 겨우 일어서곤 했었지. 우리 어머니도 같구.》

일이 너무 고되어서 우리 어머니들이 더 빨리 주름살이 는것 같애.》

《그래요. 학세오빠, 그래서 우리 수령님께서도 농민들을 힘든 농사일에서 해방시켜 그들의 굶은 허리를 퍼주는것을 평생의 념원으로 간직하고 계시는거라고 난 생각해요.》

참, 우리 동무 순금이가 생각나요?》

《오, 그 달리기명수, 생각나잖구. 기차 따라 달릴 땐 제일 앞서달리곤 했지. 그 앤 지금 뭘하나요?》

《고향에서 농사를 짓고있어요. 그 앨 위해서도 난 농사짓는 기계를 연구하고파요.》

학세는 진심으로 기뻐하는상싶었다.

《어쩐 선경인 내 생각과 그렇게 꼭 같애? 난 지금 어느 학부를 선택할가 하고 많이 생각하던 중이야. 선경이 말은 내 결심을 굳혀주었어.》

우리 부모들이 다시는 육체적으로 고되지 않게 일하게 하는것을 우리 자식들이 앞날의 리상으로 간직하는건 백번 잘 생각한거야.

선경인 잘 해낼거야. 내가 그전에도 말했지, 선경인 머리가 좋다고. 난 찬성이야. 우리 약속하자구, 앞으로 공불 잘해서 기계박사가 되자는걸.》

《좋아요. 손가락 걸자요.》

그밤 희망찬 앞날을 기대하며 둘이 함께 소리높이 뽐어올리던 웃음... 그 창창한 웃음소리에 파르스름한 별들이 놀라 또글또글 구울러떨어지는것 같았다.

약동하는 생활의 랑만, 청춘의 환희를 안고 세월은 힘차게 흘렀다.

그 세월속에 대학을 졸업한 학세와 선경은 나란히 교단에 서게 되었고 행복한 가정도 이루었다.

잊을래야 잊을수 없는 신혼의 달콤한 그 시절...

결혼 첫날밤 학세는 선경을 꼭 안고서 열정의 단김을 뽐어대며 귀가에 대고 속삭였다.

《선경이, 난 정말 기뻐. 나만큼 행복한 사람이 또 있을까?...》

《오빠두 참, 그 말은 내가 하려던 말이예요.》

학세의 말에 머리를 기대며 선경은 행복감에 넘쳐 말했다. 아직도 선경은 오래동안 익숙된 오빠라는 부름에서 벗어 나지 못했었다.

《아직두 오빠야? 선경이! 내 선경이에게 무얼 해줄까? 바다속 룡궁에 데려가줄까, 아니면 저하늘의 별을 따다줄까. … 자, 어서 말해. 내 선경이가 해달라는건 다 해줄게.》

《음》말꼬리를 길게 늘구던 선경이 말했다.

《별을 따다줘요. 래일 당장.》

《래일 당장? 응, 좋아! 부인, 내 따올리겠소이다. 그런데 하늘에 오르려면 사다리가 있어야겠으니 사다리 만들 시간을 좀 주시오이다.》

익살조로 학세가 사정하였다.

《아니, 안돼요 꼭 래일중으로 따와야 해요.》

짐짓 엄한 어조로 으르던 선경은 끝내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한참 그렇게 웃고난 학세는 정색한 어조로 선경에게 말했다.

《선경이! 내 하늘의 별은 따다주지 못해도 사랑만은 가득가득 안겨줄테요. 엄마사랑도 받아보지 못하고 자란 우리 선경이, 어머닐 대신해서 내 무한히 사랑 해주지. 한생토록 말이요.》

진정을 담아 속삭이던 학세의 말에 무한히 행복하던 그밤.

정말 결혼후 10년세월은 다함없는 그 사랑으로 행복하고 아름답게 흘렀다. 그 나날에 두 아들과 막내딸도 태어나고

즐거웠던 그 시절의 여운인양 과거를 돌이켜보는 학세와 선경의 얼굴에 흥호가 비졌다. 선경은 남편에게 간절히 말했다.

《여보, 평양에 가자요. 거기서 깨끗이 병을 고치고 다시 연구를 계속해도 되잖아요.》

그러나 학세는 설레설레 머리를 저었다.

《선경이, 난 왜 그런지 마음이 조금해지오. 시간이 나에게 더는 관용을 베풀것 같지 않아. 여기서 연구를 빨리 끝내야 해. 운동칼날의 속도회전문제가 잘 안풀리누만.》

갑자기 학세는 수확기의 운동칼날소리를 끄집어냈다.

며칠후 학세는 다시 의식을 잃었다. 남편을 간호하다 침대가에 꼬부리고앉아 깜박 잠이 들었던 선경은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남편의 손길을 느끼고 편뜻 얼굴을 쳐들었다. 그리고 남편의 손을 끄당겨 내려 가슴에 꼭 안았다.

《여보, 선경이! 미안해. 엄마사랑을 받아보지 못하고 자란 당신을 내가 오래오래 사랑해주려고 했는데… 정말 당신을 혼자 남겨두고싶지 않구만. 마음이 떨어지지 않아.》

선경은 그만 마음이 철렁했다.

《싫어요. 싫어요.… 그런 말은 왜 해요? 당신이 날 쫓게치고 가면 정말 가만있지 않겠어요. 당신은 인차 나아요.》

《응. 그래, 선경이! 혹시 내가 인차 못 일어나면… 부탁하오 수확기를… 당신은 나보다 머리가

좋으니 꼭 해낼거야.》

애써 웃음발을 떠올리며 잔조롭게 좁혀지던 학세의 그 잔잔한 눈매…

누런 병색이 짙은 얼굴에 못다 누린 생의 희열이 모아졌는가 류랄리 영채를 뿜으며 황황 타던 검은 눈동자…

그렇게 학세는 선경의 생활에서 떠나갔다.

선경은 슬픔에 몸부림치면서도 학세의 마지막 말 《수확기를 부탁하오…》를 잊을수가 없었다. 수확기연구는 남편이 선경에게 주고간 생전의 과제와 같았다.

그래서 선경은 친척과 동무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장례를 치르기 바쁘게 남편의 연구지로 떠나온것이다.

3

《거 누구요?》

뒤에서 남자목소리가 울렸다.

선경이 남편 생각에서 깨어나 얼른 눈물을 흘리고 돌아서니 갱뿔한 얼굴에 차거운 눈매를 가진 60대의 키 큰 아바이가 의아쩍게 바라보고 서 있었다.

《수확기연구때문에 종합대학에서 내려왔습니다. 김선경이라고 합니다.》

선경은 머리를 숙여보였다.

《아, 그렇습니까? 제 여기 기계화작업반장입니다. 정학세선생도 종합대학에서 오셨됐는데.》

반색을 띄우며 인사를 하던 반장이 말끝을 흐리마리해버렸다.

선경은 범상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한학부에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저도 연구조의 한 성원입니다. 앞으로 반장동지가 많이 도와주십시오.》

선경은 학세가 자기의 남편이라는것을 알리고 싶지 않았다.

《예- 그런걸 난 또 혹시 학세선생의 아주머니 되는분이 아닌가 했지요.》

생각외로 작업반장은 차거워보이는 인상과는 다르게 말을 잘 붙이는 성격같았다.

선경은 반장의 화제거리가 남편에게로 돌아가는것을 피해 서둘러 말머리를 돌렸다.

《반장동지, 지금 수확기연구는 어느 단계입니까?》

《예, 도면들은 합숙에 있는데 대충 설명해드린다면…》

반장은 선경에게 현재 수확기시험진행공정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

남편이 이야기하던대로 수확기연구는 운동칼날의 자동조종문제때문에 정지상태에 있었다.

도면상에서 계산된 수치가 작업진행공정에서는

맛아떨어지지 않았다. 계산용지를 붙들고 씨름하는 며칠이 지나갔다.

어느날 기계화작업반장아바이가 잘 익은 수박을 들고 찾아왔다.

《선경선생! 이걸 한쪽 들어보시오. 그러면 머리가 시원해질거웁니다.》

《아바이! 고마워요.》

선경은 한쪽을 들고 맛나게 먹기 시작했다. 다 먹고 손을 씻고나자 반장은 천천히 말머리를 떼었다. 《선경선생! 내 좀 섭섭한 소릴 하겠수다. 옛날에 남의 슬픔은 강건너편에 있다고 말했는데 그건 남이야 어떻게 상관 안하는 세계에서나 통하는 말이고... 내 손금반장에게서 다 들었수다. 그래, 몇해동안 함께 기계를 붙들고 씨름질한 학세선생과 내가 남남이요?》

그리고 그 일이 연구사선생 혼자만의 일이요? 다 우리 수령님의 뜻을 꽃피우는 일인데 우리 함께 잘 해봅시다.》

공- 허리를 일으켜세우고 반장은 천천히 밖으로 나갔다.

선경은 그만 목이 껍 막혔다. 꺽꺽 소리를 죽여가며 울었다.

(아바이, 잘못했어요. 내 다신 안그렇게요.)

서둘러 아바이를 바래우려고 토방에 나서니 달이 무척도 밝았다. 그 달빛에 싸여 추녀밧의 작은 담배꽃송이가 고개를 떨구고있었고 달빛에 비친 나무가지들의 그림자는 한층 짙었다. 그 달밤 이후 선경의 생활에서는 뜻하지 않았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으니 선경이가 갑자기 집으로 돌아오게 된것이다. 그것은 대학당위원회 부원이 학부초급당비서와 함께 연구지로 선경을 급히 찾아온때문이었다.

당위원회에서 부른다며 그 내용은 알려주지 않는 두사람의 낯빛을 보고 선경은 은연중에 긴장감을 느끼지 않을수 없었다. 무엇때문일까?...

승용차는 남편의 생활과 감정이 아직도 생생한 자취를 남기고있는 리합숙이며 뒤산의 우중충한 밤나무숲을 차창뒤로 뿔어버리며 떨기나무들이 다복다복한 소로길을 따라 계속 달렸다.

《다 왔습시다, 선경선생!》

누군가 선경을 찾았다.

서너시간은 지났을가, 가지가지 추억의 상념에서 깨어나 눈을 떠보니 어느덧 차는 대학청사앞에 멎어서있었다.

대학강당은 교직원, 학생들로 꽉 차있었다.

무엇인가 비상한 사변이 기다리고있는것만 같은 예감으로 하여 선경의 심정이 어찌나 두근거리는지 금시 흥벽을 뚫고 튀어나올것만 같았다.

휴게실에서 선경은 사촌언니에게 맡겨두었던 맏아들 순이와 만났다.

대학책임일군이 연단에 올랐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자동화학부 강좌장이었던 정확세동무의 사망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돌려주신 사랑과 은정의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웅- 귀우는 소리가 크게 들려오고 심장의 박동이 쿵쿵 빨라지기 시작하였다.

선경은 자기 귀를 의심하지 않을수 없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선경은 천천히 일어섰다. 긴장과 흥분으로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하였다.

《〈2월17일과학자, 기술자돌격대〉에 파견되어 연구사업을 하던 정확세동무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께서는 오래도록 아무 말씀없이 창박을 바라보고계시다가 수령님께서서는 혁명전사 한사람 한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다고 말씀하셨다고, 우리 당이 키운 귀중한 지식인 한명을 누가 대신하겠는가고 가슴아프게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자식이 몇이 있는가 물어보시고 우리 당이 그 애들의 아버지를 대신해야 한다고, 아이들을 혁명학원에 보내어 당에서 말아키우라고 뜨겁게 말씀하시면서 문건에 친히 한조항, 한조항 사랑의 필체를 남기시였습니다.

그리고 정확세동무에게 국기훈장제1급과 <사회주의애국희생증>을 수여하도록 하여주시였습니다.》

장내에 폭풍같은 박수소리가 터졌다.

《어머니!》

옆에서 맏아들 준이가 울먹이며 선경의 팔을 잡았다. 박수소리가 찾아들기를 기다려 책임일군은 한동안 장내를 지켜보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김선경선생! 선생에 대해서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 동무의 부인이 남편의 뜻을 잊겠다고 지방의 연구지로 내려갔다는데 정말 용하다고, 우리 사회주의제도에서 교육을 받은 지식인이 다르다고, 녀성의 몸으로 정말 기특한 결심을 했다고 거듭 말씀하시였습니다.》

또다시 장내를 흔드는 박수소리...

온몸에 굽이치던 감동과 격정이 얼굴에 뜨겁게 울리는가싶더니 눈물의 동이 터졌다.

선경은 울기 시작하였다.

선경은 그때 어떻게 맏아들과 함께 주석단에 오르고내렸으며 어떻게 사람들의 인사를 받고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 모른다. 그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는것을 인식하였을뿐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평범한 교원가정의 사정까지 속속들이 헤아려주시고 한 미거한 녀인의 소행까지 장하다고 크게 사주셨다는 생각, 고맙습시다라는 말밖에는 더 달리 말할수 없다는 그 생각으로 선경은 계속 울었다.

사실 선경은 남편을 잃은 후에는 다신 울지 않겠다고 다짐 했었다.

그런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사랑에 또다시 울게 된것이다. 그 눈물에 선경의 심신에 쌓였던 온갖 피로움이 깨끗이 씻겨내리고있었다. 내리는 눈물과 함께 오르는 생각은 선경에게 오직 하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는 정녕 내 삶의 은인이시고 보호자이시라는 그 생각이였다.

그날 선경은 세상을 새삼스럽게 둘러보게 되었다. 하늘은 가없이 푸르며 태양은 여전히 만사람에게 뜨거운 빛을 뿜어주고있었다.

선경은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아니 소꿉동무 순금이에게 꼭 말하고싶었다.

(순금아, 난 복없는 녀자가 아니야. 우리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수령님과 지도자동지께서 내세워주고 살피주고 사랑을 주시는데 세상에 복치고 이런 크나큰 복이 어디 또 있겠니? 글쎄 이게 누구에게나 차례지는 복인가 말이야.

고마운 내 동무 순금아, 다시는 날 위해 울지 말아.)

그후 두 아들을 만경대혁명학원에 떠나보내고 선경은 대학당위원회로 찾아들어갔다.

《전 래일 서천벌로 떠나겠습니다.》

단도직입적인 선경의 말이였다. 《아니?》

대학당위원회 일군이 놀라운 표정으로 선경을 바라보았다.

《선경동무! 당위원회에서 토론이 있었습니다. 현장에는 다른 동무를 내보내기로 했으니 동무는 교단에 서있어주시오.》

선경은 머리를 살래살래 젖고나서 침착하게 말을 시작하였다.

《저를 위해주는 그 마음은 고맙습니다. 하지만 전 결심했습니다, 앉아서 사랑을 받기만 하는 녀자가 되지 않겠다고.

그전에는 남편에 대한 사랑과 의무감이 나를 그길로 떠밀었지만 이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앞에 진짜로 떳떳해지고 싶습니다.

제 걸음을 막지 말아주십시오.

남편이 못다한 일을 끝내고서 돌아오렵니다.》

선경을 바라보는 일군의 얼굴에 공감의 후더운 빛이 어리기 시작했다.

《고맙소, 선경동무!》

4

그때로부터 1년후 막내딸 영이도 남포혁명학원으로 떠나갔다.

선경의 운명에 비쳐든 해빛은 생활을 약동하게 만들어주었고 선경의 일손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연구조의 다른 성원들과 기계화작업반장의 지혜가 합쳐져 운동칼날의 회전속도문제도 원만히 해결되어갔다. 벼수확기는 모든것이 마감단계에 들어서고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벼그루터기의 자름면이 일정하지 않은것이 애를 먹었다.

그러던 어느날 순금이가 선경을 찾아왔다.

《선경아, 좀 쉬었다 하렴.》

도면에서 겨우 눈길을 떼는 선경에게 순금은 방긋 웃으며 《내 좋은거 좋아?》하고 감질나게 만 들었다.

피곤이 몰린 선경의 눈이 커졌다.

《그래, 너도 뭐 좋은 생각이 떠올랐니?》

《앤 그저 자나깨나 수확기야. 머리쉽 좀 해라. 영이한테서 편지가 왔어.》

《응?》

뜻하지 않았던 반가움에 선경은 순금이가 쥐여 주는 편지를 받자마자 헤덤비며 봉투를 찢었다.

또박또박 박아쓴 고운 글자들이 영이의 얼굴마냥 엄마를 올려다본다.

《... 어머니, 제 걱정은 마십시오.

학원은 집이나 같아요. 모든것이 다 있어요, 동무들도 좋고 우리 선생님은 어머니가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께 기쁨드릴 큰일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도 엄마가 보고싶지만 참겠다고 결심했어요.

어머니가 보고싶을 때면 제가 조꼬말때 잠재워 주시며 불러주던 동요를 불러보곤 해요. 그러면 정말 잠이 잘 와요

어머니가슴은
잠드는 가슴
얼굴만 묻으면
잠이 오지요

어머니가슴은
꿈나는 가슴
머리만 대면
꿈이 오지요

어머니! 부디 앓지 마세요

사랑하는 딸 울림》

눈물이 펴 돌았다.

오늘 이 편지를 받으니 못견디게 딸이 보고싶

다.

아들 둘을 낳은 후에 본 딸이여서 신경이와 남편 학세가 그토록 애지중지하고 사랑한 애다.

잠든 모습을 들여다보며 부부간에 매일 하던 다툼...

《여보! 암만 봐야 이 앤 낱은게 더 많아. 이 흰칠한 이마두 내것, 눈두 내것, 선이 고운 이 입술두 내것... 어쩔 이 앤 이렇게 곱게 생겼을가. ...》

《아이참, 그럼 낱은건 뭐예요? 하나도 없어요?》

남편에게 다가드는 신경은 정말로 성을 낼 잡도리다. 그러자 학세는 느물느물 웃으며 신경을 달래려들었다.

《왜 당신 낱은것두 있지. 이 하얗고 보드라운 살결 (그러자 신경의 입이 조금 벌어진다.), 이 납작한 코...》

《뭐예요?》

풀릴사 하던 신경의 낯색이 또 굳어진다. 《아니예요. 코는 당신을 낱았어요. 눈두 낱았구 입두 낱았어요. 사람들이 영인 낱았다구들 하는데요 뭐.》

지지 않으려는 신경의 승벽에 학세는 하하 크게 소리내어 웃는다. 그리고는 신경의 어깨를 끌어안고 옷몸을 흔들거리며 학세는 다시 말했다.

《에- 이 어른이 양보한다. 부인, 내 상을 주리다. 뭐니뭐니해도 우리 영인 당신의 총명한 두뇌를 낱았소이다.》

그제서야 둘이 마주보며 즐겁게 터치던 웃음...

그 추억을 떠올리며 눈굽을 훔치느라니 손금이가 슬그머니 신경의 어깨를 껴안았다.

《신경이, 한번 가보렴 너도 엄만데...》

《순금이, 고마워. 하지만 애들두 이 엄말 리해할거야. 후날에 이 연구만 끝내면 달려가겠어.》

그리고 평양쪽하늘을 바라보며 아이들에게 속삭였다.

(영이야, 준이, 성이야!

그래, 마음껏 꿈을 꾸어라.

너희들이나 이 어머니도 시름놓고 잠들수 있고 꿈을 꿀수 있는 크나큰 어머니품이 우리를 지켜주고있단다.

그리고 기다려다오.

너의 아버지가 못다한 이 수확기의 성공을 우리 수령님과 지도자동지께서 기다리신다. 하루빨리 연구를 끝내고서 너희들에게 못다준 사랑을 내 백배로 기울이다.

다음날 아침 기계화작업반장이 일찌감치 신경의 합숙에 찾아왔다.

금방 식사를 하려고 상앞에 나왔던 신경에게 반장아바이는 제잡담 말머리를 떼었다.

《이보라구 연구사! 벼그루터기의 차름면이 고르롭지 않은 문제 말이요, 뭐 복잡하게 생각할것 없이 벼밀등의 높낮이에 따라 칼날이 자유로이 오르내릴수 있게 조절장치를 하나 붙여주면 어떨가? 이렇게, 이렇게 말일세.》

손시늉을 해가며 말하는 반장을 바라보는 신경에게 피땀 떠오르는것이 있었다.

(가만, 난 토지의 고르롭지 않은 면은 생각하면서 칼날은 왜 생각하지 못했을까. 칼날이 오르내리게끔 조절하면...)

금시 신경의 마음이 조급해났다. 손가락을 뺨개치고 일어났다. 그러다가 다시 주저앉아 수첩을 꺼내들었다. 한참 무엇인가 계산하던 신경은 앞에 앉아있는 반장에게 말했다.

《반장아바이, 될것 같아요. 가망있어요.》

신경의 온 얼굴에 웃음이 확 퍼졌다. 긴장해서 지켜보던 반장의 얼굴에서도 주름살들이 슬그머니 퍼진다. 《그래, 될것 같소?》

《그러므로. 야, 반장동지! 정말 고마워요.》

그날부터 신경은 목중하니 없었던 체중이 쑥 내려간듯 한 느낌이었다. 시간을 잊고 참고서를 들이파고 계산에 계산을 거듭해나갔다. 수치들을 계산하다가 도면에 옮겨그리고 또 계산하고...

성공의 날은 발뼉발뼉 다가오는상싶었다.

그러던 어느날 기계화작업반마당에서 반장이며 연구조성원들과 함께 한창 수확기칼날을 조립하던 신경은 함숙식모가 찾는 소리에 머리를 들었다.

《이보라구, 연구사! 손님이 왔어.》

식모의 등뒤에는 뜻밖에도 강좌장선생이 웃고 서있었다. 신경은 반가움에 기뻐 달려갔다.

《아니, 강좌장선생님! 여길 어떻게 오셨습니까?》

반백의 강좌장은 인자한 웃음을 띠우고 말했다. 《나? 신경선생이 보고싶어 왔지.》

그리고는 신경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그러더니 짐짓 엄한 기색으로 얼굴표정을 바꾸면서 잇달았다.

《신경선생은 너무해. 혼자 모지름쓰면서 동지들에게 도움을 청할 생각은 왜 안하나? 대학당위원회 비서동지가 우리 강좌에 우정 내려왔댔소. 신경선생이 객지에서 너성의 몸으로 벼수확기를 붙들고 수고하는데 자기를 대신해서 좀 도와주라구 그래서 이 머리 허연게 아직두 궁냥이 덜 트였구나 하구 머리를 쳤지.》

그러면 못써 우리야 학세선생이랑 다 얹혀진 사인데 도움을 청하면 못쓴다던가. 정말 섭섭했소. 이렇게 만나자마자 싫은소리는 하지 않으려는데 선생체신을 보니 욕이 나가누만.

선경선생, 우리 세상은 혼자선 못사는 사회주의제도가 아닌가. 그걸 여적 몰라서 혼자 씨름질인가.》

강좌장이 선경의 잔등이며 팔소매에 묻은 먼지를 툭툭 털어주며 말하는 동안 선경은 선생앞에 욱먹는 학생마냥 잠자코 말을 듣고 서있었다. 꿈지락거리며 땅바닥을 허비는 편리화얇고숭이에 푹 푹 눈물방울이 떨어지고있었다.

그것을 보자 강좌장은 목이 콧 잡겨오는것 같아 잠자코 선경의 잔등을 어루쓸었다.

이윽고 선경은 머리를 들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제 오늘을 잊지 않겠습니다. 욱을 더 해주세요. 그리고 절 때려주십시오.》

그리고는 어린애처럼 스승의 팔소매를 잡고 흔들었다.

《사람이 죽는 날까지도 험이 다 들지 못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절 칠없다고 리해하시고 노여움 푸십시오.》

그제서야 현민강좌장은 허허 하고 웃는다. 그 웃음에 긴장해서 지켜들 보던 사람들이 다 멋모르고 따라웃었다.

강좌장까지 내려와 도와주니 연구는 얼음판에 치쳐나가는 썰매인양 순탄하게 진척되어갔다.

드디어 쾌청한 가을계절이 왔다.

하늘은 높으나높게 건듯이 열리고 넓은 벌에는 누런 벼바다가 조용히 금풍 일렁이고있었다.

그날은 벼수확기의 최종시험날이었다.

남편이 연구지로 떠나오기 전 선경의 생일날에 사주었던 분홍빛머리수건으로 머리를 단정히 줄라맨 선경은 긴장된 마음으로 합숙문을 나섰다. 그런데 뜻밖의 기쁨이 가슴을 콧 메울줄이야.

《엄마!》

합숙마당으로 사랑하는 딸 영이가 총알처럼 구를러 달려들어왔다.

《아니?》

황- 가슴팍에 와안기는 영이를 불안고서 선경은 눈물을 머금었다. 《영이야, 네가 어떻게? 여기가 어디리구 네가 이렇게 왔니? 응?》

저도 모를 말마디들을 중얼거리며 선경은 영이를 품안에서 떼어냈다. 그리고는 정신없이 그의 얼굴을 뜯어보았다.

《영이야! 네가 몰라보게 컸구나. 이렇게 크다니...》

《어머니! 보고싶었어요. 엄마가 날 보고싶어한 다구 이 어머니가 날 데리구 왔어요.》

영이는 소년단넥타이를 맨 의젓한 자세로 서서 어른스레 말하며 슬그머니 뒤를 돌아보았다.

영이의 눈길을 따라 바라보니 손금이가 환하게 웃고 서있다. 며칠동안 얼굴을 보이지 않는다했더니 결국은 최종시험날에 선경이에게 이런 기쁨을 안겨주고싶어 먼길을 걸은것이다.

(순금이! 고마워.)

선경은 고마움의 눈빛에 이 말을 실어보냈다.

선경은 다시금 영이를 꼭 껴안았다. 그리고는 영이의 손을 잡았다.

《가자 영이야, 오늘 엄만 〈숙제〉를 검열맞히게 된단다.》

《데거- 엄마두 숙제가 있나?》

《그럼 아버지가 준 <숙제>지. 아버지가...엄만 그걸 끝냈단다.》

선경은 의아쩍은 눈길로 바라보는 영이를 보며 크게 웃기 시작하였다. 마음이 금시 저 푸른 하늘처럼 활짝 열리는것 같았다. 모녀의 당당한 웃음소리에 새떼가 파르릉- 하늘가로 흩어져 날아오른다. 일당무제한 벼바다 한가운데로 수확기가 천천히 움직여나가고있었다.

모든 기계장치들이 정상으로 가동하고있었다.

드디어 선경이네 연구조가 성공한것이다.

맑은 눈물이 벌에 탄 선경의 볼에 줄지어 흘러내렸다. 장쾌한 광경을 바라보며 선경은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영이 아버지! 기뻐하세요.

드디어 우리 수령님의 념원을 꽃피우려고 그토록 아글타글 애쓰던 당신의 뜻을 실현했어요.

난 이제 당신앞에 떳떳한 녀자가 되었어요.)

선경은 망연한 자세로 서서 하많은 감정의 조각들을 꿰임없는 말마디들로 하냥 퍼내고 또 퍼내고있었다. 아, 사람은 정녕 이 멧에 사는걸가.

그후 선경은 기계공학박사의 학위를 수여받았다.

세월이 흘러 맏아들과 막내딸이 김일성종합대학의 대학생이 되고 둘째 아들이 군사복무를 하던 80년대말엽에 선경의 가정에는 뜻밖의 경사가 생겼다.

교육부문에 깃든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수록한 기록영화를 만드는데 그중에 선경의 가정에 돌려주신 장군님의 덕성이야기와 함께 자식들의 성장모습도 반영하게 되었던것이다.

텔레비죤으로 방영되는 그 기록영화를 보며 끝없이 마음속으로 하많은 말을 속삭이는 한 녀인

이 있었다. 황해도 서천벌의 농산작업반장, 선경의 소꿉동무 순금이였다.

(내 동무 선경이! 나는 너의 오랜 친구지.

너의 생활의 전반부분이 내 눈앞에서 흘러갔다 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거야.

남편을 잃고 연구차로 고향에 내려온 너를 처음 만났을 때 난 마음속깊이 널 동정했어.

시종일관 그 동정심이 내 마음속에서 떠나질 않더구나. 그 동정심이 널 돕게끔 하기도 했고 하지만 그후 어버이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사랑이 널 몰라보게, 흠뻑 키가 크게 만들었지. 난 정말 생각이 좁은 농촌아낙네였어. 남편이 없으면 너자는 다라는 왜소하고 편협한 생각...

선경아, 난 정말 장해. 당의 사랑을 받아안고 수도의 대학에서 교편을 잡고있어도 너를 보고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을거야. 그런데 너는 수령님과 당의 뜻을 꽃피우려는 남편의 의지를 심장에 받아들이고 그 길에 서슴없이 자길 세웠지. 그래서 오늘날엔 창조하는 너인으로 세상앞에 떳떳이 서게 된것이고...

너를 보며 생각한다. 우리 당에서 안겨주고 시대가 주는 복도 자기 자신이 어떻게 창조하고 빛내이는가에 따라 더 커지고 아름다워진다고 말이다.

선경이! 정말 네가 부럽구나. 난 정말 세상에

떳떳한, 진짜로 복있는 너자야.)

×

그때로부터 세월은 많이도 흘렀다.

세기가 바뀌어졌다.

당의 사랑속에 혁명학원을 졸업하고 대학을 나온 선경의 자식들은 성, 중앙기관의 어엿한 일군들로, 한가정과 자식들을 거느린 장년의 어른들로 성장하였다.

손자, 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면 이 애들은 나의 어린시절과는 너무도 판이한 운명의 걸음을 떼었다는 생각을 선경은 때없이 하곤 한다.

글을 쓰고싶던 선경의 꿈은 막내딸이 꽃피웠다. 단편소설로서 《어머니의 노래》란 작품을 들고왔을 때, 그밤 선경은 저절로 자꾸만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을념 않고 온밤을 앓아있었다.

선경의 눈앞에 우렁이 떠오르는 벽성골안의 자그마한 초가...

생각만해도 서글픈 그 환영을 밀어버리며 떠오르는 사랑하는 남편과 자식들의 행복한 모습...

아! 가슴속 그들먹이 차오르는 하많은 사연... 복받은 이 너인의 이야기를 세월이여, 네가 말해다오.

오, 금별메달

김명옥

쓰러지면서도

두팔 가득 안고간것이 땅이어서

꽃나이 청춘과 서슴없이 바꾼것이 조국이어서

주작봉마루 혁명렬사릉에

우리 수령님 금별메달을 빛내주셨는가

피덩이같은 자식을

남의 집 문전에 맡기고

피어린 항일전에 나선 너투사도 있었다

땅이 없어 땅때문에 머슴이 된 너인

어머니젖내대신

어머니젖품대신

땅내를 더 많이 맡으며 땅을 주무르며 자란 풀머슴

조국을 찾기 위하여 한줌 흙 가슴에 품고

항일전에 나선 전사들을 못 잊어

우리 수령님 이 언덕에 빛내주신 금별메달

붉은기 날리는 주작봉마루

혁명렬사릉에 송엄히 빛나는

금별메달이여

가슴에 빛나는 금별메달이라면

이리도 눈시울 젖으랴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찾은 조국

대를 이어가며 지키고 빛내준 조국이어서

땅이 금별메달을 품었는가

금별메달이 땅을 품었는가

애국의 피로 후덥고

애국의 숨결 드높은 땅

애국의 넋이 영생하는 조국

이 땅이 투사들의 넓은 가슴이어서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 조국과 더불어 빛내주신

아, 대성산혁명렬사릉의 금별메달이여!



김경일 그림 김광석

1

바늘떨어지는 소리마저 들릴듯싶은 도미술창작사 수예창작실의 고요속에서 일하던 내가 원산청년발전소건설돌격대에 탄원해온지도 벌써 한해가 지났다. 첫날 온 중대앞에서 웃음가마리가 되었던 것이 바로 어제같은데...

스물두살이 되도록 거의 어머니결을 떠나보지 못했던 나였다. 가뜰이나 소심하고 잔부끄럼 많은 나는 처음 중대에 배치되어 술한, 남자들앞에 섰을때 그만 눈앞이 아찔해졌다. 심잡이 활랑거리고 오금이 저렸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긴 하지만...

바로 그때 호기심어린 눈으로 우리 신대원들을 지켜보며 싱글거리는 남대원들속에서 나는 낯익은 얼굴을 띠어보았다.

신철규! 소꿉시절 다정한 동무였던 철옥이의 둘째오빠... 철옥이에겐 오빠가 둘이었다. 만오빠는 터울이 심한데다 늘 책에만 파묻혀사는 《문학소년》이어서 별로 어울릴 기회가 적었다. 반면에 감때사나우면서도 인정깊던 철규오빠와는 웃음과 눈물로 늘쌍 엮혀돌아갔었다. 그때 나의 심정을 무어라고 말했으면 좋을런지. 그야말로 멀기치는 망망대해에서 등대불을 발견한 심정이랄가.

《철옥이 오빠!》하고 소리쳐부르며 달려가고싶은 마음을 가까스로 억제하자니 내 얼굴은 한껏 달아오르고 숨결마저 가빠졌다.

그만에야 그도 나를 알아본 모양이었다. 두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나한테로 다가왔다.

《가만... 동무이름이 혹시... 정혜 아니요?》

내가 수집게 웃으며 살며시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놀랍게 부르짖었다.

《글쎄 어쩐지... 정혜가 맞지! 히야!... 몰라보게 달라졌구만. 아이뎌 올보에다 코가 한발씩 나오었는데. 내가 매번 코 닦아주고 얼굴이랑 씻어주던게 생각나오?》

흐흐하하 폭소가 터져올랐다. 찰나에 《등대불》은 꺼지고말았다. 너무도 분하고 수치스러워 병실뒤로 뛰어가 한식경이나 눈물을 흘렸다.

한주일이 넘도록 그와 말도 나누지 않았다...

장석채취장에서 우리는 우연히 한조가 되어 수굴작업을 한적이 있었다. 아직 서툴게 함마질을 하던 내가 그만 헛방을 놓아 그의 손등을 들이쳤다. 살갓이 터지고 피가 흘렀다. 그보다 내가 먼저 비명을 지르며 함마를 떨어뜨렸다. 황급히 손수건을 찢어 처매주며 나는 울먹거렸다.

《철옥이 오빠, 미안해요. 내가 아직... 우정 그런건 아니예요. 몸이 아프지요?...》

그는 타고난 성미 그대로 대범하게 웃어보였다.

《미안하긴. 나 역시 가끔 정혜한테 실수할 때가 있겠는데 뭐. 나도 그땐 손수건을 찢어서 잘 감아주지.》

나는 흠칫 놀라 물러섰다. 끔찍했다. 함마가 나도 때릴수 있다는 생각에 다리가 다 떨렸다. 정대를 잡아줄때마다 금시 무쇠함마가 날아들어 뼈를 바스는 환각이 떠올라 나는 몸서리를 치곤 했다.

여러날이 더 지나서야 그의 말이 룡인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눈을 감고도 한번의 실수없이 천오백번을 채울만큼 함마명수였던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점차 소꿉시절의 옛정을 회복했다. 그래도 첫날에 있던 일이 늘 목구멍의 가시처럼 따끔거리 나는 어느날엔가 기어이 짚고 넘어가고야말았다.

《철옥이 오빠 뒤편에요, 생똥같은 거짓말로 날 망신시키면서...》

《왜? 내가 코를 영 안닦아준것두 아니지. 우리 할머니가 그러는데 아이때 코를 많이 흘리던 사람들이 크면 머리가 비상해진다누만.》

《음, 또 거짓부리.》

그는 씩 웃어보였다.

《미안해. 그대들 모두들 한바탕 웃었으니 정현 첫날부터 동무들한테 웃음을 선물한셈이지 뭐.》

그는 그때 우리 소대의 평대원이었는데 온 중대가 그를 선망 어린 눈길로 바라보았다. 어려운 모퉁이마다 한몸을 성큼 내대는 그의 호협하고 담찬 기질과 거의 한꺼도 번짐없이 어린 동무들에게 잡곡밥이나마 덜어주는 따스한 인정미… 멋지게 타는 기타소리는 또 어쩌나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주던지…

그때만 해도 우리 중대는 열흘총화나 월총화에서 앞자리를 놓쳐본적이 거의나 없었다. 중대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듯 했었다.

그런데 한해가 지난 오늘 형편은 달라졌다. 총화때마다 남들의 성과를 부럽게 건너다보며 도리깨침을 삼키기가 일쑤였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서로의 마음이 하나로 합쳐지지 못하고있는것이 근본원인이 아닐까? 찍하면 티각이 나고 저마다 목소리를 곤두세우고… 이런것을 두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오른다고 하는지…

얼마전부터 중대장마저 결원이어서 몇달전에 1소대장으로 임명된 철규오빠가 립시로 대리중대장을 하고있다. 그도 어지간히 지쳤는지 요즘엔 때없이 불끈거리고 자그마한 일에도 짜증을 낸다. 아침에 우리 처녀들이 화장을 하느라고 조금만 늦어져도 화를 내곤 했다.

《무슨 차비가 그리 오래? 동무네도 돌격대원 이야. 돌격대원이면 돌격대원답게 전투적으로 살아야지!》

나는 그의 처사가 민망스러워 저도 몰래 얼굴을 붉혔다.

립시지만 중대를 책임진 그의 립장이 리해가 되면서도 한견으로는 섭섭했다. 그래도 우리는 한창나이 꽃시절에 사는 처녀들이 아닌가. 《전투적》으로?! 그렇게 하는것이 《전투적》으로 사는 것일까?!…

팔랭이인 광숙언니가 두덜거렸다.

《종구나, 뭐. 다 같은 돌격대원이니 이제부턴 남녀구별이 없겠구나. 누구든지 피부리면 꿈무니도 차고…》

처녀들이 새뱃처럼 재잘거렸다.

《그래요. 식당근무도 좀 서보래요.》

《웃도 자체로 빨라지오 뭐!》

《물도 같이 긴자요!》

이때 제일 어린 명금이가 엉뚱하게 끼여들었다

《술두 같이 마시구…》

아연해진 처녀들이 일시에 입을 다물었다.

광숙언니가 썩 다가가 그의 상큼한 코날을 킁겨주며 시까슬렀다.

《넌 제일 꼬꼬만게 감히 언니들앞에서…》

《언니나요 뭐? <형님> 들이지.》

그만에야 처녀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아무튼 그때부터 우리는 알심있게 미안을 하고 이쁘게 화장을 하던 그 즐거운 시간을 아쉽지만 줄이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야말로 번개불에 콩다듯 건성건성 흉내나 피우곤 했다. 그 아쉽던 심정도 며칠이 지나자 절로 사그라져버렸다. 여기는 돌격대, 거창한 산악같은 언제를 일떠세우는 불꽃튀는 전투장이 아닌가.

우리가 쌓는 언제는 사석언제이다. 중심강토용 찰진흙과 그 량옆의 순수한 모래층, 그다음 석비레와 잔돌로 된 사석층을 동시에 다짐해야 한다. 지휘부에서는 언제쌓기와 장식입히기, 물길굴뚝기를 동시에 내밀었다. 모두가 언제를 하루빨리 쌓아 경애하는 장군님께 완공의 보고, 승리의 보고를 드릴 하나의 마음으로 밤낮이 따로없이 뛰고 또 뛰었다.

우리 중대는 사석채취와 상차를 맡아했다. 모두들 떨어진 중대의 명예를 추켜세우기 위해 부지런히 일했다. 하지만 왜서인지 일자리가 나지 않았다. 철규오빠는 신경이 살아 공연히 목소리에 날을 세우고… 정말 사람이 왜 저럴까? 어제날의 그 인정받던 철규오빠는 어디로 가고 어떻게 변했는지…

오늘 한사람이 새로 배치되어왔다. 나이는 서른네댓쯤 되었을가?...

별로 거울진 체격도 아닌 사람이 하루종일 말도없이 억척스레 삽질을 하고 함마를 휘두르는 솜씨에 우리는 입을 딱 벌렸다. 철규오빠가 그의 일손을 멈춰세우고 감탄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좀 쉬지요 뭐. 첫날에 기운을 다 빼면 어찌겠습니까.》

가느스름한 눈매를 찡뜨리며 그 사람은 어설플큰 미소를 띠었다.

《고맙소, 소대장동무. 헌데 힘이란건 아끼면 아낄수록 줄어든다더구만. 쓰면 쓸수록 늘구...》

문득 철규오빠의 얼굴이 놀란 표정이 떠올랐다. 한참동안이나 상대방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갑자기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획 돌아섰다.

《힘은 아낄수록 줄구 쓸수록 는다... 명답인데요? 동철이!》

우스개소리 잘하고 지긋기로 또한 유명한 동철동무가 제격 한발 나섰다.

《이자 그 말 수첩에 적어두라구!》

내뻘듯이 말한 철규오빠는 고개를 돌려 그 사람을 한번 더 바라보고는 머리를 수긋한채 상차대쪽으로 가버렸다. 나는 영문을 알길없어 고개를 기웃거렸다. 철규오빠가 갑자기 왜 저럴까?...

더 놀라운 일이 꼬리를 물었다.

저녁녘에 러단참모장동지와 대대장동지가 우리 작업장에 왔다. 새로 온 사람이 결괏이기로 소문난 참모장동지에게 다가가 말없는 걱정속에 포옹

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깜짝 놀랐다. 온 중대가 짙은 호기심을 품고 그들의 뜨거운 상봉을 지켜보았다.

이어 가까이 다가온 대대장동지가 새 사람을 뜻밖에도 우리의 중대장으로 소개했다. 이름은 홍성광, 제대되어 여러해동안 시건설사업소 청년 동맹비서사업을 하던 일군이란다. 정말 능청스러운 사람이다. 어쩌면 그리도 시치미를 딱 뻗담? 그런 내속을 누구도 몰랐던지라 그는 중대의 어수선하고 거친 분위기를 고스란히 감수했으리라. 파목하다 할만치 조용해보이는 그가 삼뭉치처럼 얹힌 중대일을 이제 어떻게 키잡아나갈런지...

다음날 아침, 지긋은 호기심과 기대에 젖은 눈빛들이 말없이 새 중대장을 지켜본다. 무슨 말부터 할가. 아무 일이나 시작이 중요하고 사람은 첫 인상이 중요한것이다. 내 마음도 별스레 긴장해졌다.

뜻밖에도 그가 저력있고 강단이 느껴지는 목소리로 나직이 웅쳤다.

《중대 외모정돈!》

참으로 오랜만에 들어보는 구령이었다. 아침일찍부터 현장진출에 급급하다보니 몇달째 중대는 외모점검구령의 요구를 지켜볼 사이가 없었다.

첫 인사말로는 레외인지라 대렬속에선 가벼운 웃음발이 일었다. 나도 그만 기대가 풀려 픽 웃어버렸다. 그러면서도 새 중대장의 정갈한 차림새를 새삼스럽게 여겨보았다. 눈부시게 하얀 목달개, 다림발이 선 작업복, 끈을 꼭 졸라맨 로동화... 그에 비하면 우리의 차림차림은 금시 벼랑을 뚫아오르고 가시덤불을 헤쳐 나온 모양이었다.

중대장이 복장정돈상태를 한사람한사람 검열했다. 작업복혼술이 터지거나 단추가 떨어진 몇사람이 지적되었는데 그속엔 철규오빠도 있었다. 그가 모욕감을 참으려고 무진 애를 쓰는것이 내보기에도 알려졌다.

《퇴치시간은 5분! 병실 앞으랏!》

늘쌍 그랬던대로 몇몇 처녀들이 거들어주려고 무심히 한발 나섰다가 땀짜게 면박을 당했다.

《도와줄게 따로 있지. 돌격대원은 응석받이가 아니요. 모든걸 제손으로, 제힘으로 하는 버릇을 키워야 하오.》

몇몇 남동무들이 수군거렸다.

《좀생원이 아니야?》

《젠장, 똥여울을 만났군.》

잠시후 저으기 면모가 달라진 대오를 향해 새 중대장은 말했다.

《중대가 꼭 명예를 회복하리라고 믿습니다. 군센 동지적단합과 강철같은 규률, 자체의 힘으로 모든 난관을 헤쳐나가려는 완강한 의지, 이것이면 됩니다.》

약속합니다. 다음 경쟁에서도 중대가 앞서지 못할 때엔!...》

새 중대장을 바라보는 얼굴들에 다시금 긴장이 흘렀다.

새 중대장은 싱긋 웃음을 띠우며 말을 이었다.

《저 언제까지 손목잡고 달리기경기를 조직합시다. 될수록이면 사이가 나쁜 사람들끼리 짝을 무어서! 어떻게습니까!》

여기저기서 웃음이 피었다가 잦아들었다. 어느새 대렬속엔 활기가 은근히 퍼들기 시작했다.

작업장에 진출했다. 상차대에 사석을 쌓았다가 대형화물차에 실어보냈다. 상차대밑에 차가 적재함을 들이밀면 가운데의 직4각형모양의 출구를 통해 사석을 떨어구어 채우곤 했다.

새 중대장은 상차대가 빌 때마다 그우에 올라서서 유심히 살피곤 하더니 1소대장인 철규오빠를 손짓하여 불렀다.

《1소대장동무, 이걸 좀 개조해볼수 없을가?》 철규오빠가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외로 틀었다.

《이래봐두 이쯤 완성되는데 몇달이 걸린줄 압니까?... 난 남자로력보충문제가 더 급하다고 봅니다. 보십시오. 처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열성만 가지구야 됩니까. 이악들은 하지만 복작거리기나 했지 무슨 일을 치겠습니까?》

저 오빠가 정말! ... 가까이에서 삼질하며 귀동냥해듣던 나는 그의 뒤돌미에 눈총을 쏘아박았다.

《하긴 그렇지?》

예상으로 중대장이 선선히 맞장구를 쳤다.

《모두 산판에 보내서 산나물이나 뜯게 할가?》

웃음어린 눈길로 철규오빠를 지켜보며 중대장이 능청스레 말했다. 철규오빠가 시선을 피하며 헛기침을 토했다.

《뭐 그렇게까지야... 그렇잖아도 오늘계획이...》

그는 그만 말꼬리를 놓치고말았다.

중대장이 빙긋 웃으며 그의 어깨를 툭 쳤다.

《자, 우리 통담한셈치기요. 그건 그렇구, 좀 보우. 역시 간단한 원리요. 기록영화에서랑 봤지요?》

그는 서해갑문건설때 집채같은 바위들을 바다에 처넣던 자동부림식배의 작업모습을 두손바닥을 이어붙였다가 짹 갈라 형상해보였다.

대원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다.

《그런 식으로 이 출구에 자동문을 달아보잔 말이요. 결심하고 달라붙으면 못할게 없소.》

정말 문을 달고 그우에 사석을 쌓았다가 열면 장쾌하게 쏟아져내릴것이다. 지금은 출구주변에 무덕무덕 무저놓았다가 매번 뽕양게 달라붙어 삽질하곤 했다.

《거참 신통한데요!》

우리 녀자들에게 흥클하기로 유명한 동철동무가 뜻밖에도 선참 지지해나섰다. 웬일인지 철규

오빠만은 소래섬은 낮빛으로 고개를 틀었으나 다음날부터 즉시 자재구입과 제작이 시작되었다.

한주일후 마침내 무동력자동문시운전을 하게 되었다. 온 중대가 지켜보는 속에서 동철동무가 마지막뭇을 박았다.

밑에서 기다리던 운전사가 참다못해 재촉했다. 《어찌자는거야? 오늘 내 경쟁점수가 빵점이 되는걸 보자구 그래?》

동철이 손에 든 망치를 흔들며 맞받아 소리쳤다.

《운전사동지! 이제 요술을 보여줄테니 잠깐만 참으십시오.》

마침내 중대장동지의 구령소리가 울렸다.

《맞들이!》

대기하고있던 맞들이들에서 사석사태가 쏟아져 내렸다.

《상차!》

고정결쇠의 손잡이를 잡아채자 절걱 문이 열리며 적재함이 순식간에 가득 채워졌다. 동시에 우수작용으로 문이 스르르 올라갔다.

《히야!》

모두들 환성을 내뿜었다. 우리 처녀들도 탄성을 지르며 쿵쿵 뛰어올랐다.

동철동무가 차를 향해 신이 나서 웨쳤다.

《운전사동지, 어때요!》

《그거 참 멋들어진데! 난 또 무슨 도깨비판인가 했구만.》

중대장이 동무들을 정겹게 둘러보았다.

《동철동무랑 수고 많았소. 보시오 마음이, 이 정신이 기본이요. 하자구 마음먹구 달라붙어 머리를 쓰면 못해낼 일이 없단 말이요.

이런 상차대를 더 만들어 세우자구. 절약되는 시간과 로력이면 능히 운영할수 있겠소.》

모두가 자랑과 기쁨에 넘쳐 싱글벙글했다.

문득 동철동무가 랑패한 어조로 말했다.

《이제 경쟁에서 1등은 먹어놓은 떡이니 달리기 경진 다 했군요. 섭섭하게두...》

《동철동문 뭘내기를 좋아하는 모양이구만.》

《좋아하기야 뭐... 중대장동지가 나쁜 사이끼리 짝을 못자고 하잖았습니까. 마침 우리 중대 처녀들은 대개 날 싫어하거든요. 그래 날 흘겨보는 처녀란 처녀는 몽땅 거느리구 뛰어볼가 했겠지요. 렬차놀이하듯.》

물방으로 목소가 터져올랐다.

이악쟁이 명금이가 생글생글 웃으며 나섰다.

《요즘 같아서야 누가 동철동지를 미워하겠나요. 막 달라지는게 알리는데.》

그렇다. 새 중대장이 온 다음부터 확실히 중대 분위기가 일신되어가고있었다.

중대장이 동철동무의 어깨에 게발린 흠문지를 털어주며 말했다.

《일도 중요하지만 정구적면모에도 항상 관심해야겠소. 우리 건설장은 장군님의 전선길과 직접 잇닿아있는 곳인데... 규률과 외모는 우리들 마음의 반영이라고 할수 있지. 우리 티 한점없이 순결한 마음들에 굳센 의지와 신념의 언제를 먼저 쌓자구.》

나는 내심 놀랐다. 마음속의 언제, 의지와 신념의 언제... 첫날부터 떨어진 단추 하나, 찢어진 혼술 한뼘에도 것처럼 초점을 모은것이 바로 그때 때문이었구나!

어쩐지 지쳤던 몸이 홀가분해지고 내 마음은 비온 뒤 파아란 하늘마냥 상쾌해졌다. 모두들 기쁨에 겨워 싱글벙글하는 모습들이 이채로웠다.

문득 생각이 미쳐 둘러보니 철규오빠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호 한숨을 내그었다.

요새 철규오빠는 정말 이상했다. 항상 잔뜩 찌프러진 인상을 해가지구 말도 잘하지 않는다. 더우기 새 중대장을 마주보기 꺼려하는것 같았다. 중대장은 항상 웃는 모습인데도 그앞에 서면 주눅이 든듯 그의 눈길을 슬며시 피하곤 한다.

왜서일까?...

철규오빠, 대체 요즘 왜 그러세요? 때없이 심란해하구 성을 내구... 오빠가 그럴 때면 막 애가 타구 속이 상해 죽겠어요...

마가울의 찬바람에 마지막나무잎들이 우수수 흩날렸다...

2

아득한 길이와 수백미터의 밀면폭을 가진 언제는 자기의 웅자를 드러내며 한치한치 솟아오른다.

마식령산줄기의 박달령과 추개령사이로 엄혹한 겨울의 차디찬 바람이 불어내렸다.

제일먼저 진흙채취장이 콘크리트마냥 얼어붙어 언제중심강토의 진흙다짐이 중단되었다. 여기엔 한점의 언 진흙도 섞여서는 안되는것이다.

중심강토의 로출부는 우리 돌격대원들의 발명품인 《가랑잎보온재》로 두겹 세겹 보온되었다.

엄혹한 추위와 모진 칼바람속에 사석과 장식채취가 계속되었다. 우리는 정대와 함마로 발과구멍을 꿰고 폭파한 다음 균렬이 간 짬에 정을 박고 바위를 뜯어냈다.

수시로 눈이며 땀을 허비는 세찬 바람, 지겹게도 입안에서 자금거리리는 모래알...

이런 속에서도 중대장동지는 숨웃마저 벗고 함마를 휘두른다. 달아오른 몸에선 땀발이 번들거리고 뜯김이 서려오른다. 잠간이라도 일손을 멈추면 땀에 젖은 옷이 갑옷처럼 곳곳이 얼어들 판이다.

나도 가쁜숨을 몰아쉬며 함마질을 했다. 못건

디게 힘들었다. 맨땅에 풀썩 퍼더버리고 앉고 싶었다. 말끔히 즈액을 쥐여뜰듯 온몸이 나른해져 천길나락으로 잣아들었다.

저도 몰래 일손을 멈추었다. 이제 겨우 몇십메터밖에 오르지 못한 언제체가 허연 입김너머로 어설픈게 바라보였다. 새삼스레 맥이 풀렸다. 아, 정말이지 힘들구나, 힘들어... 조금만이라도 좀 쉬었으면, 다문 조금만이라도... 문득 이 가혹한 겨울이 영영 물러가지 않을것만 같은 어망치망한 환각이 짜릿하게 마음의 벽을 긁었다.

나는 깜짝 놀라 도리질을 쳤다

아니야! 이래선 안돼. 이래선... 난 정말 너무나 약해. 모두가 이겨내고있는데... 저 어린 손남이나 명금이라도 이를 악물고 견디어내고있는데...

그러나 눈앞엔 정가롭고 훈훈한 정든 창작실이 환영처럼 떠오른다. 창문가득 비쳐드는 해살, 줄줄이 늘어져 아롱아롱 빛나던 금빛은빛의 색실들... 나는 다시 고개를 흔들었다. 자꾸만 나약해지는 마음을 애써 줄라매고 함마를 쳐들었다. 앞엔 철규오빠가 정대를 어깨에 떠받치고 돌아앉아있다.

정혜! 기운을 내! 오백번을 채우기 전엔 절대로 다시는 멈추어선 안돼!...

나는 자신을 향해 마음속으로 부르짖었다. 자루를 움켜쥔 손바닥의 찌르는듯 한 아픔이 철철 희미해진다. 《정혜, 이젠 바꾸자구.》

나는 자리에서 움쭉 일어서려는 철규오빠의 어깨를 눌러 다시 주저앉았다. 아니, 조금만 더, 조금만...

이 오빠도 근간엔 몹시 지친 기색이다. 그리도 호기등등하던 그가 이즈음 만 사람으로 변했다. 더우기 이해할수 없는 점은 중대장과의 관계이다. 어쩌서 보조를 맞추지 못하는걸까. 어제도 둘사이의 공기가 팽팽했었다. 사실은 별치 않은 문제인데...

중대가 말은 공사량에 비해볼 때 공급되는 화약이나 정대가 어방없이 모자랐다. 이에 대해 철규오빠가 불만을 터쳐놓았다. 그리고는 술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제가 가서 더 받아온다는 것이었다. 정말 그에선 그럴만한 《힘》이 있었다.

돌격대년한이 적지 않은데다 성격이 호방하니 대대와 려단에 너나들이로 지내는 사람들이 수드룩했다. 이미전에도 요긴한 대목마다 중대가 그의 덕을 톡톡히 입군 했었다.

그런데 성광중대장은 반대했다. 대견하게 어깨를 두드려 밀어보낼 대신 두말없이 《셋! 뒤로돌아!》 한셈이었다. 철규오빠는 고리눈을 치켜올렸다.

《중대장동진 그렇게도 욕심이 없습니까? 경쟁에서의 승패가 여기에 달렸단 말입니다.》

중대장동지가 찬찬히 그를 바라보았다.

《우리 중대가 배를 불리면 꼭 어느 다른 단위가 그만큼 배를 굶기 마련이요. 밥상에서 성차지 않다고 부모나 형제의 밥그릇에 손을 뻗치는 인간을 동문 봤소?》

철규오빠는 이번에도 중대장의 시선을 피했다. 고개를 들고 먼산을 바라보며 씩 황소숨을 내불었다. 비자루같은 흰 입김이 쏟아져나와 바람결에 날려갔다...

성광중대장이 오기전만 하여도 철규오빠는 우월감과 자부심에 넘쳐있었다. 그런데 확실히 달라져간다. 때없이 한숨을 내쉬고 그 어떤 피로운 상념에 쫓기는 사람처럼 남몰래 머리를 싸쥐는 모습조차 내 눈에 걸려든적이 있었다. 중대장때문일까? 중대장의 남다른 결단력과 로숙한 자질에 그가 자격지심을 느낀것일까?

나는 무작정 철규오빠를 옹호하고싶었다. 중대장이 별스레 철규오빠를 무시하고 지리누르는것만 같았다. 기분이 잡쳐질 때도 없지 않았다. 얼마간 결함이 있다해도 자기가 오기 전에 중대를 이끌었던 사람이 아니가. 대원들의 면전에서나마 잠깐 몸을 비켜 부딪침을 피한다 해서 중대장자신에게 해되는것이 무엇이라. 사내들의 뿔돋힌 자존심이란 참...

문득 누군가가 내 팔을 잡는 통에 나는 놀라서 돌아보았다. 성광중대장이었다. 《왜 장갑을 벗었소? 그러다 손이 얼면 어찌자구.》

내 손을 끄당겨보던 중대장의 얼굴이 불시에 굳어졌다. 나 역시 섬찝했다. 온통 물집이 터지고 피물이 흘러내려 보기에다 처참했다. 손을 잡아채서 가무리던 나는 홀연 눈곱이 달아올랐다. 가카스로 눈물을 참아낸 나는 나를 지켜보는 중대장의 눈에서 안타까움과 피로움의 감정을 읽었다.

혹 중대장동지가 맥폴리고 나약해진 내 속마음을 들여다본건 아닐까? 요만한 시련앞에서 이게 무슨 꼴이람?... 언제인가 중대장동지는 신념과 의지의 언체를 마음속에 먼저 쌓자고 했었지. 티없이 순결한 량심의 언체를... 그런데 내 마음속의 언체엔 어느새 금이 간것이 아닐까? 아직도 헤쳐야 할 시련과 고비가 허다한데 이를 어쩌면 좋아!...

나는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그러지 마세요... 중대장동지가 그러면 우리 녀자들 마음이 더 약해져요...

그는 자기의 장갑을 벗어 말없이 내 손에 끼워주었다. 그는 추위속에서 지친 대원들을 한사람 한사람 부축하며 격정에 넘쳐 말했다.

《힘들을 내자구! 오래지 않아 불야경이 펼쳐질 우리 고향땅을 그려보자구. 이제 꼭 행복속에 이겨울을 추억하게 돼!》

이때 얼마전부터 중대선동원사업을 하는 동철

동무가 열기찬 어조로 부르짖었다.

《동무들! 겨울을 이겨내면 꼭 봄이 온다. 이 고난을 뚫고나가면 반드시 찬란한 래일이 온다! 혁명적군인정신을 창조한 안변청년발전소 군인건설자들을 생각하자! 맨손으로 물길굴을 연 그들의 심장을 태우던 불을 우리의 심장속에도 지펴올리자! 승리를 위하여- 하나! 둘! 셋!-》

웬일인지 눈썹리가 확 달아오르고 심장은 새로운 박동으로 세차게 풀떡인다.

우리는 청을 다해 맞받아 뱉었다.

《래일을 향하여- 하나! 둘! 셋!-》

함마로 내려치는 정머리마다에서 파란 불씨들이 튕겨났다. 누군가의 선창으로 노래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복두칠성 저 멀리 별은 밝은데
아버지장군님은 어데 계시는가
...

지금 이 시각에도 멀고 험한 전선시찰의 길에서 우리의 모습을 그려보고계실 자애로운 아버지장군님!...

올해 초여름 우리 언제건설장을 찾아주신 장군님께서 얼마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셨던가.

이처럼 큰 발전소를 건설하면서도 나라에 손을 내밀지 않는것을 보면 참으로 용타고 모든것을 자체의 힘으로 해내겠다니 용타는 말밖에 해줄것이 없게 되었다고...

이후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대형화물자동차들이 지축을 울리며 달려올 때 우리는 걱정애 넘쳐 만세를 부르며 목메여 흐느껴 울었다...

이날 우리는 어느 소대나 할것없이 계획량을 넘쳐 완수하였다.

밤에 명금이는 내 가슴에 얼굴을 묻고 속삭였다. 《정해언니! 정말 기뻐요. 난 더는 견디지 못할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힘이 막 솟구칠줄은... 정말 우리 도시가 불빛으로 환해지면 얼마나 멋질가요. 앞날을 생각하면 막... 다신 나약해지지 않을래요...》

《장하다, 명금아. 정말 용해. 네앞에 부끄럽구나...》

나는 내 손 못지 않게 터갈라진 그의 두손을 오래도록 어루췄었다...

올해 마지막복기경쟁을 마감짓는 날이었다.

어느때보다 일찍 식사를 끝내고 공구준비를 갖춘 중대가 제빨리 마당에 정렬했다. 그 어떤 이름할수 없는 흥분과 초조감이 대렬속에 떠돌았다.

중대는 치열한 전투로 경쟁에서 앞선 상태였다 하지만 자만할수는 없었다. 어느 중대할것없이

질풍같이 내달리는 조건에서 승리가 확고히 우리의 것으로 되리라는 담보는 없었다. 오늘 하루의 실적으로 승패가 결정될수도 있었다.

성광중대장이 날카로운 시선으로 전중대를 쪽일별했다. 이제 짙막하고도 격동적인 호소를 토로하고나서 신속히 대오를 전투장으로 출발시킬것이다.

그러나 예상이 뒤집혔다.

《너동무들은 대렬 3보 앞으랴!》

우리는 영문을 몰라 눈들을 까박거리며 대렬밖에 나와 한줄로 길게 늘어섰다.

《1소대장동무! 기본대렬을 작업장으로 인솔하십시오!》

이어 마당엔 우리 처녀들만이 남았다.

금시 떠오른 아침해를 등지고 선 우리의 길은 그림자가 길쭉하게 뻗어 중대장동지의 발치에 머물렀다. 마치 그림자가 실체이거나 한듯 중대장동지가 슬며시 한걸음 물러서는 바람에 우리는 저저마다 눈웃음을 지었다.

웬일인지 중대장동지가 저으기 깔린 목소리로 나직이 말했다.

《동무들은 하나같이 젊구 자기의 미를 제손으로 가꾸어야 할 처녀들이요. 그런데 틀렸소! 아무리 일이 어렵고 몸이 지쳤다고 해도 녀성으로서의 본분을 잊어서는 안되오.》

우리는 모두 어안이 병병해졌다. 대체 우리가 무엇을 어쨌단 말인가. 우리가 힘은 따르지 못할지라도 남자들보다 못한것이 무엇인가.

까닭없이 성난듯 한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30분을 주겠소. 단 한명도 빠짐없이 화장을 다시 하고 작업장에 도착하십시오. 다시말하지만 동무네는 돌격대원이기 전에 처녀들이요. 우리 시대 처녀들은 모든것이 아름다와야 하오. 마음도 얼굴도 외모도!》

래일부턴 화장을 제대로 하지 않은 동무들은 대렬검열에 참가하지 마시오. 작업에 빠져도 탓하지 않겠소. 병실이나 지키시오! 자, 병실 앞으랴!》

우리는 너무도 무안하고 어처구니가 없어 도망치듯 병실로 쓸어들었다. 창문마다 물켜서서는 멀어지는 중대장의 뒤모습을 훑쳐보았다. 그의 모습이 사라지자 광속언니가 먼저 키드득 웃음을 터뜨렸다. 급기야 폭포같은 웃음소리가 방안을 채웠다.

《뭘, 화장을 다시 해?...》

《말만 들어도 달콤하다 애...》

《팜으로 미역을 감는 판에... 아유, 우스워...》

이때 명금이가 새되게 부르짖었다.

《어마나! 저게 뭐예요?...》

우리의 시선이 일시에 사물함쪽으로 쏠렸다. 너도나도 우르르 밀려갔다. 겨울에 이 산중에서

좀체로 찾아보기 힘든 싱싱한 생화뭉음이 꽂혀있는 꽃병결에 처녀들에게 끌고루 차례질만한 새장갑이 차곡차곡 쌓여있고 그앞에 세통의 새 《봄향기》 화장품꽂이 나란히 열려져있었다.

가운데에 짙막한 글이 적혀진 종이쪽지가 놓여있었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말없이 눈으로 읽었다.

《처녀동무들, 우리는 동무들의 모습에서 집에 두고온 귀여운 녀동생들을 보고있소. 살뜰한 누이들의 정찬 숨결을 느끼고있소. 더는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시오. 설사 화장이 땀으로 지워진다고 해도 그 향기는 저녁늦게까지 모두의 마음속에 포근히 남아있을것ियो.》

나는 숨이 차올랐다. 눈곱이 화끈 달아올랐다.

우리는 하나같이 거칠어진 두손에 얼굴을 묻고 어깨를 떨며 소리없이 흐느껴울었다. 입술을 깨물어도 자꾸만 눈물이 샘솟아올랐다.

이윽해서야 꽃향기와 《봄향기》가 어우러져 향긋이 떠도는 방안의 침대가에 나란히 앉아 조용히 눈물자욱들을 지웠다...

우리가 미안스럽고 축스러운 마음으로 남동무들이 땀흘려 일하는 작업장에 이르자 온 중대의 눈이 화등잔만큼 커졌다. 마치 우리들의 얼굴을 처음 보거나 하는것처럼...

그러나 누구도 웃음기를 보이지 않았다. 호수처럼 길어보이는 눈빛으로 묵묵히 우리를 바라보기만 했다. 나는 중대의 좌상적인 2소대장동지가 고개를 돌리며 슬며시 손등으로 눈곱을 훔치는것을 띠어보았다. 그러자 다시금 마음이 몽클해져 얼른 고개를 숙였다.

별스러운것은 철규오빠가 하루종일 나를 먼바로 쳐다보지 않는것이였다. 딱 마주친 때에조차 시선이 빗나가곤 했다.

참다못해 기회를 보아 시까슬렀다.

《소대장동지, 제 얼굴에 뭐가 묻었나요? 왜 눈길을 피하세요?》

그가 능청스레 아닌보살했다.

《오, 정혜동무였구만. 어쩐지 비슷하다했지.》

《정말-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비슷한건 어떻게 알아요?》

그는 슬쩍 주변을 살피고나서 속삭였다.

《참 보기 좋아. 정혜도 그렇고 다른 처녀들도...》

그리고는 고개를 돌리며 혼자소리처럼 뇌이였다.

《확실히 다르거던, 달라. 그런데 난... 한데 꼭 같은 말이야. 그 눈길, 그 미소...》

나는 그만에야 얼떠름해졌다. 대체 무슨 소릴 하는걸까? 다르다면서도 똑같다는건 또 무얼가? ...

저녁에 러단적인 경쟁총화에서 우리 중대는 큰

반년만에 1등의 영예를 지녀 사람들을 놀래웠다. 온 중대의 기분이 하늘을 날을듯 했다.

돌아오는 길에 내결에 붙어선 소대의 막내가 순남이가 신이 나서 주어냈다.

《정혜누나, 오늘 정말 누나들이 기막히게 멋있었어요. 다들 막 힘이 나더래요...》

나는 어둠속에서 남몰래 미소를 지었다.

별하늘가에 등실 보름달이 솟아올랐다

3

나에게 식당근무차례가 돌아왔다.

오후에 나는 호젓한 취사장에 앉아 저녁거리로 마른나물을 다듬고있었다. 문소리에 돌아보니 뜻밖에도 철규오빠였다. 어떻게 된 일일까? 아직 작업시간인데? 게다가 취사장에는 영 발길을 앓던 철규오빠였는데... 나는 의아함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다.

《어떻게 내려왔어요?...》

그는 스택스적 다가와 군데군데 털이 빠진 털모자를 뒤통수에 밀어붙이며 이마를 내댔다.

《짚어봐. 치익- 소리가 날 지경ियो.》

나는 깜짝 놀라 그의 이마에 손을 대보았다. 이어 물소랭이에 손을 잡그었다가 쨍쨍하게 그 이마에 찬물을 발라주었다.

철규오빠가 닝큼 물러서며 《어, 치거!》하는 바람에 나는 참지 못하고 웃었다.

《좀 식혀야겠어요. 너무 뜨거워요.》

그리고는 이내 새침하게 눈을 치떴다.

《철육이 오빠답지 않군요. 그췌한 열에 작업장을 뜨다니... 중대장동지의 승낙은 받았어요?》

그는 쪽의자를 끌어다 내결에 풀썩 앉았다.

《중대장소린 하지두 마오. 괜히 기분잡쳐.》

정말 애가 나서 못 견디겠다. 비탈길에서 거꾸로 누워 잠을 잤는지 심사가 그냥 가로 꼬인 형국이다.

《철육이 오빠... 왜 자꾸 엇나가요?》

《나도 하자는 사람ियो. 운수대대에 만나질 남자로력 열명만 떼주면 굴착기를 오후내내 쓸수 있는데 좀 좋아? 끝내 반대하더군. 얼마나 힘들게 교섭한거라고. 내가 공사의 전반균형을 파괴한다나? 자기 혼자 언제건설을 다 하는것처럼...》

《굴착기야 취수탑굴착에 붙지 않았나요. 온 러단이 힘을 집중하는곳인데.》

《그러게 힘들었다는거지. 글췌 그의 말이 옳기야 옳지. 하지만 언제 남 생각할 겨를이 뻘어? 다들 힘들어하는데...》

나는 어이가 없어 한동안 말이 나가지 않았다.

《제가 잘못하고도 풀풀하는건 뭐예요? 철육이 오빠 초급지휘일군이 아닌가요. 말은 일을 어떻게 하나 제힘으로...》

나는 문득 허끝을 깨물었다. 실망과 아연함이 엇갈리는 착잡한 눈빛이 노려보듯 나를 겨누고 있었다. 이제 거친 말마디들이 탕수처럼 쏟아져나올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잠잠했다.

한참만에야 입을 열었는데 피로움이 이슬마냥 똑똑 듣는 그 목소리가 나를 놀래웠다.

《나도 알아, 그가 옳다는걸… 나와는 대비도 안되게 그가 훌륭하다는걸… 가끔 그와 흥금을 터놓고싶은 때가 있소.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의 눈빛을 마주하기만 하면 죄다 허사요. 그 눈길이 칼끝처럼 내 심장에 박히는것만 같소. 살살이 꿰뚫고 헤쳐보는 그 눈빛이…》

별안간 그가 벌떡 일어서며 부르짖었다.

《나도 모르겠어. 그가 옳다는걸 알면서도 왜 자꾸만 벗어나게 되는지… 아무래도 내가 떠나야 할가 봐…》

정혜는 내 맘을 다 몰라. 내가 왜 피로운지, 내 가슴이 얼마나 쓰리고 아픈지…》

나는 망연자실하여 그를 바라보았다.

《제가 모른다고요?… 네, 몰라요. 언제 한번 저한테 속 터놓고 얘기해준적이 있어요? 철옥이 오빠한테야 제가 남이니까요. 난 그래도 철옥이 오빠…》

부끄럼과 노여움이 연기와 내내처럼 뒤섞여 마음속을 오리가리 헤뜨렸다.

《가세요. 그제 맘편한 길이면 다 버리고 어서 가요! … 어쩔 그리도 모질어요. 못 견디게 힘들 때에도 오빠 보며 힘을 얻곤 했는데… 철옥이 오빠가 웃으면 나도 즐겁구 성나면 나도 피롭구…》

숨답담한 마음의 한숨인듯 가마에서 푸푸 솟구쳐오른 물김이 뽕알개 천정을 떠돌았다.

《미안해. 난 정혜가 생각하는 그런 인간이 못되오. 애라할 가치도 없는 놈이요 이익!…》

그는 바람을 일쿠며 나가버렸다.

나는 점도룩 시름겨운 상념에서 헤어날수 없었다.

왜 그럴가. 어째서 저리도 피로와하는걸가. 물론 성광중대장의 처사가 매사에 다 옳은것은 아닐지도 모른다. 너무도 고지식하고 지나치게 칼날같다고 할지… 소대장인 철규오빠의 립장에 대해 거의나 고려없이 면전에서 허물을 까밝히고 있다.

힘한 일에 술선 투신하면서도 능란한 《외교술》로 가끔 《우회로》를 찾는 그의 생활방식을 시작부터 철저히 거부하고있다. 중대장인 자기의 《권위》를 위해서?…

그러나 내 보기에 성광중대장은 결코 그런 셈바리형의 인간이 아니었다. 지난날의 철규오빠도 무색할만큼 제 한몸을 깡그리 태우는 사람이였다. 담백같이 단단해보이는 어깨, 날카로우면서도 사색적인 눈초리, 무겁게 다물린 입술… 설사 하늘

이 무너져도 그는 버티어낼것만 같다.

체구는 우람하지 않아도 어쩐지 그는 우리가 쌓는 언제를 편상시킨다. 덧없이 흘러가버리던 실개울과 골개물까지 다 합쳐 품에 안고 거대한 산중의 바다-대인공호수를 만들어내는…

바로 그래서 나에겐 폭넓고도 호심깊은 그의 인격에 철규오빠가 위압감을 느껴 그처럼 더 빛나가는게 아닐가 하는 의혹도 없지 않았다.

그런데 그것만도 아니였다. 보다 심각한 원인이 있는듯 했다. 아무리 곱씹어 생각해도 까닭을 알수 없어 그후에도 나는 더욱더 거칠어지는 그를 지켜보며 남몰래 속을 태우곤 했다…

새벽부터 희끗희끗 눈꽃이 날리기 시작하더니 주먹같은 눈송이들이 자오룩이 하늘을 가렸다.

온 공사장이 삽시에 흰눈바다가 되였다. 병풍같이 둘러선 아아한 봉우리들이 호호백발을 날리며 씩없이 키를 솟구는듯 했다.

다음날엔 주름같은 산고랑마다에서 뽕안 눈보라가 핑음을 지르며 모든것을 삼킬듯 휘달려내렸다. 천년바위너설에 억세게 뿌리박혔던 고목마저 신음을 내지르며 나뒤흔졌다…

우리 중대에 긴급추가과제가 떨어졌다.

나흘동안에 수십립방의 물길굴 동발용목재를 산중의 적재장에서부터 끌어내릴데 대한 과업이였다.

각 소대별로 임무가 분담되고 하산거리를 단축하면서도 여러 통로들을 동시에 리용하기 위한 현지답사가 선행되였다.

일정한 길이로 자른 동발목의 앞머리에 바줄을 비끄러매고 눈이 쌓인 가파른 골짜기들로 끌어내렸다. 소대별 경쟁에 불이 붙었다. 거리로 보아 오전 한것에 두탕을 하기도 험치 않았다.

한번에 두세통씩 끌어내리는 사람은 중대장을 비롯한 몇몇의 완력있는 남동무들뿐이였다.

우리 처녀들은 겨우 한대씩이였다.

사흘째 되는 날이였다. 소대가 매일 계획량을 미달하여 철규오빠는 아침부터 중대장으로부터 맴잔 추궁을 받았다. 잔뜩 신경이 돋은 철규오빠가 산을 뚫아오르며 씨근덕거렸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안되는걸 내라고 용빼는 재간이 있는가. 사람의 능력에도 한계가 있단 말이요. 대원들이 패가는 모양을 좀 보라구. 제길… 안되겠소. 비상책을 강구해야지. 이런단 대원들이 몽땅 녹아나겠소.》

중도에서 산을 내리려는 그를 나는 다급히 붙잡았다.

《소대장이 앞장에서 한대라도 더 끌어야지 빈손으로 내려가선 어찌자는거예요?》

《걱정마오 내가 편히 눈뜨고있으면서 소대를 맨 꼬리로 만들순 없잖아. 우리 공장 친구 하나

가 물길굴 대대장이요. 한차쯤이야 도와주겠지.》

그렇게 내려간 철규오빠가 오전이 다 지나고 해가 저물도록 감감무소식이였다. 그 바람에 소대관리는 엉망이 되고말았다.

저녁녘엔 뜻하지 않은 일이 사람들을 놀래웠다. 애어린 명금이가 가뭇없이 사라져버린것이다. 광숙언니가 오전 두번째 탕에 앞서 산을 내리는 그를 먼발치에서 얼핏 본것이 마지막이였다.

소대장의 장악과 지휘가 없이 산을 내리는 차례로 뿔뿔이 식사를 하다가니 점심에도 그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다.

온 소대가 공포에 질렸다. 주변을 살살이 뒤졌으나 찾을길이 없었다.

하산거리가 제일 먼 3소대에 나가있던 중대장이 사색이 되어 달려왔다.

철규오빠는 그때까지도 나타나지 않고있었다. 땅거미가 질무렵에야 한차가득 원목을 실은 차가 달려왔다.

호기있게 뛰어내리는 철규오빠의 앞을 중대장이 담벽처럼 막아섰다.

채찍같은 목소리가 차거운 저녁대기를 찢었다.

《대체 동문 누구요? 소대장이 맞소? 소대를 팔개치고 하루종일 어딜 싸다니오?》

철규오빠의 눈이 급작스레 노기로 번뜩였다.

《내가 제불장을 보러 다닌줄 압니까? 저 원목 더미가 보이지 않습니까? 아침에 날 추궁한건 누구데요?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추랍니까?》

성광중대장은 숨이 막히는듯 목단추를 끌었다.

《우리가 끌어내린 나무가 물길굴에 가야 할것인줄 동무도 알지? 그런데 도리어 거기에서 원목을 실어와? 제정신인가! ... 틀렷먹었소. 소대장이 집단의 힘을 믿지 못하고 남먼저 흰 기발을 든셈이지 뭐요? 요행수나 찾고 동무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빚어냈소?!》

동철동무에게서 사태의 전말을 알게 되자 철규오빠의 낯색이 대번에 하얗게 질렸다.

직일관을 찾은 중대장동지가 날카롭게 부르짖었다.

《중대 폭풍!》

해발고높은 산중인지라 저녁어둠은 순간마다 짙어갔다.

중대전원이 횃불을 쳐들고 나무를 끌어내린 전구간의 골짜기주변을 헤매었다.

《명금이! 명금아!》

우리 처녀들은 눈물을 머금고 눈속을 헤집었다. 밤이 깊어서야 눈구멍이에 묻힌채 정신을 잃은 그를 찾아냈다. 성광중대장이 그를 들쳐업고 험한 눈길을 지쳐내렸다.

려단군의소에 누워서도 명금이는 혼수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했다. 나무에 깔리면서 찢겨진 상처가 심했다. 무조건 후송해야 했다.

우리 처녀들은 그의 머리맡에서 밤을 새웠다. 남동무들도 복도에서 그냥 서성거렸다.

나는 명금이의 얼굴이며 봉대에 감긴 두손을 하염없이 어루쓸었다.

《명금아, 깨어나... 죽어선 안돼!...》

새날이 푸름푸름 밝을무렵 밖에서 울리는 차소리에 우리는 마당으로 뛰어나갔다.

형체없이 터지고 갈가리 찢겨진 솜옷을 손에 든 중대장동지가 성급히 반집차에서 뛰어내렸다. 맨살이 드러난 어깨엔 험상궂게 상처가 나고 피가 내배여 있었다. 눈길에 지쳐내리는 차의 바퀴 밑에 솜옷뿐이 아닌 자기의 온몸을 그대로 들이밀었던 모양이였다.

이때 현관에 뛰쳐나온 광숙언니가 목메여 부르짖었다.

《동무들! ... 우리 명금이가 깨어났어요!...》

성광중대장이 땅을 박차듯 뛰어들어갔다. 침대에 무릎을 꿇고 앉은 그가 갈리게 되었다.

《명금아,... 고맙다. 깨어나줘서 정말 고맙다...》

명금이는 터갈라진 입술을 간신히 놀렸다.

《미안해요... 한대라도 더 끌고싶었는데... 지름길을 찾는다는게 그만...》

명금이가 봉대가 감긴 손을 쳐들려고 안간힘을 쓰는듯 했다. 처음에 우리는 그가 왜 그러는지를 미처 깨닫지 못했다.

《중대장동지... 울지 말아요.... 나 하나두 안아파요.》

그제서야 우리는 중대장동지의 두볼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을 보았다. 명금이는 저도 울면서 그 눈물을 닦아주고싶었던것이다. 광숙언니가 흑오열을 터치며 방에서 달려나갔다.

《내가 널...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제 당장 큰 병원에 가자.》

명금이는 가까스로 도리머리를 저었다.

《가야 돼!》

중대장동지는 무작정 명금이의 무릎과 베개머리에 손을 들이밀었다.

《싫어요!》

모두의 심장을 굵는 명금이의 그 부르짖음... 우리는 할 말을 잊고 묵묵히 서있었다.

가라앉은 목소리로 명금이 타는듯이 속삭였다.

《절대루 안가요. 중대장동지랑 정혜언니랑 끝까지 함께 있고싶어요.》

우리는 소리없이 울었다. 나이지속한 의사선생마저 안경을 벗고 돌아서서 눈굽을 훔쳤다. 그 어린 명금이를 누구도 설득시키지 못했다. 협의 끝에 려단군의소에서 본격적인 치료를 하기로 합의되었다....

이른아침 잠시 밖으로 나왔던 나는 마당구석 차거운 의자에 굳어져 앉아있는 철규오빠를 알아보고 흠칫 놀랐다. 눈보라 사나왔던 지난밤을 꼬

박새운것이 분명했다.

집단의 창발성과 전투력을 불러일으킬대신 준엄한 현실앞에서 기가 질려 주춤거린 자신을 모질게 징벌하는것인지도 모른다.

중대장동지의 말이 옳았다. 지심깊이 뿌리박고 역세계 일떠서는 저 거대한 언제마냥 강의한 의지와 정신력의 기동을 마음속에 세우지 못한 사람은 그 무엇을 창조할수도, 자신의 존엄과 명예를 지켜낼수도 없는 법이다.

나는 눈섭이며 입술 주변의 수염터에 하얗게 성애가 붙어있는 그의 모습을 가슴저리게 바라보았다. 애타는 련민이 내 가슴을 지졌다. 이끌리듯 그에게로 향하던 걸음을 애써 멈춰세우고 나는 입속말로 부르짖었다.

(철규오빠! 마음껏 몸부림치고 피로와하세요. 그 고통속에서 자신을 깨달으세요. 모든 아픔을 기어이 이겨내고 새롭게 출발해주세요....)

4

나는 공상한다. 저녁녘의 얼어붙은 개울가에 앉아 복잡다단한 사연들을 잠시나마 잊고 시름없이 공상의 푸른 바다를 헤엄친다.

밤이나 낮이나 마음속 심연에서 쉽없이 반짝이는 희망의 별처럼 투명한 얼음에 비낀 저녁별이 눈결에 어룡지며 내 공상의 세계를 따듯이 비쳐준다. 눈뿌리 아득하게 산악같이 일떠선 언제, 그 너머 산마루와 산중턱을 몇고패나 돌고돌아 가없이 펼쳐진 대인공호수, 수백미터의 락차고를 가진 철관로들, 그림처럼 일떠선 발전기실들에서 울리는 동음...

나는 공상한다. 끝없이 공상의 바다를 헤엄친다. 집집의 창가마다에 아낌없이 흐르는 행복의 불빛들, 해변도시의 찬란한 불야경, 눈부신 거리들을 밤이 지나도록 거니는 청춘남녀들...

취수탑굴착전투장쪽에서 울리는 둔중한 발과소리에 나는 아쉽게도 공상에서 깨어났다. 심장을 들뛰게 하는 꿈이었다. 오래지 않아 그날은 올것이다. 앞날의 그 기쁨과 행복을 위해 우리는 천고만년을 이겨내며 났을 바쳐 오늘의 하루하루를 땀흘려 가꾸어간다. 이 나날들엔 보람과 영예와 함께 실패와 우여곡절도 있다. 피로움도 있고 눈물도 있다.

그래도 우리는 희망과 확신으로 신들메를 조이고 래일을 향해,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제길 2012년을 향해 달음쳐간다...

현실로 돌아오자 나는 초급일군모임이 진행되고있는 중대부쪽을 불안스레 돌아보았다.

예감이 이상했다. 꼭 철규오빠의 문제가 심중히 논의될것만 같은...

아닐세라 저녁중으로 뜻밖의 소식이 알려져 내

가슴에 아픈 못이 박혔다. 철규오빠의 소대장해임이 결정된것이다.

설마!...

차거운 겨울비를 맞을 때처럼 등골이 선했었다.

선참 뇌리를 친것은 이제 더는 그를 건잡을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였다. 가뜩이나 가로 껴진 심사에 곁들어 단 화로를 뒤집어쓴 심정일것이다.

지금껏 중대장에게 품어온 선망과 신뢰가 졸지에 무너져내렸다. 야속했다. 한 인간에 대해 어쩔그리도 무자비하게결단을 내린단 말인가. 타이르고 매질을 해서라도 곁에 따라세우는것이 참된 일군의 자세가 아닐가? 과연 중대장동지가 그쯤한 사리도 가려보지 못할만큼 편협한 인간이었던 말인가.

땅거미처럼 스며드는 의혹과 실망을 짓씹으며 나는 어둠속을 헤맸다.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길이 넘게 쌓아올린 원목더미아래에 철규오빠가 외롭게 앉아있었다. 초생달이 짓수긋한 그의 모습을 몽롱히 비쳐주고있었다.

그 모습을 보니 원망스러우면서도 또다시 못견디게 마음이 쓰렸다.

인기척을 느낀듯 고개를 쳐들었다. 그의 얼굴엔 번민의 흔적이 뚜렷했다.

나는 말없이 다가가 그의 곁에 쏙그리고 앉았다.

이 오빠의 심중엔 지금 무엇이 고패치고있을가?자신에 대한 혐오? 상처 입은 자존심의 반발? 갈피없는 상념에 시달리며 오래동안 침묵했다. 별안간 그가 나직이 물었다.

《정해, 어릴 때 우리 철민형님을 본 기억이 나오?》

《네?...》

왕청같은 질문에 얼퍼름하여 나는 인차 대답을 못했다.

《네, 생각나요. 조용하구 항상 책을 보군 했뎡지요...》

그는 추위에 사무친 눈빛으로 먼 산발들을 더듬었다.

《사회에 나와서도 난 참 말썽군이였소. 성실히 일하기 싫어하고 찍하면 직업을 옮기고... 군사복무를 하던 만형이 편지때마다 날 타이르고 책망하군 했지. 어느때 편지에 이런 구절이 있었소.

〈철규야, 청춘시절을 헛되이 잃어버리면 삶의 전부가 무의미해진다. 보람찬 일터에 마음을 잠그고 온넛을, 인생을 강그리 쏟아부어야 한생의 참된 열매를 얻을수 있는거란다. 힘을 아꼈다가 어디에 쓰겠니. 청춘의 힘은 아낄수록 줄어드는 법이야...〉

어데서 들은 기억이 나지 않소?... 중대장동지

가 첫날 나한테 한 말이요...》

나는 인차 기억해냈다. 바로 중대장동지가 그렇게 말했었다. 힘은 아끼면 아낄수록 줄어든다고...

그래서 철규오빠가 그때 것처럼 놀란 표정을 얼굴에 띄웠던것이다.

《형이 아무리 타일러도 난 정신을 못 차렸지.

안변청년발전소건설에 참가하고있던 형이 표창 휴가를 온적이 있었소. 끝내 나는 형과 대판 다투었소. 형이 참지 못하고 내 뺨을 후려쳤소.

나는 미친듯이 대들었지, 내 운명은 내가 개척하니 간섭하지 말라고... 그때 실망과 혐오, 런던에 차서 나를 바라보던 형의 눈빛을 나는 언제까지나 잊을것 같지 못해. 그 눈빛이 내가 본 형의 마지막 눈빛이었소. 그렇게 헤어져서 형은 다시 돌아오지 못했으니까...》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 외마디비명을 삼켰다. 어찌면, 어찌면!...

《난 마구 몸부림을 쳤소. 내 머리를 짱짱 벽에 짓조았소. 내가 왜 그리도 못나게 굴었을까. 누구보다 날 아껴주고 내 앞날을 걱정해주던 그 형한테... 지금도 나에 대한 실망과 환멸을 품고간 형을 생각하면... 형님이 속죄하는 심정으로 난 이곳으로 달려나왔던거요. 온몸을 말짱 태워서라도 형님이 바라던 참사람이 되고싶었소...》

나는 이름할수 없는 충동에 겨워 얼음처럼 찬 그의 손을 포근히 감싸쥐었다. 부끄러움도 잊고 지난날의 야속함도 잊고 한껏 달아오른 내 뺨에 그 손을 가져다댔다. 녹여주고싶었다. 그의 손도, 자책과 죄의식, 좌절감으로 얼어붙은 그의 마음도...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난 자기가 몰라보게 달라졌다고 자부하고있었지. 그런데 우리 형의 눈빛과 너무도 똑같은 표정을 가진 사람이 내앞에 불쑥 나타났소. 얼굴도 성격도 판이한데 눈빛만은 왜 그리도 신통한지... 오랜만에 거울같은 그 눈빛에 비낀 내 진짜 모습을 보았소. 깜짝 놀라 필사적으로 아니라고 웨쳤지만 소용없었소. 걸치레뿐이고 뿌리가 깊지 못한 내 의지가 끝내 허약한 실체를 드러내고말았지...》

비구름이 걷힌 하늘마냥 모든것이 선명해졌다. 바로 그래서였다. 그때문에 그는 중대장동지의 앞에만 서면 자신심을 잃고 피로하게 허둥거리며 반발하거나 위축되곤 했던것이다.

나는 목갈린 어조로 속삭였다.

《너무 피로와마세요. 자기를 지나치게 비하하 지두 말구요. 이제 모든게 다 잘될거예요 언젠가

는 형님앞에 뗏뗏할 날이 꼭 올거예요. 전 믿어요.》

그는 설레설레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 정해. 여기서 더 견디지 못하겠소. 그 어린 명금이를 저 지경 만들어놓고 내가 무슨체면에... 정해의 남다른 믿음이랑 다 저버리구 떠나자니 정말 괴롭소...》

나는 숨차게 부르짖었다.

《나 하나가 문제예요? 가긴 어딜 가요? 그렇게 가면 영영 도주자가 되구 수치스러운 배반자가 된다는걸 왜 생각 못해요?》

그는 고집스럽게 도리머리를 흔들었다.

《가겠소! 새로 시작할테요! 그러니 날 막지 마요!》

나는 안타깝게 그의 옷자락을 쥐어흔들었다.

《제발 후회할짓은 말아요. 중대장동지가 하던 말 잊었어요?》

저 언젠는 흠과 돌이 아니예요. 우리 매 사람의 마음과 넋이 쌓여 높아지고있어요. 이제 가버리면 오빠와 내 마음에두, 저 언젠에두 상처가 생겨요. 아물수 없는 상처가...》

두손으로 머리를 움켜잡고있던 그가 결연히 일어나 어둠속으로 사라져갔다.

뿌드득뿌드득... 내 마음속에 소중히 내려쌓인 순정의 흰눈을 모질게 짓밟고 떠나가는 그의 발자국소리...

분하고 서러웠다. 저런 사람에게 지금껏 애면 글면 마음써왔던가.

후에 알게 되었지만 철규오빠는 그길로 대리중대장시절부터 친분이 있던 역시 안변청년발전소 출신의 제대군관인 참모장을 찾아갔던것이다. 다른 대대나 중대로 옮겨줄것을 제기했다는것이였다.

그러나 아직은 그런 사연을 알길 없었던 나는 금시 철규오빠가 배낭을 둘러메고 이 언제건설장을 영영 떠나버리는것만 같아 치솟는 분노와 좌절감에 가슴을 들먹이며 중대부를 향해 반달음을 놓았다.

나는 중대부의 문을 열고 들어섰다.

랭기서린 방에 외투를 쓰고 앉아 글을 쓰던 중대장동지가 고개를 쳐들었다. 나는 숨을 할딱거리며 말없이 눈빛으로 웨쳤다.

(중대장동진 사랑하는 자식을 가진 아버지가 아닌가요! 중대의 만형이기도 하구요. 어쩔 그리도 모질수가 있어요. 어찌면!...)

나를 바라보는 그의 표정은 신중하고도 착잡했다.

《내게 할 말이 있는게 아니요?》

나는 눈길을 내리깔며 입술을 감쳐물었다.

온기없는 난로에 불을 지펴놓으며 그는 단도직 입적으로 물었다.

《나한테 무슨 불만이 있지? 혹시 철규동무일때 문이요?》 역시 그는 에둘줄을 모르는 사람이였다.

《둘이 남다른 사이라는걸 나도 아오. 지켜주고 싶어하는 마음을 난 이해해. 하지만 어쩔수가 없었소. 동무생각엔... 내가 너무 극단적이었는가?》

《저도 중대장동지를 이해합니다. 그때문에 얼마나 속을 태웠습니까? 그렇다고... 그렇다고 꼭 그렇게 밀어던져야 옳습니까?...》

성광중대장은 놀랍다는듯 눈을 치뜨고 나를 바라보았다.

《밀어던진다구?... 아니, 우리는 그를 밀어던지지 않았소. 그에겐 자기를 돌이켜보구 힘을 내여 다시 일어설 계기가 필요했던거요.

난 그를 믿소. 그는 꼭 다시 일어설거요. 철규동무는 사내거던.

헌데 그에겐 정말 심각한 병집이 깊숙이 뿌리박힌것 같소. 뭐랄가. 육체보다 먼저 마음이, 정신이 지친데서 온 병이라랄가? 자신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렸소. 자기의 힘에 대한 확신을 잃은 사람은 결국 집단의 힘에 대해서도 의심하게 되는 법이요. 이게 바로 철규동무가 때없이 짜증을 내고 신경을 곤두세우곤 하는 진짜 원인이요. 그러다나니 온넛을 다 바쳐 투신하는게 아니라 요행수를 찾게 되지. 혹 한두번은 성공할지 모르지만 집단의 전투력은 급강하를 하게 되오. 그는 우리가 이 언제를 무엇으로 어떻게 쌓아야 하는가를 아직 다 모르고있소...》

참나무장작에 불이 달린듯 탁탁 불꽃이 튀어나고 나무진이 지글지글 끓었다. 성광중대장은 달아나는 난로가까이에 나를 끄당겨 앉히고 담담한 어조로 계속했다.

《점차 소대가 그의 정신상태와 생활방식에 감염되는 조짐이 보였소. 어려운 고비에 닥칠 때마다 소대장의 <수완> 에 기대를 거는... 그래서 피롭지만 결심했던거요.》

나는 중대장동지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았다. 그러니 중대장동지는 철규오빠를 영 버린것이 아니였다. 자기를 돌이켜보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준것이다. 새로운 기쁨과 죄스러움이 한데 뒤엉켰다.

나는 그 어떤 충동에 못이겨 철옥이 큰오빠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철규오빠의 고민과 마

음속 몸부림에 대해서도...

그런데 신철민이란 이름을 듣자 성광중대장은 왜선지 몸을 흠칫 떨더니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는것이였다.

이때 전화종이 울렸다 성광중대장이 송수화기를 무겁게 집어들었다.

《예, 예...》

참모장동지, 그를 제가 잘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제 꼭...》

갑자기 무엇에 찢리우기라도 한것처럼 자리를 차고 일어서더니 으스스하게 틀어진 송수화기에 대고 웨치듯 말했다.

《그럼 그가 신철민영웅의 동생이란 말입니까? 그게 정말입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송수화기를 내려놓은 성광중대장은 무너지듯 자리에 앉더니 한손으로 눈언저리를 가리운채 오래도록 말이 없었다.

나는 의아해서 불깃하니 달아오른 중대장동지의 얼굴을 지켜보았다. 대체 무슨 일일까?...

이때 기척도 없이 문이 벌럭 열리더니 철규오빠가 뛰어들었다. 가쁜숨을 몰아쉬는것으로 보아 먼길을 달려온것 같았다.

중대장앞에 다가선 그가 애써 자제하는 목소리로 나직이 물었다.

《왜 미리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러단참모장동지와 한부대 전우라는걸. 자기가 안변청년발전소에서 위훈을 세운 수훈자라는걸... 중대장동진 정말...》

나는 놀랍게 눈을 크게 떴다. 안변이라니!

그럼 우리 중대장동지도 혁명적군인정신을 창조한 안변청년발전소 영웅전사들중의 한사람이었던 말인가!...

성광중대장은 젖은듯 한 눈빛으로 이윽히 철규오빠를 바라보았다.

《그게 정말이요? 철규동무가 신철민영웅의 동생이었던 말이지?...》

《그럼 중대장동진 저의 형님을...》

성광중대장은 설레설레 고개를 가로저었다.

《구분대가 다르다나니 아쉽게도 만나보지는 못했소.》

철규오빠는 기대가 무너지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하지만 안변청년발전소건설자치구 신철민이란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소. 형님은 분명 가장 참되구 성실한, 그러면서도 가장 용감한 사나이였소. 자기 녀의 전부를, 자기 운명과 인생을 통채로 내대고 발전소건설에 뛰어들었던거요.

형님이 희생된 후 그가 남긴 마지막시구절을
우린 자자구구 가슴에 새겼소.

우리 쌓는 언젠는 하나여도
수만의 언제가 병사들의 가슴에 솟는다
동무여 우리 한생 그 언제를 안고살자
위훈의 언제 결사관철의 언제
영원히 변함없을 신념의 언제!...

철규, 우리도 해내자구. 다시는 흔들리지 말구
이 발전소를 창공에 우뚝 세우자구.》

철규오빠는 한모양으로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그 풀이 민망스러워 나는 발을 구르고싶었다. 씹
씹하던 기상은 다 어디에 켜버렸을가. 왜 벌떡
일어나 웃으며 중대장동지를 와락 그러안지 못하
담?

한참만에야 그는 자리를 일어 문쪽으로 걸어갔
다.

끝내! 너무도 아연하여 종주먹을 쥐고 바투 따
라서던 나는 그가 급작스레 멈춰서서 돌아서는
시초

서슬에 하마트면 떡 벌어진 그의 가슴팍에 얼굴
을 박을번 했다. 타는듯이 빛나는 눈길로 뚫어지
게 중대장동지를 바라보던 그가 나직이 속삭였
다.

《언제부터 꼭 하고싶었던 말입니다... 이따금
단들이 있을 때 형님이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

웬일인지 나는 온몸의 긴장이 일시에 풀리는
달콤한 피로감을 느꼈다. 어서 병실로 돌아가 폭
신한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의 벅찬 일들을 곰곰
히 되새기며 달게 꿈나라로 가고싶었다. 나는 철
규오빠와 중대장동지의 사나이다운 억센 포옹을
웃음짓고 바라보았다.

잠시후 철규오빠와 나는 중대부를 나서서 말없
이 걸었다. 은은한 달빛에 거연히 솟아오르는 언
제체의 모습이 멀리 바라보였다.

나는 그 모습에서 불야경 펼쳐질 내 고향도시
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끝없이 걷고싶은 밤이었다....

봄꽃핀 대안의 구내에서 강성대국 봄언덕을 나는 건는다

류춘선

그날의 하얀 서리꽃처럼
살구꽃 활짝 핀 이 봄날
나는 걷는다
장군님 걸으셨던
대안의 생각깊은 구내길을

못잊을 한해전 그날
우리 장군님 마음속에
수령님과 함께 오셨던
력사의 대안땅

얼마나 위대한 자욱이
여기에 새겨 졌던가
남들이 앞서간
10년... 100년을 앞당겨온 그 자욱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의
지름길로 치달을 구상을 안으시고
반세기전 수령님 지새우신
대안땅의 낮과 밤을
다 안아보신 우리 장군님

낮이면 기대공의 마음 되시고
자재공급원의 마음 되시여 일터를 찾으시고
저녁이면
합숙과 상점 살림집을 찾으시여
베개와 이불도 손수 만져보신 아버지 그 사랑

한밤이면
공장당위원회의 불빛아래서 새날을 맞으시며
우리식 경제관리체계의 빛발로
우리 공업이 나아갈 길을
환히 열어주신 그 손길

위대한 사랑과 믿음의 손길로
조선로동계급의 무한한 창조의 힘으로
력사의 그 어떤 파동에도 흔들림 없는
주체의 경제관리체계를
자립경제의 기둥으로 억세게 다듬어
이 땅우에 든든히 세워주신 우리 수령님

천만년 드물지 않을 그 반석우에
높이도 치솟아올랐구나
CNC 화의 장엄한 노래 높은 대안이여

과학기술최첨단을 향해 올려퍼지는
대형기계들의 거창한 동음이여

세상사람 부러워하는 이 만년재보를
이 땅우에 유산으로 물려주신
우리 수령님께 드리시는 장군님의 감사와 인사
기어이 이 땅우에 강성대국을 일떠세우실
위대한 맹세 얼마나 뜨거우셨으랴

아, 대안땅의 이 봄날
나는 걷는다
봄꽃 피어웃는 드넓은 구내길을
경제강국의 지름길을 헤쳐오신
우리 수령님 크나큰 자욱으로
장군님 펼쳐가시는
CNC의 꽃들이 만발할
강성대국의 봄언덕을 나는 걷는다

잠 못드노라

장호건

스스로 경탄하노라
다름아닌 이 손으로
빨강고 파란 조각단추들을 눌러
무쇠덩이를 타빈날개로 만들었건만
정녕 내 숨씨갈지 않아...

볼수록 희한해 보고보노라
수십톤 아름다리강피도
프로그램에 따라 애기다루듯 어루만지며
이처럼 정교히 이처럼 기묘히
깎고 다듬고 휘어내는 모양

조각가인들 이 보다 섬세할가
요술배우면 이보다 날렷가
오차란 말은 있을수도 없는
완성된 특대형발전기들을 쓰다듬으며
내 솟구치는 걱정 누를길 없나니

가슴가득 차올라라
한해전 1월
대소한강추위도 아랑곳 앓으시고

우리 대안땅을 찾으시여 일깨워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
-발전기생산도 전면 CNC 화해야 합니다...

아, 최첨단열쇠로
강성대국대문을 활짝 열어주시려
장군님 친히 꽃피우신 CNC 화의 기계공업
그 만능보검을 추켜들고
쇠물처럼 뚫어번진 한해의 낮과 밤이여

모시고싶어라 우리 장군님
정녕 오늘 다시 모시고싶어라
CNC화된 발전기생산 모든 공정
환한 미소 지으시고 바라보시며
잠시라도 잠시라도 피로를 푸시셨으면

아, 간절한 그리움의 이 소원 안고
대안땅 우리는 잠 못드노라
올라선 오늘의 최첨단봉우리에서
더 높은 고지, 더 높은 요새의 정복자로
경애하는 장군님을 뵈을 열망으로만 불타...

유산

김용열

내 달려왔노라
30여년전 흥안의 그 시절
푸른 꿈 키웠던 정다운 나의 기대
오늘은 최첨단기계소리 드높은
보령반으로

정말 꿈같아라
땀흘리며 며칠씩 가공하던 타빈날개
지금은 프로그램에 따라
요술같이 척척 완성되는 신비로운 광경이

내 조용히 눈길들어 바라보니
마치도 환상세계에 들어선듯
아득히 펼쳐진 CNC 특대형기계들

기대앞에 번쩍이며 쌓이는 보석같은 가공품들

바라볼수록 송엄해져라 이 마음
농쟁기 버리던 야장간터전에
자립경제의 만년대들보 우뚝 세우시려
눈비에 옷자락 적시며 오고 또 오시던
아버이수령님의 그 영상 안겨와

쿵쿵...
흥벽을 두드리는 저 프레스의 힘찬 소리
대안의 미래를 안고 고동치던
그날의 수령님 심장의 박동소리 아니던가
대관현악인듯 높이 울리는 기계의 음향들은
비약의 억센 나래 펼쳐주시려

천하를 흔들던 그 열정의 목소리 아니던가

아,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여
정녕 너는
강성대국으로 솟아오를 태양조선을 그려보시던
수령님
애국의 그 숨결에 떠받들려 솟아오른
위대한 대안사업체계의 고향
최첨단돌과의 희망찬 도약대

그 숨결 안고 고고성 터치는것 아니냐
안변과 태천, 원산과 녕원...
이 땅의 강줄기마다 지심깊이 뿌리박고
대고조의 불바람 일으키는 대형수력발전기들
남홍이며 홍남이며 희천이며 ...
만복의 령마루로 치닫는 주체공업의 심장부들이

하기에 우리 장군님
수령님 그 로고 못 잊어 그 업적 꽃피우시려
눈보라 헤치며 찾아오신 그날
수령님 로고어린 웅장한 창조물을 감회깊이 바라
보시며
높이 손들어 말씀하시지 않았던가
이것이 바로 우리 수령님께서 물려주신 유산이
라고

오, 감사를 드리노라
영광을 드리노라
무궁번영의 억만재부를 물려주신
아버이 우리 수령 **김일성**동지께
애국의 그 위업 대를 이어 빛내가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아들아 더 크게 불러라

위명철

동녘이 푸름해진 아침
공장방송원의 목소리에 때를 맞췄는가
활 열려진 창문가에
아이들 목소리 기세차구나
-엄마 빨리
아버지이름 또 나와

집집의 창문가에 울리는 소리
정찬 이웃들의 반가운 얼굴들이
층층의 창가마다 활짝 피고
밤새 태어난 조립직장의 발전기동음에
메아리로 울려가는 순간이여

누구를 나무람하랴
새벽도 잊고 울리는 야무진 소리
CNC 공작기계 간밤에 또 태어난듯
아이들 목소리에
마음이 합쳐진 순간이여

좋다
백번 불러도 좋다
우리 심장의 박동이 합쳐진 너희들 목소리
늘 기적의 새소식만 울려오기를 바라는
우리의 간절함이 합쳐진 너희들의 목소리

참으로 좋다
새벽녘
아침체조로 불러주는
방송의 노래 먼저

오늘의 새소식 전하는
우편통신원의 목소리 먼저
새해의 공동사설관철의 전구에서 울리는 그 목소리

아직은 온 나라가 다 알고
인민이 모두 아는 영웅으로
네 아버지 이름 떠올린적 없어도
최첨단기술의 봉우리 향해 달리는 네 아버지
어제도 오늘도 소문난 아버지

아, 그런 아버지들을
이 세상 제일이라고
세상을 향해 자랑하는가
또다시 맞이할 환희의 날에 터칠
그 축복
창가마다 울려퍼지는 대안의 풍경이여

더 크게 소리치라
개소식으로 벅찬 아버지들 일터
최첨단의 개소식 전해가는 기계공장에
네 목소리 가당게
아들아 한번 더 크게 불러라

아버지들 제일 좋아하는 꽃다발로
네 목소리 받아안을게다
이웃들 마음 온 나라 마음 다 합쳐
어디 다시한번 더
크게 더 크게!

대안땅의 전설

김학률

공장터전을 여기에 잡읍시다
평양과 가까이에 있어야
내가 자주 나와볼수 있소...
대안땅의 어제와 오늘
래일이 그대로 옮겨진듯
대안땅에 일떠세울
중기계공장사관을 보아주시던 수령님

수령님 자주 나오시여 건느시던 철길
수령님사색을 자주 깨치던 철길
일군들의 송구한 마음속에 흘러간 철길
수령님께 일군은 말씀드렸네

-수령님
이 철길은 없애려고 합니다
대규모중기계공장에 격이 맞지 않는다는
일군의 결심을 듣고나신 수령님
지시봉 드시고 사관돌레를 걸으시여라

대안땅의 어제와 오늘
새로 일떠설 공장구내를 거니시는듯
철길의 침묵 하나하나를 밟으시며
대동강기슭에 잇닿은 그 끝까지
다 밟아보시듯

수령님 조용히 말씀하셔라
-아니요
지금은 놓고있는 철길이지만
앞으로 이 철길이
허리가 늘씬하게 큰 짐을 나르게 될거요!...

그때로부터 세월은 흘러 수십여년
수령님 내다보신 오늘이여!
력사의 증견자인양 철길을 품어안은
대안친선유리공장의 은빛채광장이여!
대형설비 대형발전기를 싣고
바다를 향해 닻을 올린
대안부두 대형집배의 우렁찬 고동소리여!

애국 애족 애민의 최고화신
아버이수령님의 마음속엔
한줄기 철길 한줄기의 내물 한대의 나무조차
조국의 무궁번영과 약속되어있거니

아, 30년 300년을 지나
멀리 더 멀리 내다보신 수령님의 예언속에
천리 만리로 뻗어갈
이 철길 끝이 없듯이
대안땅의 전설도 끝이 없이 전해지리라

산진달래

허옥녀(총련)

싱그러운 흙냄새 온몸으로 맡으며
비탈진 산길 뚫아오르니
살며시 얼굴 내밀어
손저으며 반겨주는 산진달래

가도가도 산진달래
선들바람에 설레는 어여쁜 꽃잎들
봄비 품어 시원한 연보라색 네 모습
그리움에 사무쳐 내 가슴 뉘뛰네

진달래야 너는
역수로 퍼부은 큰비도 아랑곳없이
오히려 싱싱하게 키돋움하였구나
오히려 탐스럽게 망울을 터쳤구나

너를 가꾼 사람 따로 없고
너를 지킨 사람 따로 없어도

이름없는 산밭에 남먼저 피어나
방긋 웃고 맞아주는 정다운 꽃이여

겨울을 이겨 핀 산진달래야
그저 들길을 걷던 나는
그저 바쁘게만 길가던 나는
살뜰한 네 모습 보고 정신을 차렸단다

화려하지 못해도
꾸밈없이 곱게 살아야 함을!
순탄하지 못해도
하루를 힘껏 살아야 함을!...

아, 산진달래
너를 안고 나는 살리
살뜰한 꽃이여
티없는 마음의 거울이여

무등산

곽명철

5월이 오니
또다시 길이 미여지게
사람들이 찾아온다
한을 풀지 못하고 간
렬사들이 묻혀있는 무등산을 찾아

형체를 알아볼수 없는 시체를 안고
목놓아 울며 이곳으로 향했던
그날의 걸음들이 오늘도 이어지고있다
영웅적인민봉기 그날의 이야기를
넋속에 새기며 자란 세대들이
부르친 주먹 풀지 않은채
복수의 자욱을 덧새기고있다

아, 귀기울이면
그날에 다 터뜨리지 못한
그 분노의 웨침이
오늘도 쟁쟁히 들려오는 이곳

-미국놈을 몰아내자!
-전두환을 찢어죽이라!
금시라도 이곳저곳에서
저마다 땅을 차고 일어나
또다시 어깨와 어깨를 결고
항쟁의 거리로 내달릴듯싶은 이곳

저 무수한 봉분들도
봉분으로만 보이지 않는다
죽었어도 풀지 못한 그 원한이
수십년세월 자라고자라
마침내 땅을 들추고 저렇듯 부풀어오른듯

그렇다
지금 이 시각도 땅속에서
그날의 려사들 그때처럼
손과 손을 억세게 마주잡고
통일의 원쑤 미제와 그 역적들을
기어이 쳐몰아낼 결사의 각오를 다지고있으리

뜻없는 혼이
한가로이 떠도는
그런 한적한 산마루가 아니다
무등산은 오늘도
결코 평온을 모르며 움썹거리거니

오, 철천지원쑤
미제놈들을 끝까지 박멸할
결사의 의지를 안고
피의 산 원한의 산 무등산에서는 오늘도
봉기자들의 원혼의 《시위》가 계속되고있다